

브라운 신부의 비밀

The Secret of Father Brown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192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3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The Secret of Father Brown" (Cassell & Co. 1927)

저자

G.K. 체스터턴 (G.K. Chesterton) (1874-193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0175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GB10 로컬) · 검수 Claude Opus 4.8 (검수·교정)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체스터턴 특유의 역설적 위트와 아늑한 영국 정서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BY

G. K. 체스터턴

캐슬 앤 컴퍼니, 리미티드

런던, 토론토, 멜버른, 시드니

1927년 초판

To

브래드포드의 세인트 커스버트 성당 존 오크너 신부께. 그의 진상은
허구보다 더 기이하고, 그 감사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깊으니.

목차

제1장

1. 판사의 거울
2. 두 수염을 가진 남자
3. 날아오르는 물고기의 노래
4. 배우와 알리비
5. 오드레이의 실종
6.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7. 메루의 붉은 달

8. 마른의 가장 슬퍼하는 자

플랑보의 비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였다가, 이후 영국에서 매우 사적인 탐정으로 활동했던 플랑보는 이미 두 직업을 모두 은퇴한 지 오래였다. 어떤 이들은 범죄 경력 탓에 탐정 일을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한다. 어쨌든 낭만적인 탈출과 회피의 술수들로 가득했던 삶 끝에,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적절한 안식처로 여겨질 만한 곳에 도착했다. 스페인의 한 성이었다.

그 성은 비교적 작았지만 튼튼했다. 검은 포도원과 푸른 채소밭은 갈색 언덕비탈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풍우 같은 모험을 모두 겪은 후에도, 플랑보는 여전히 많은 라틴족이 지니고 있는, 예를 들어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은퇴할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오직 작은 농부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많은 대형 호텔 경영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거대한 백만장자가 되어 가게 거리를 사들일 수도 있는 순간에 멈춰, 집안일과 도미노 놀이에 조용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는 많은 프랑스 지방 상인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플랑보는 우연히, 심지어 급작스럽게도 한 스페인 귀부인과 사랑에 빠져, 스페인 영지에서 결혼하고 큰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어 나가고자 하는 뚜렷한 욕망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한 아침, 그의 가족은 평소와 달리 그가 매우 초조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인 것을 목격했다. 그는 작은 소년들을 제치고 달렸고, 멀리서 오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긴 산비탈의 대부분을 내려갔다. 그 방문객이 아직 먼 곳에 검은 점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는 그랬다.

검은 점은 점점 커져 갔다.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략 둥글고 검은 색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언덕에는 성직자의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옷은 비록 성직자의 옷이라 할 지라도, 사제복이나 수단과는 비교할 때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경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입을 북서부 섬 출신의 남자라고 분명히 드러냈다. 마치 그에게 ‘클라팜 저션’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단단하고 짧은 우산을 들고 있었다. 손잡이는 곤봉처럼 뭉툭했다. 그 우산을 본 라틴계 친구는 감격의 눈물을 거의 흘릴 뻔했다. 그 우산은 그들이 오래전에 함께했던 수많은 모험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람이 프랑스인의 영국 친구였다. 브라운 신부였다. 그는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오랫동안 미뤘던 방문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꾸준히 서신을 교환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수년 만이었다.

브라운 신부는 곧 그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가족 구성원이 꽤 많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울리는 듯한 풍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먼저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세 명의 동방박사를 형상화한, 페인트와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큰 나무 인형들을

소개받았다. 스페인에서는 가정의 삶에서 아이들의 일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농장에 있는 가축들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는 또 한 명의 이웃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신처럼 먼 나라의 옷차림과 매너를 그 계곡에 가져온 사람이었다.

사제가 작은 저택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그때 그는 한 위엄 있는 낮선이를 마주했다. 그 남자는 스페인 가문에 인사를 건넸는데, 그 절은 어느 스페인 대귀족도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절도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회색 머리를 가졌으며, 매우 잘생긴 신사였다. 그의 손과 커프스, 그리고 커프링크는 광택이 너무도 눈부셔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긴 얼굴에는 우리 나라 풍자화에서 흔히 보이는, 긴 커프스와 손질된 손톱과 연관된 나른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경계심이 강하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의 눈에는 회색 머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국적을 짐작하게 할 만했다. 또 정제된 목소리의 코에 걸친 소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럽의 사물들이 모두 아주 오래된 것이라 단정 짓는 그의 지나치게 빠른 태도도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그 사람은 보스턴의 그랜디슨 체이스(Grandison Chace) 씨였다. 그는 미국인 여행자로, 인접한 영지를 임대하며 잠시 미국 여행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것은 비슷한 언덕 위에 있는 비슷한 성이었다.

체이스 씨는 자신의 오래된 성을 좋아했고, 친절한 이웃을 같은 유형의 지역 고물처럼 여겼다.

플랑보가 우리가 말했듯, 정말로 뿌리내린 듯한 은퇴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세기에 걸쳐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함께 그곳에서 자라난 듯했다. 그는 본래의 성씨인 듀록(Duroc)을 다시 사용했다. ‘등불(The Torch)’이라는 다른 호칭은 단지 ‘전투명’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런 남자가 사회와 싸울 때 종종 사용하는 이름이다. 그는 아내와 가족을 사랑했고, 사냥을 위해 필요한 곳 이상으로 멀리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 세계일주자에게, 미국인이 지혜롭게 보고 감탄했던 지중해 사람들의 헛살 같은 정숙함과 절제된 사치의 화신처럼 보였다. 서쪽에서 굴러온 돌은 남쪽의 이 바위 위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 이 바위에는 이끼가 아주 많이 자라 있었다.

하지만 체이스 씨는 브라운 신부에 대해 들어본 바 있었다. 그의 어조는 유명인을 대할 때처럼 미세하게 변했다. 인터뷰 본능이 깨어났다. 교묘하지만 긴장된 태도였다. 만약 그가 이를 뺏듯 브라운 신부를 캐물었다면, 그것은 가장 숙련되고 고통 없는 미국식 치과 치료처럼 이루어졌다.

그들은 집의 바깥 마당에 앉아 있었다. 지붕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스페인 가옥의 현관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해가 지면서 어스름이 짙어지고 있었다. 산지의 공기는 석양이 진 뒤로 갑자기 선명해졌다.

석판 위에는 작은 난로가 놓여 있었다. 도깨비처럼 붉은 눈으로 이글거리며, 바닥에는 붉은 무늬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 빛은, 그들 위로 깊고 푸른 밤하늘까지 치솟은 거대하고 험뎠은 갈색 벽돌벽의 아래쪽 벽돌에는 한 줄기도 거의 닿지 않았다.

황혼 속에서 플랑보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넓은 어깨와 칼날 같은 큰 수염을 가진 거구였다. 그는 거대한 통에서 진한 포도주를 퍼서 주변에 돌리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신부는 매우 작고 위축되어 보였다. 난로 앞에 웅크린 것처럼 보였다. 반면 미국의 손님은 우아하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날카로운 얼굴이 빛을 받아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 어린 지혜가 빛나고 있었다.

“신부님, 확신합니다. 문샤인 살인 사건에서 신부님의 업적은 탐정 과학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무엇인가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신음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저희는 뉘엿과 다른 이들의 이른바 업적, 그리고 르코크, 설록 홈즈, 니컬러스 카터, 그리고 이 분야의 상상력 어린 화신들인 다른 이들의 업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 면에서 당신의 접근 방식이 이러한 다른 사상가들, 가상의 인물이든 실제 인물이든, 그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

방법의 차이가 오히려 방법의 부재를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난로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살짝 몸을 일으켰다.

“죄송합니다. 네……. 방법의 부재요. 죄송하지만 정신의 부재도 함께 있군요.”

“엄격하게 표로 정리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탐구자는 계속 말했다. “에드거 앨런 포는 대화체로 된 몇 편의 짧은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뒤팡의 방법론, 그 정교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왓슨 박사는 홈즈의 방법론, 즉 사물의 세밀한 관찰에 기반한 분석 과정을 꽤나 상세하게 설명해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방법론에 대한 완전한 해설은 아직까지 아무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님, 미국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강연 시리즈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절했습니다.” 신부가 난로 쪽을 보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거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낳았습니다.” 체이스가 말했다. “우리 측 일부에서는 당신의 학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비밀은 불가사의한 성격을 띠고 있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무엇이요?” 브라운 신부가 다소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좀 난해하죠.” 다른 한 명이 답했다. “말해 드리자면, 사람들은 갠럽 살인 사건, 스타인 살인 사건, 그리고 노신사 머튼의 살인 사건에 이어 이제 그윈 판사의 살인 사건까지 모두 크게 들끓고 있습니다. 더구나 달몬의 이중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달몬은 미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매번 그 현장 한복판에 서서, 사건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당신이 마치 보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칼로타 브라운슨은 당신의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생각의 형태’에 대한 강연까지 했죠. 인디애나폴리스의 ‘천리안 자매회’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난로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큰 소리로, 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인지하지 못한 듯 말했다.

“아, 이건 안 돼.”

"정확히 어떻게 고쳐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체이스 씨가 농담조로 말했다. "천리안 자매회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 낸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그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브라운 신부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조용하지만 격렬한 생각의 파도에 휩싸인 듯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고 무기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말해야겠군요.”

그의 눈이 어두운 풍경 전체를 어둠 속을 훑듯 지나갔다. 작은 난로의 붉은 눈에서부터 시작해, 남쪽 하늘의 강렬한 별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나는 고대 벽의 광활한 면을 지나갔다.

“비결은……” 그가 말했다. 그러곤 말을 잊지 못하는 듯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보십시오, 바로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장엄한 침묵을 깨뜨리듯, 아주 작게 떨리며 되물었다.

“보십시오, 제가 직접 그들을 모두 죽였으니까요.” 브라운 신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물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랜디슨 체이스는 마치 천천히 터지는 폭발에 의해 천장까지 끌어올려진 사람처럼, 그의 큰 키를 쭉 펴며 일어섰다. 그는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질문을 반복했다.

“각각의 범죄를 아주 신중하게 계획했소.” 브라운 신부가 이어 말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확히 생

각해 봤소. 그리고 내가 살인자와 똑같은 기분에 빠졌음을 확신할 때, 비로소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지.”

체이스는 점차 끊어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놀랐소.” 그가 말했다. “순간,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거든. 잠시 동안 미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떠올랐지. ‘성자 탐정, 살인자로 폭로: 브라운 신부의 백 가지 범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고 심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뜻이겠지만……”

브라운 신부는 담배를 피우려던 짧은 담배대를 난로에 딱, 하고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 드문 분노의 경련이 스쳤다.

“아니, 아니, 아니.” 그는 거의 화가 난 듯 말했다. “그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야. 깊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생기는 실수지…….”

“단어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도덕적인 진리를 말하려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비유로만 받아들이거든. 다리가 두 개 달린 실제 인간이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나는 성령을 영적인 의미로만 믿습니다.’라고.”

“물론 나는 몰랐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의미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라고.”

“그러자 그는 내가 진화론이나 윤리적 친교, 혹은 그저 헛소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줄로 알았지.”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나를 보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 진정한 자아가 그 살인들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물리적인 수단으로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지. 벽돌 한 장이나 기계의 일부로도 그들을 죽일 수는 있었을 테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다 깨달았지.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만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만은 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것은 한 친구가 종교적인 수행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었어. 그 친구는 이 방법을 교황 레오 13세에게서 얻은 것 같아. 그분은 늘 내게 영웅 같은 존재였지.”

“죄송하지만,” 미국인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신부를 마치 야수라도 바라보듯 주시하며 말했다. “제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알기까지는 설명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탐정의 과학이라니요…….”

브라운 신부는 또다시 손가락을 ‘톡’ 튕기며 성내듯 말했다.

“바로 그거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갈라서는 거죠. 과학은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 하나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쓸 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수사는 과학이다’, ‘범죄학은 과학이다’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바깥에서 관찰합니다. 마치 거대한 곤충을 연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건조하고 중립적인 빛’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죽은, 인간성을 잃은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집니다. 마치 먼 과거의 괴물을 바라보듯 말이지요. 그들은 인간의 ‘범죄자 두개골’ 모양을, 코뿔소의 뿔처럼 기이한 종양이라도 되는 양 빨리 응시합니다.

과학자가 ‘유형’을 논할 때, 그는 결코 자신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웃을, 아마도 가난한 이웃을 지칭하지요. 저는 그 건조한 빛이 때로는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면에서 그것은 과학의 정반대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친숙한 것이 실제로는 멀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 사이에 긴 코가 있다고 말하거나, 그가 24시간에 한 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당신이 말하는 ‘비밀’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저는 인간을 바깥에서 관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인자 내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한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저는 이미

인간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 내부에 있어, 그의 팔과 다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 내부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의 정념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굽히고 살피는 적대의 자세로 저 자신을 구부릴 때까지. 그의 충혈되고 사시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까지. 그가 반쯤 미친 듯이 집중하는 눈가리개 사이로 내다볼 때까지. 짧은 직선의 도로 끝, 피비린내 나는 웅덩이를 바라볼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저는 진정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체이스 씨가 길고도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하는 종교적 수행이라는 거요.”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걸 저는 종교적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너무도 현실적인 종교적 수행이라, 나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의 형상’과 연결된 비밀스러운 마법이 있다며, 당신의 동포들에게 떠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표현을 서툴렀을지라도, 그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혹은 나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선함을 얻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그토록

우쭈글대고, 비웃으며, ‘범죄자’라는 말을 마치 수만 마일 떨어진 숲속의 원숭이들을 논하듯 말할 권리가 얼마나 없는지 정확히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급한 유형’이나 ‘불량 두개골’ 따위를 운운하며 자신을 속이는 더러운 자기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름 같은 자만심을 영혼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유일한 희망은, 어떻게든 한 명의 범죄자를 사로잡아 자신의 모자 아래 안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직하는 것뿐입니다.”

플랑보가 앞으로 나서서 스페인 와인으로 거대한 잔을 가득 채워 친구 앞에 놓았다. 그는 이미 다른 손님 앞에도 같은 잔을 내려놓은 터였다. 그러고서야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브라운 신부님이 또 새로운 수수께끼들을 품고 오셨나 봅니다.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부터 그는 좀 이상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 이야기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군요.” 체이스는 잔을 들어 올리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묻고 싶은 건,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할 때도 그런 자기 성찰적인 방식을 썼느냐는 거예요.”

브라운 신부도 잔을 들어 올렸다. 벽난로의 불빛이 붉은 포도주를 투명하게 비췄다. 순교자의 창유리에 걸린 영광스러운 적색 유리처럼.

붉은 불꽃이 그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숙이 불꽃 속으로 파고들어 갔다. 마치 그 한 잔의 잔에 모든 인간의 피로 가득한 붉은 바다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영혼은 한 명의 잠수부 같았다. 그는 어둠의 겸손과 거꾸로 된 상상력으로, 바다의 가장 깊은 괴물들과 가장 오래된 진흙보다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가라앉았다.

그 잔은 붉은 거울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다. 최근 며칠간의 일들이 진홍빛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동료들이 요구했던 본보기들이 상징적인 형태로 춤을 추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속의 모든 사건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이제 그 빛나는 포도주는 어두운 붉은 모래 위의 거대한 붉은 석양 같았다. 어두운 사람들의 형상들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을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석양은 이내 조각조각 흩어졌다. 정원 나무들에 매달린 붉은 등불들과, 반사된 붉은 빛으로 빛나는 연못이 보였다. 그러자 모든 색채는 다시 하나의 거대한 붉은 수정 장미로 뭉쳤다. 이 보석은 붉은 태양처럼 세상을 비췄다. 다만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예외였다. 그 사람은 높은 머릿쓰개를 쓴 선사 시대의 사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시 색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거친 회색 황야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거친 붉은 수염의 불꽃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의 시각이나 기분과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억 속에서 그것들은 그 요청에 응하여 떠올랐고, 일화와 논거로 스스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네, 기억나네요.” 그는 와인 잔을 천천히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꽤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II

판사의 거울

제임스 배그쇼와 윌프레드 언더힐은 오랜 친구였다. 그들은 밤마다 거리를 거닐며, 조용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거대한 교외의 미로 같은 골목을 돌아다닐 때면 끝없이 수다를 떨곤 했다.

전자는 검은 수염을 가진 큼직하고 거무스름한, 성격이 온화한 남자로, 직업적인 경찰 형사였다. 후자는 날카로운 얼굴에 민감해 보이는, 머리가 밝은 신사로, 탐정 수사에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였다.

최고의 과학적 로맨스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 바로 경찰관이 말을 하고, 아마추어가 경의를 담아 듣고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배그쇼가 말했다. “전문가가 항상 틀렸다고 여겨지는 직종이 바로 우리니까요. 어차피 사람들은 이발사가 머리를 제대로 자르지 못해 손님이 도와줘야 하는 이야기나, 택시 기사

가 손님이 운전의 철학을 설명해 주어야만 택시를 몰 수 있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단점도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로맨스 작가들이 잘못된 점은, 우리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장점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이죠,” 언더힐이 말했다. “셜록 홈즈라면 그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그가 옳을 수도 있죠.”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집단적인 규칙입니다. 마치 군대의 참모부 작업처럼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형사 소설에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가 물었다.

“자, 셜록 홈즈와 공식 탐정 레스트레이드를 등장시키는 가상의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자. 예를 들어, 홈즈는 길을 건너는 낯선 이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먼저 살피는 모습만 보고도 그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추측해 낼 수 있다. 홈즈라면 그런 추측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라면 그런 추측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추측은 못해도, 길가에 서 있는 경찰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레스트레이드는 그 남자가 외국인이란 것을 단지 자신의 부서에서 모든 외국인을 감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영국 태생의 자국민
까지도 감시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경찰로서 나는 경찰이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 기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시민으로서, 때로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들기도 한다."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언더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 이상한 거리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만약 저기 그 집에서 누군가가 나와도, 그 사람에 대해 무언가 아신다
는 건가요?”

“그가 집주인이라면 알 수 있죠.” 배그쇼가 답했다. “그 집은 영국과
루마니아 혈통을 섞은 문학자가 임차해 두고 있어. 평소엔 파리에서 살
지만, 최근 자신의 시극(詩劇) 하나를 준비하느라 여기까지 내려온 참
이야. 오스릭 오름(Osric Orm)이라는 이름이네. 새로 등단한 시인 중
한 명이라고 해. 난이도 좀 있는 편이라 읽기 쉽지 않대.”

“하지만 길을 따라 늘어선 모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동료가 말했
다. “저 높은 담장들과 넓은 정원에 묻힌 집들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
고, 이름 없이 낯설게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는 없잖아요.”

“몇 군데는 압니다.” 배그쇼가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정원은 험프리 가윈 경의 소유지 끝자락입니다. 그는 옛날 재판관으

로, 더 잘 알려진 이름은 가윈 판사죠. 전쟁 중 스파이 혐의 때문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그 분입니다.”

“그 옆 집은 부유한 시가 상인의 것입니다. 그는 스페인계 미국인 출신으로, 피부는 까맣고 스페인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매우 영국적인 불리(Buller)입니다.”

“그 다음 집은…… 소리가 들리셨나요?”

“무언가 들렸어요.” 언더힐이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알겠습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꽤 무거운 권총이 두 발 쏘아졌고, 이어 비명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소리는 바로 고위 법관인 가윈 경의 뒷마당에서 직접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온과 합법성의 낙원이라 불리는 그곳에서요.”

그는 거리를 낱낱이 훑어보더니, 이어서 말했다.

“뒷마당의 유일한 문은 반대편으로 반 마일이나 떨어져 있죠. 이 담장이 조금 더 낮았거나, 제가 조금 더 가벼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일단 시도해 봐야겠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낮아집니다.” 언더힐이 말했다. “그곳에는 도움이 될 만한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벽이 갑자기 낮아지는 곳을 발견했다. 마치 벽이 땅속으로 절반쯤 가라앉은 듯했다. 어두운 울타리 너머로 정원의 나무 한 그루가 나뭇가지를 뺏어 나왔다. 그 나무는 가장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외로운 가로등 빛이 그 꽃들에 내려앉아 금빛으로 물들었다.

배그쇼는 굵은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리고 낮은 벽 너머로 한쪽 다리를 내밀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무성한 식물들 사이, 무릎까지 잠긴 채 정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밤의 가원 판사의 정원은 묘한 풍경을 자아냈다. 정원은 넓었고, 교외의 한가한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집들 중 맨 끝에 있는, 키가 크고 어두운 집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집은 말 그대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문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조명은 켜져 있지 않았다. 적어도 정원을 내려다보는 쪽으로는 그랬다.

그런데 그 집의 그림자 속에 자리한 정원은, 본래라면 완전한 어둠만 가득해야 마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소멸해 가는 폭죽들처럼, 혹은 거대한 로켓이 불꽃을 터뜨리며 나무들 사이에 떨어졌을 때의 광경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의 정체는 분명해졌다. 여러 가지 색을 띤 등불들의 빛이었다. 등불들은 나무들 사이에 얹혀 있었는데, 마치 알라딘의 동화에 나오는 보석 같은 과일처럼 보였다. 특히 작

은 원형 호수나 연못에서 나는 빛이 눈에 띄었다. 호수 표면은 희미한 색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호수 밑에 등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그가 파티를 여는 건가?” 언더힐이 물었다. “정원이 불빛으로 밝혀져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배그쇼가 대답했다. “그는 그걸 취미로 삼고 있고, 혼자 있을 때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는 저기 오두막이나 별장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일하며 서류를 보관하는데, 거기서 작은 전기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고 하더군요. 그를 잘 아는 불러는 그 색깔 있는 전등이 그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인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위험 신호 같은 붉은 빛이요,” 다른 한 사람이 덧붙였다.

“세상에! 위험 신호일지도 몰라!” 그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언더힐도 그가 본 것을 보았다. 연못의 기울어진 가장자리에는 달의 고리처럼 진주빛 빛고리가 둘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빛고리가 두 개의 검은 줄기에 의해 끊겨 있었다. 곧 그 검은 줄기가 물속으로 거꾸로 빠진 인물의 긴 검은 다리임이 드러났다. 그 인물의 머리는 이미 연못 안에 잠겨 있었다.

"자, 보시오." 형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건 제 눈에는 ----처럼 보이는데."

그의 목소리는 넓게 퍼진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사라졌다. 인공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그 잔디밭을, 그는 연못과 쓰러진 인물 쪽으로 곧장 향했다.

언더힐은 그 직선 길을 꾸준히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벌어져 그를 놀라게 했다.

연못 근처의 검은 그림자 쪽으로 총알처럼 빠르게 달려가던 배그쇼가, 갑자기 급격한 각도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는 집의 그림자 쪽으로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언더힐은 그 방향이 바뀐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형사가 집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그 어둠 속에서 몸싸움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그리고 배그쇼가 붉은 머리의 작은 남자를 끌고 돌아왔다. 그 포로가 저항하며 사나웠다.

이 포로는 분명히 건물의 그림자를 이용해 도망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형사의 더 예리한 귀가 그 남자가 덩불 사이를 새처럼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언더힐,” 형사가 말했다. “연못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확인해 봐.”

그리고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자, 이제 당신 누구요? 이름이 뭐죠?”

“마이클 플러드입니다.” 낮선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마른 작은 사내였다. 코는 얼굴에 비해 유난히 굵었고, 얼굴빛은 양피지처럼 창백했다. 머리카락의 붉은 빛과 대비되어 더욱 도드라졌다.

“이 일과는 무관합니다. 그가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신문사를 위해 그를 인터뷰하러 온 것뿐입니다.”

“신문사 기자분들이 유명인을 인터뷰하실 때, 보통 정원을 둘러싼 담장을 넘어가시나요?”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꽃밭 쪽으로 이어지는 길 위를 가리켰다. 발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오가던 흔적이었다.

플러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얼굴 역시 똑같이 엄숙했다.

“인터뷰이라면 담장을 넘어 올 수도 있었지,” 그가 말했다. “앞문으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으니까. 하녀도 외출한 상태였고.”

“그가 나갔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탐정이 의심을 담아 물었다.

“왜냐하면,” 플러드가 거의 비정상적일 만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나만 정원을 넘나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스스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하인이 그랬다. 방금 내가 그를 보았다. 정원 문 옆, 정원의 반대편으로 담장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그럼 왜 정원 문을 쓰지 않았단 말인가?” 심문자가 쏘아붙였다.

“내가 어떻게 알겠소?” 플러드가 반박했다.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짐작하건대.”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나에게 묻지 말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지금 바로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불빛이 비치는 황혼의 어둠 속에서도, 또 다른 흐릿한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짧고 네모진 머리를 한 그 인물은, 보기 드물게 형편 없는 제복 차림이었지만 붉은색 조끼를 입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집 안쪽의 옆문으로 서둘러, 그러나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그쇼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매우 마지못해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무겁고 누렇게, 평평한 짙은 푸른색 머리와 어울리는, 무엇인가 아시아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배그쇼가 갑자기 플러드라는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기,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도 많지 않소.” 플러드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 방금 아일랜드에서 왔소. 이 근처에서 내가 아는 이는 성 도미니크 교회 신부, 브라운 신부뿐이오.”

“너희 둘은 이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배그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너는 집으로 들어가 성 도미니크 성당 관사에서 브라운 신부에게 연락해라. 당장 여기로 오라고 전해라. 무슨 피를 부리지 말라.”

열정적인 형사가 잠재적 피의자들을 묶어두는 사이, 그의 동료는 지시에 따라 이미 비극이 일어난 현장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곳은 묘한 광경이었다. 비극이 비극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기이한 판타지극처럼 보일 만큼 이상했다.

간단한 확인 결과,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연못 속에 잠겨 있었다. 인공 조명의 빛이 머리를 감싸며, 마치 불경한 후광이라도 드리운 듯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어딘가 음흉해 보였다. 이마는 벗겨져 있었고, 드문드문 남은 곱슬머리는 철고리처럼 짙은 회색이었다. 측두부에 총상이라는 손상이 있었음에도, 언더힐은 많은 초상화에서 보아온 험프리 그윈 경의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사망자는 저녁용 정장을 입고 있었다. 거의 거미다리처럼 가느다란 그의 검은 다리는, 그가 떨어졌던 가파른 언덕 위로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악마적인 아라베스크의 기이한 장난처럼, 피가 서서히, 그러나 선명하게 빛나는 물속으로 퍼져나갔다. 구름 끝의 붉은 석양빛처럼 투명했던 피는, 뱀처럼 굽이치는 고리 모양으로 물결을 이루었다.

언더힐은 그 기괴한 시체를 내려다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보니, 강둑 위에 네 명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는 배그쇼와 그의 아일랜드인 포로를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붉은색 조끼를 입은 하인의 신분을 추측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네 번째 인물은 묘한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그 위엄은 이 상황의 부조화감과 이상하게도 잘 어울렸다.

그 인물은 통통한 체격에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후광처럼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언더힐은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기이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무용을 다룬 오래된 목판화 끝부분에 그려진 인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배그쇼가 신부에게 말을 건네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이 남자를 알아본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는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글쎄, 나 역시 그가 무죄라고 생각해," 작은 신부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왜 그가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정원에 들른 방식이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가 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중하게 정원에 진입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조차 정원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선호하더군요.”

“정상적인 방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오?” 탐정이 물었다.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맑고도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정문으로 들어왔소. 나는 종종 그런 방식으로 집에 들어오곤 하죠.”

“실례합니다.” 배그쇼가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이 살인을 자백할 계획이 아니라면요.”

“네, 그럴 것 같군요.” 신부는 온화하게 말했다. “사실은, 제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다른 분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그 것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일종의 대혼란이 벌어졌더군요.” 브라운 신부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 거울이 깨져 있었고, 작은 야자수가 넘어졌으며, 화분 조각들이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뭔가 일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배그쇼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것을 보셨다면, 분명히 무언가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더라도,” 신부는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플러드 씨죠. 그는 담장을 넘어 정원에 들었고, 다시 그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변칙성이 제가 그의 무죄를 믿는 이유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배그쇼가 갑자기 말했다.

그들이 옆문으로 들어설 때, 하인이 앞장섰다. 배그쇼는 한두 발짝 뒤로 물러나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그 하인, 좀 이상하군.”

이름은 그린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원의 하인이었고, 아마도 그가 유일하게 상주하던 하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기묘한 점은, 그가 주인이 정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단호하게 부인했다는 것이다.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는 노판사가 큰 법적 만찬에 참석하러 나갔으며, 몇 시간 동안은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핑계로 자신이 자리를 비웠다고 변명했다.

“그가 그 기묘하게 몰래 들어오는 방식에 대해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언더힐이 물었다.

“아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그 남자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측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안쪽 복도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복도는 집 옆면을 따라 길게 이어져, 정면 현관문에서 끝이 났다. 현관문 위에는 구식의 부채꼴 채광창이 얹혀 있어, 어딘지 음울해 보였다.

회색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마치 처참하고 색바랜 일출처럼, 그 빛의 광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 전체를 밝히는 빛은 한 곳, 모서리에 놓인 낡은 형식의 램프에서 나왔다.

그 빛 속에서 배그쇼는 브라운이 말했던 파편들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키 큰 야자수가 긴 잎을 늘어뜨린 채 완전히 쓰러져 있었다. 어두운 붉은색 화분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다.

그 파편들이 카펫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거기에 희고 빛나는 거울 조각들도 섞여 있었다. 거울은 거의 비어 있었다. 빈 틀이 복도 끝 벽면에 걸려 있었다.

이 복도와 직각을 이루는 곳, 측문을 들어섰을 때 바로 마주 보는 곳에는 다른 복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집 안쪽이 이어졌다.

복도 끝에는 전화기가 보였다. 하인이 신부를 부르기 위해 썼던 그 전화기였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는, 틈새로만 봐도 단단히 쌓인 큰 가족 표지의 책들이 보였다. 그곳이 판사의 서재였다.

배그쇼는 발밑에 떨어진 화분과 섞여 있는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가 신부에게 말했다.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싸움은 그원과 살인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겸손하게 말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명확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인자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그원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원이 문을 열어주었을 거예요.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겠지요. 총알이 유리창을 맞췄을 수도 있고, 우연히 차거나 해서 깨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원은 간신히 벗어나 정원으로 도망쳤고, 연못가까지 쫓겨 결국 총에 맞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범행의 전모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들도 살펴봐야겠지요.”

다른 방들은 별다른 단서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배그쇼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장전된 자동 권총을 발견했다. 그는 그 권총을 의미심장하게 가리켰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나 보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갔을 때 가져가지 않은 게 이상하군.”

결국 그들은 복도로 돌아와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브라운 신부는 어딘가 정신이 없는 듯 시선을 두리번거렸다. 양쪽 복도는 똑같은 회색 빛의 낡은 벽지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단조로움은 몇몇 초기 빅토리아 양식의 장식품들이 지닌 먼지와 흐릿한 화려함을 더 강조하는 듯했다. 램프의 청동에는 녹슬어 가는 녹색이 침식해 들어갔고, 깨진 거울의 틀에는 흐릿한 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거울을 깨면 불운이 따른다고 하지 않나?” 그가 말했다. “이곳은 불운이 가득한 집처럼 보인다. 가구 하나하나에도 묘한 기운이 감돌고----”

“그건 좀 이상하군요.” 배그쇼가 날카롭게 말했다. “앞문은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걸쇠만 걸려 있네요.”

대답은 없었다.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 정원으로 들어섰다. 앞마당은 조금 더 좁고 단정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한쪽 끝에는 기묘하게 다듬어진 생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동굴처럼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 그늘 아래로는 깨진 계단 몇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구멍 쪽으로 다가가고는 고개를 숙여 그 아래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가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와 나무 꼭대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형사가 뒤따라 들어갔다. 이상하게 덮인 계단이 마치

무너진 다리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정원의 더 어둡고 텅 빈 공간들 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 다리는 집 모퉁이를 빙글게 돌아, 너머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펼쳐진 색색의 불빛들을 시야에 들어오게 했다. 아마도 그것은 잔디밭 위에 아치식 테라스를 쌓는다는 식의 버려진 건축적 취향의 유물일 것이다. 밤과 새벽 사이 작은 시간대에 누군가를 찾으려면 이상한 막다른 길인 셈이지만, 바그쇼는 그 당시 그곳의 세부 사항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발견된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밝은 회색 옷을 입은 작은 키의 그 남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머리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거대한 민들레 꽃송이처럼 노랗고 빛나고 있었다.

그 머리는 말 그대로 후광처럼 두드러졌다. 그런데 그 후광의 이미지는, 그가 천천히, 그리고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볼 때 강한 대비를 일으켰다.

그 후광은 부드럽고 천사 같은 인상의 타원형 얼굴을 감싸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구겨지고 노쇠했으며, 힘찬 턱과 주먹코가 있었다. 그 코는 어딘가 권투 선수의 부러진 코를 연상시켰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시인 오름 씨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누구든,” 배그쇼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해야겠소.”

시인 오스릭 오름 씨는 질문을 받을 때 자기 표현의 모범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새벽 전의 회색 황혼이 무성한 생울타리와 부서진 다리를 덮어가기 시작하던 그 옛 정원의 구석에서, 그리고 이후 점점 더 불길하게만 느껴지는 법적 조사들의 연속적인 단계들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험프리 그윈 경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벨을 누를 사람이 없어 방문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문이 거의 열려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시간이 좀 늦었다는 암시가 들어오자, 그는 이를 갈았다. 그가 한 말은 모두 모호했다. 그는 정말로 영어를 거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이라도 아는 체하는 것보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의 의견은 무정부주의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듯했다. 이는 그의 시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가 판사와 가진 일, 혹은 아마도 판사와의 다툼이 무정부주의 계열의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윈 경은 독일 간첩에 대한 광기처럼 볼셰비키 간첩에 대한 광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무튼, 체포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우연한 사건이 Bagshaw에게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야 한다는 인상을 확고히 해주었다.

그들이 앞문을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우연히 또 다른 이웃을 마주쳤다. 바로 옆집 담배 상인 Buller였다. 그는 갈색의 날카로운 얼굴과 단추 구멍에 꽂은 독특한 난으로 눈에 띄었다. 그는 그 원에 분

야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은 다소 놀랐지만, 그는 시인인 이웃을 마치 그를 만날 것을 예상한 듯 평범한 어조로 인사했다.

“안녕, 또 만나네.” 그가 말했다. “그윈 영감과 긴 이야기를 나눴나 보군.”

“험프리 그윈 경이 죽었습니다.” 배그쇼가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불러는 옆에 서 있는 가로등 기둥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놀람에 굳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시가 끝부분이 규칙적으로 빛나고 어두워졌지만, 갈색빛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완전히 새로웠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가 말했다. “두 시간 전 제가 이 문을 지나갈 때, 오름 씨가 험프리 경을 만나기 위해 이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거든요.”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집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바그쇼가 말했다.

“문간에 서 있기엔 꽤 긴 시간이군.” 불러가 말했다.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거리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건 좀 지루할 테니까요.”

“그때부터 집에만 있었어요.” 담배 상인이 말했다. “편지를 쓰다가, 또 우편으로 보내려고 다시 나왔죠.”

“그건 나중에 다 말씀드리죠.” 바그쇼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아니, 좋은 아침이군요.”

오스릭 오름이 험프리 그윈 경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관을 받은 일은, 수주 동안 신문을 장식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재판의 핵심은, 어둠이 걷히고 회색빛 새벽이 거리와 정원을 비추던 밤, 가로등 아래에서 나뉘던 그 짧은 대화와 완전히 같은 지점에서 있었다.

모든 것은 두 시간이라는 빈틈의 수수께끼로 귀결되었다. 불러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오름을 목격한 시각부터, 브라운 신부가 그가 여전히 정원에 남아 있는 듯이 발견한 시각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오름은 분명히 여섯 건의 살해를 저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할 일이 없어서라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오름에게 기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관이 잠기지 않았고, 큰 정원으로 통하는 옆문도 열린 채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법정은 바그쇼의 명쾌한 재구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복도에서 벌인 몸싸움의 흔적이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유리를 산산조각 낸 총알까지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그가 숨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울타리의 구멍은 숨어 있던 자리로 보기에 충분했다.

반면, 변론을 맡은 매튜 블레이크 경은 이 마지막 주장을 역으로 활용했다. 그는 물었다. 왜 어떤 남자가 나을 길도 없는 곳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겠는가? 거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했을 텐데, 하고.

매튜 블레이크 경은 살해 동기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는 점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검찰 측의 또 다른 명재 변론가인 아서 트래버스 경과와 공방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트래버스 경은 볼셰비키 음모설을 꺼냈지만, 그 설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오름의 그 밤, 기묘한 행동의 진상을 파고들 때는 트래버스 경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올랐다. 변론을 맡은 명석한 변호사가,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검찰 측 변호사에게나, 자신의 변호사에게나 거의 말이 없었다.

아서 트래버스 경은 그 침묵을 최대한 활용하려 애썼다. 하지만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트래버스 경은 키가 크고 마른 사내였다. 창백하고 긴 얼굴을 하고 있어, 튼튼한 체격에 새처럼 빛나는 눈을 지닌 매튜 블레이크 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블레이크 경이 자신만만해 보이는 작은 박새를 연상시킨다면, 트래버스 경은 학이나 두루미에 더 가까웠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시인에게 질문을 퍼부었는데, 그 긴 코가 마치 긴 부리처럼 보였다.

"당신은 배심원단에게, 당신이 아까 돌아가신 분을 만나러 간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오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분을 만나고 싶으셨나 보군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셨겠어요. 그의 현관문 앞에서 꼬박 두 시간이나 기다리셨다면서요?”

“네,” 오름이 대답했다.

“그런데도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당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말인가?”

“아니요,” 오름이 말했다.

“도대체 남의 앞마당에서 두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던 말이지?” 변 호사가 다그쳤다. “무슨 짓을 했겠지, 말이지?”

“네.”

“비밀인가요?” 아서 경이 단호하면서도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당신에게 비밀입니다.” 시인이 대답했다.

이 ‘비밀’이라는 제안은 아서 경이 자신의 비난 공세를 펼치는 데 단단히 붙잡은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도덕적 수위가 낮은 것으로 비칠 만큼 과감하게 행동했다. 바로 그 동기의 신비로움, 즉 상대방 주장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을 역이용해 자신의 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이를 어떤 광범위하고 정교한 음모의 첫 번째 단편적인 단서로 제시했다. 그 음모 속에서 한 애국자는 문어에 감긴 듯이 죽임을 당했다.

“맞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 친구의 말은 완전히 옳습니다. 우리는 이 공직자가 왜 살해당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음 공직자가 왜 죽임을 당할지, 그 이유 또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 친구 자신이 그분의 위엄과, 법의 수호자들을 향한 파괴의 지옥세력들이 품은 증오의 희생자가 되어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침대에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결코 학살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어 버릴 때까지도 말입니다. 변론 측이 ‘동기’라는 낡은 구실로 모든 절차를 막아서는 한, 사건의 모든 다른 사실들, 모든 눈부신 불일치들, 모든 숨 막히는 침묵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는 카인의 존재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서 경이 저토록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소.” 바그쇼는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보통의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어. 살인 사건의 기소인이 그렇게 복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오, 노란 머리의 그 작은 도깨비 같은 자가 주는 인상이 꽤 섬뜩했다는 것을. 그는 그 인상을 부추기듯 행동했어.”

나는 내내 디 퀸시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소. 그는 윌리엄스라는 끔찍한 범죄자에 대해 썼는데, 이 남자는 거의 침묵 속에서 두 가족 전체를 학살했지. 디 퀸시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생생하고 부자연스러운 노란 머리를 가졌다고 해. 그리고 그는 그 머리가 인도에서 배운 요령

으로 염색한 것 같았다고 했소. 인도에서는 말들을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염색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그의 기이하고 돌처럼 차가운 침묵, 동굴 거주자 같은 그 침묵. 그 모든 것이 나를 동요시켜 마침내 피고석에 일종의 괴물이 있다고 느낄 지경에 이르렀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소. 만약 그것이 단지 아서 경의 연설술 때문이었다면, 그는 그토록 많은 열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 분명해.”

“사실 그는 고(故) 그윈의 친구였소.” 언더힐이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최근에 큰 법률가들의 만찬이 있던 뒤, 그 둘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있더군. 아마도 그 때문이겠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그런 경우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기반해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그쇼가 말했다. “아서 트레이버스 경은 감정에만 휩쓸려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감정이 극에 달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적인 입지를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타입이죠. 그는 야망을 충족시킨 후에도 여전히 야망을 품는, 그런 종류의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그보다 더 애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다소 격앙된 설교에서 잘못된 교훈을 읽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가 어떻게든 유

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음모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 운동의 선두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는 음을 유죄로 만들 만한 매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는 곧, 사실 관계가 그를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피고인에게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그때 그는 군중 속에 섞인, 무언가 사소한 존재의 기미를 의식하게 되었다.

“브라운 신부, 우리 사법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음,” 신부는 대충 대답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가발을 쓴 남자들이 제각각 달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공소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위엄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가 잠시 가발을 벗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그는 정수리가 벗겨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의 위엄을 막아주진 못할 걸세,” 바그쇼가 대답했다. “검사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방어 근거로 삼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는 않군요.” 브라운 신부가 너그러이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생각 중이었어요. 만약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전혀 들

어본 적 없는 아주 먼 곳의 사람들에게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 봅시다.

‘내 나라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생사여탈의 중요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머리에 말총으로 만든 가발을 쓰고, 뒤로는 꼬리를 달며, 옆으로는 회색 코르크 마개처럼 곱슬머리를 한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노부인처럼 차려입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좀 기이한 성향의 사람일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는 전혀 기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그들이 영국 변호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호사는 시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시인들에게는 기이해 보이지 않을 시인들의 기이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옴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 시간 동안 할 일 없이 거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에나! 시인이라면 시를 써야 할 때라면, 같은 뒷마당에서 열 시간 동안 거닐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텐데 말이에요. 옴의 변호사 역시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옴에게 가장 당연한 질문을 해보려니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무슨 시를 짓고 있었는지 말이지.” 브라운 신부가 다소 성급하게 말했다. “어느 행에서 막혔는지, 어떤 수식어를 찾고 있었는지, 어떤 고

조점을 향해 나아가려 했는지. 만약 법정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문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에게 진지한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야. 공장주에게 공장의 상태를 묻듯, 시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대해 묻지 않은 게 이상할 뿐이야.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다 좋은 말입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왜 그는 숨었을까요? 왜 그 비틀비틀한 작은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 멈췄을까요? 그 계단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왜요?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길이었으니까요!” 브라운 신부가 격렬하게 외쳤다. “공중에서 끝나는 그 막다른 골목에 눈이 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처럼 화가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할 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화가에게 사물은 각기 딱 맞는 한 가지 관점이나 각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무나 소, 구름도 특정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세 글자가 오직 한 순서로 배열될 때만 하나의 단어가 되듯이요.

그 불빛 나는 정원의 풍경은 그 미완성 다리 위에서 본 것이 가장 완벽했습니다. 마치 사차원처럼 유일한 경치였죠. 마치 동화 속의 원근법처럼, 하늘을 내려다보며 별들이 나무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본 것 같

았습니다. 그 빛나는 연못은 행복한 동화 속 달이 들판에 평평하게 떨어진 듯했죠. 그는 그 풍경을 영원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 길이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그 길이 자신을 세상 끝에 있는 나라로 이끌어 주었다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를 증인석에 세웠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동등한 배심원을 갖는다고들 합니다. 왜 시인들로 구성된 배심단을 만들지 않는 것인가요?”

“당신은 시인이라도 된 듯 말하네요.” 바그쇼가 말했다.

“다행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신께 감사하십시오. 사제는 시인보다 더 자비로워야 한다는 사실ைய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만약 당신이 그 시인이 당신들을 향해 품고 있는, 얼마나 압도적이고 잔인한 경멸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테니까요.”

“당신은 예술가적 기질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그쇼가 잠시 멈추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똑같이 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누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브라운 신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그 하인 그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소? 그가 한 말이 좀 이상하더군.”

“아, 그렇군요.” 바그쇼가 재빨리 말했다. “당신은 결국 그린의 소행이라고 보는군요.”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묻고자 했던 건, 그 남자의 이상한 이야기 때문에 당신이 무언가 생각했느냐는 거였소. 그는 잠시 나갔다 온 것뿐이었지. 술 한 잔을 하러든, 누군가를 만나러든, 아니면 그냥 별일 아니었든 간에. 그런데 그는 정원 문을 나와서 정원을 가로질러 돌아왔소. 다시 말해, 나가는 문은 열어둔 채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이오. 왜 그랬을까? 다른 누군가가 이미 그 문을 통해 나갔기 때문이오.”

“살인자가...” 형사가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압니다.” 브라운 신부가 고요하게 대답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 현관 등불 빛에 비친 그의 형상을 거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체격도, 옷차림도, 심지어 얼굴까지!”

“이게 대체 뭐야?”

“그는 험프리 그윈 경처럼 보였소.” 사제가 말했다.

“도대체 무슨 뜻이오?” 바그쇼가 소리쳤다. “그윈은 연못에 머리를 처박고 누워 있었소.”

"아,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잠시 멈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시 당신의 그 가설로 돌아가 봅시다. 아주 훌륭한 이론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살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현관에서 판사와 마주쳤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며 거울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정원으로 후퇴했고, 그곳에서 총에 맞았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왠지 자연스럽지 않게 들립니다. 판사가 복도를 따라 후퇴했다면, 끝에는 두 개의 출구가 있었습니니다. 하나는 정원으로, 다른 하나는 집 안으로요. 만약 후퇴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요? 그의 총이 그곳에 있었고, 전화기도 있었으며, 그가 아는 한 하인도 그곳에 있었을 테니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도 그 방향에 있었습니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는 정원 문을 열고 혼자 외롭고 황량한 집 뒤쪽으로 나갔을까요?”

“하지만 그가 집을 나갔다는 건 확실합니다.” 동료의 의아한 듯 대답했다. “정원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니까요.”

“그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 안에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날 저녁을 말하는 거죠. 그는 바로 그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니다. 처음 어둠 속에서, 정원을 가로질러 붉고 황금빛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

다. 그 불빛은 오두막에서 피워 올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오두막 안에 없었다면, 그 불은 전혀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집과 전화기로 건너가려다, 연못 옆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분과 야자수, 그리고 깨진 거울은 어떻게 된 거죠?” 백쇼가 외쳤다. “당신이 그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복도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신부는 눈을 깜빡이며 고통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그가 중얼거렸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지. 내가 한 말은 복도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것은 몸싸움이 아니었어.”

“그럼 거울은 누가 깨뜨렸소?” 배그쇼가 짧게 물었다.

“거울이 깨진 것은 총알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범인이 쏜 총알이었습니다. 떨어지던 유리 파편들이 충분히 컸고, 그 충격으로 화분과 야자수가 넘어졌을 겁니다.”

“그럼 그가 쏜 대상이 구인네 말고 누가 될 수 있겠소?” 형사가 물었다.

“꽤나 미묘한 형이상학의 문제죠.” 그의 성직자 동료는 거의 꿈결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물론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가 구인네를 향해 총을 쏘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인네는 그 자리에 없었죠. 총을 맞아야 할 대상은 없었습니다. 홀에는 범죄자 혼자만 있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복도 끝에 깨지기 전의 거울을 상상해 보시오. 그리고 그 위를 감싸듯 드리운 키 큰 야자수들요. 은은한 빛이 단색조의 벽을 비추고 있을 때, 거울은 마치 복도의 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집안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 테고, 만약 그 반영이 집주인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그는 바로 집주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바그쇼가 외쳤다. "제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무죄여야 하는 이유를요.”

그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을 노년의 구인네라고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오름은 자신의 수북한 금발이 대머리일 리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플러드는 자신의 붉은 머리를, 그린은 자신의 붉은 조끼를 보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키가 작고 옷차림이 초라합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이 저녁용 정장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노신사라고 생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꼭 닮은, 키 크고 마른 또 다른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범인의 생김새를 안다고 말했던 그 뜻입니다.

"그걸로 뭘 추리하시려는 겁니까?" 백쇼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신부는 평소의 온화한 어조와는 사뭇 다른, 날카롭고 또렷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하려는 건," 그가 말했다. "당신이 말한 바로 그겁니다.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의 핵심은 기소 측 변호인이 대머리라는 사실에 두고 싶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세상에나!" 탐정이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브라운 신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태평무사한 태도로.

"이 사건을 추적하며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경찰들은 시인과 하인, 그리고 아일랜드인의 동태에 유난히 큰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정작 잊혀진 듯 보이는 인물은 바로 그 죽은 남자 자신입니다.

그의 하인은 주인이 돌아온 사실을 알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주인은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큰 만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병석에 누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으니 병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 지도자 중 한 명과 다툼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적(敵)은 바로 그 법조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찾아봐야 마땅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방갈로에 혼자 틀어박혔습니다. 그곳에는 반역 행위에 관한 그의 사적 문서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서들 속에 자신을 향한 불리한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법조계 지도자는, 자신의 고발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저녁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였지만, 주머니에는 권총을 챙기고 있었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울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동안 공허한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거울은 묘한 물건이다. 수백 가지의 다른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모두 생생하게 비쳤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사진틀과도 같다. 하지만 회색 복도 끝, 초록 야자나무 아래에 걸려 있던 그 유리는 특히 기이했다. 마치 마법의 거울인 양, 다른 거울들과는 사뭇 다른 운명을 가진 듯했다. 거울에 비친 상이 어딘가 그 모습을 유지한 채, 황혼의 집 공기에 유령처럼 떠 있는 것 같았다. 혹은 적어도 추론의 뼈대처럼, 추상적인

도표처럼 말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 공허함 속에서 서 아서 트래버스 경이 보았던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과 관련해 당신이 한 말이 하나 매우 정확했다.

"그것 참 반가운 말이군." 바그쇼가 굳은 표정 속에서도 너그러움을 잃지 않고 말했다. "그게 뭐였소?"

“선생님은 아서 경이 오름을 처형하게 하려는 데에는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제가 말했다.

일주일 뒤, 신부는 경찰 형사와 다시 만났다. 형사는 당국이 새로운 수사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수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트래버스 경,” 브라운 신부가 입을 열었다.

“서 아서 트래버스 경이 죽었습니다.” 백쇼가 짧게 말했다.

“아!” 다른 남자가 목소리에 떨림을 섞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가……”

“네,” 배그쇼가 말했다. “그는 같은 남자를 다시 쫓지. 하지만 거울 속이 아니었어.”

II

두 수염을 가진 남자

이 이야기는 브라운 신부가 저녁 식사 후 클럽에서 저명한 범죄학자 크레이크 교수에게 들려준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가 살인과 절도를 즐기는 무해한 취미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의 버전은 자신의 역할을 다소 축소해서 묘사했기에, 여기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풀어낸다. 이 사건은 한 바탕 장난스러운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교수님은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신부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좋은 신사여,” 교수는 항의하는 어조로 말했다. “범죄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신은 못 하겠군요.”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성인전기(hagiology)를 한 편의 과학으로 보시나요?”

“그게 뭐야?” 전문가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마녀 연구도 아니고, 마녀를 태우는 일과도 관계없습니다.” 사제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성스러운 것들, 곧 성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보세요, 중세는 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만들려 했으니깐요. 하지만 우리 시대는 온화하고 계몽된 척하며, 오직 나쁜 사람들만 연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성도가 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살인자는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레이크가 말했다. “목록은 길고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살인을 합리적 살인과 비합리적 살인으로 나눕니다. 그중 후자부터 살펴보죠. 수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 살인에는 광기에서 비롯된 살해, 혹은 추상적인 도살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비합리적인 혐오감도 있지만, 이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제 진정한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합리적이라기보다 낭만적이고 과거 지향적입니다. 순수한 복수는 희망 없는 복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은 자신이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경쟁자를 죽이거나, 반란군은 정복이 끝난 뒤에 독재자를 암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자주, 이러한 행위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희망적인 살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용적 범죄’라 부르는 두 번째 부류의 더 큰 섹션에 속합니다.

이 실용적 범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남자는 다른 남자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즉 절도나 상속을 통해, 혹은 다른 남자의 행동을 막기 위해 살인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자나 정치적 적수를 죽이는 경우입니다.

또는 좀 더 수동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때도 그러합니다. 다른 일들의 방해가 되는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류가 충분히 고찰되었으며, 적절히 적용될 경우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루하게 들릴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루하게 하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조금 정신이 빠져 보이는 듯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한 번 알고 지내던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당신의 살인자 박물관에서 어디에 끼워 맞춰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다.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다. 거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에게 복수할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에게 필요할 만한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다. 피해자가 살인자가 막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살인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해하거나,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여자는 끼어 있지 않았습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거의 모르는 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우 기이해서, 아마도 인간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평소처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는 꽤 정중한 곳에서 시작된다. 부유하지만 도덕적인 교외 가족 뱅크스가의 아침 식탁 위였다. 평소라면 신문을 둘러싼 평범한 수

다로 가득 차야 할 자리였으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집 근처에서 일어난 미스터리를 두고 열띤 논의가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외 사람들은 종종 이웃에 대한 수다를 떠는 것으로 비난받곤 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웃의 사생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웃의 이야기를 진위 가리지 않고 떠들지만, 현대 교외의 특유한 문화는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믿는다. 교황의 사악함이라든가, 식인종 섬의 왕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라도 말이다. 그런 거창한 주제들에 마음이 흠어져 있을 때, 그들은 바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두 가지 흥미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의 교외 지역 이름이, 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신문에 실린 것이다.

그 이름을 인쇄된 글자로 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 듯했다. 마치 그동안 그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보이지 않던 존재였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식인종 섬의 왕만큼이나 실감나게 느껴졌다.

신문에는 한때 유명했던 범죄자 마이클 문샤인의 근황이 실렸다. 그는 수많은 도둑질 혐의로 긴 형기를 마치고 최근 석방되었다. 마이클 문샤인이라는 이름 외에도 그가 썼던 수많은 가명들은 모두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다.

그의 현재 거처는 비밀에 부쳐졌지만, 그가 바로 그 교외 지역, 편의상 ‘치섬’이라 부르는 곳에 정착했을 것으로 여겨졌다. 같은 신문에 그의 유명하고 대담했던 일탈과 탈출담 요약도 실렸다.

이런 식의 언론은 이런 종류의 대중을 위해 존재하기 마련이다. 독자의 기억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농부는 로빈 후드나 로브 로이 같은 무법자를 수세기 동안 기억한다. 하지만 사무직 사원은 2년 전 트램과 지하철에서 논했던 범죄자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마이클 문샤인은 로브 로이나 로빈 후드 특유의 영웅적인 막당미를 보여줬다. 그는 단지 뉴스거리가 아니라 전설이 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엔 너무나 유능한 강도였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경찰을 핀처럼 가볍게 쓰러뜨리고 사람들을 기절시켜 묶고 입마개를 채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결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 사실에 공포나 신비로움의 마지막 한 방울을 더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가 그들을 죽였더라면 더 인간적이었을 거라고 느꼈다.

가족 중 누구보다 박식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구식인 사람은 가장인 사이먼 뱅크스였다. 그는 건장한 체구에 짧은 회색 수염을 기르고, 이마에는 주름이 가로지른 남자였다. 그는 일화와 추억을 들려주는 데 능

했으며, 런던 사람들이 스프링힐드 잭을 기다리듯 마이크 문샤인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밤새 잠 못 이뤘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가 있었다. 날씬하고 다크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가문은 남편의 집안보다 훨씬 부유했으나, 교육 수준은 다소 낮았다. 그 때문에 그녀에게는 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우아함이 서려 있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위층에 매우 비싼 에메랄드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는 도둑들에 대한 논의에서 그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권위가 되었다.

딸 오페일도 있었다. 역시 날씬하고 다크했으며, 심령술사라고 여겨졌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열렬한 영적 존재는 대가족의 일원으로 현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녀의 동생 존은 거구의 청년이었다. 그는 자매의 영적 발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특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외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으로만 구별될 뿐이었다. 그는 늘 한 대를 팔고 다른 한 대를 사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제학자라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는 손상되거나 평판이 떨어진 차를 팔면 훨씬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었다.

또 다른 동생 필립은 어두운 곱슬머리를 가진 젊은이였다. 그는 복장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는 증권사 직원의 당연한 의무일 테지만, 증권사 본인은 이를 전부는 아니라고 암시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이 가족의 풍경에 친구 대니얼 데바인이 함께 있었다. 그 역시 다크한 외모에 정교하게 차려입었지만, 수염을 기른 스타일이 다소 이국적이었다.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는 다소 위협적으로 비쳤다.

신문 기사라는 화제를 꺼낸 것은 데바인이었다. 작은 가족 간 다툼이 시작되려던 순간, 그는 적재적소에 주의를 돌릴 도구를 은근히 끼워 넣었다. 심령술사가 창밖 어둠에 떠 있는 창백한 얼굴들의 환시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존 뱅크스는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 초월적 계시를 묵살하려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에 실린, 그들의 새롭고 어찌면 위협적일지 모를 이웃에 대한 기사는 곧 두 논쟁가를 침묵시켰다.

“정말 끔찍하다.” 뱅크스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저 사람은 아마 완전히 새로 온 사람일 거야. 하지만 대체 누구일까?”

“특히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치우드 하우스의 리오폴드 풀먼 경 정도가 있죠.” 남편이 말했다.

“내 사랑,” 여인이 말했다. “너 너무 이상해, 리오폴드 경!”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지금 누군가 그의 비서를 거론한다면, 수염을 기른 그 남자요. 그가 그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저는 항상 필립이 그 일을 맡았어야 했다고 말해 왔어요.”

“아니요.” 필립이 나직하게 말했다. 대화에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제가 아는 한, 스미스 농장에 머물고 있는 카버라는 남자가 유일한 인물입니다.” 데바인이 말했다. “그는 매우 조용한 삶을 살지만, 대화해 보면 꽤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존 씨가 그와 어떤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자동차에 대해선 좀 안다고 하더군요.” 그 자동차광 존이 인정하듯 말했다. “내 새 차를 타 보면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데바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존의 새 차로 대접받으리라 위협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자신들 모두였기 때문이다. 그러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덧붙였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선 대략 그런 생각입니다. 그는 운전이나 여행, 그리고 세상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집에 머물러 스미스의 별통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는 자신은 별 기르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스미스와 함께 지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치고는 아주 조용한 취미죠. 하지만 존의 차가 그를 좀 깨워줄 거라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데바인은 그날 저녁,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며 어두운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생각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든 우리에게 흥미로울 것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즉시 스미스 씨의 집으로 가서 카버 씨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그곳으로 향하는 길, 비치우드 하우스의 비서 바나드를 마주쳤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뱅크스 부인이 자신의 사적인 원한으로 꼽

을 만큼 큰 구레나룻을 기른 그였다. 데바인과 바나드의 인연은 얇았고, 대화도 짧고 가볍게 끝났다. 하지만 데바인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다른 고민의 거름을 찾은 듯했다.

“잠깐만요.”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실례되지만 여쭙봐도 될까요? 풀먼 부인이 저택에 아주 유명한 보석을 몇 점 갖고 계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전문 도둑이 아니지만, 최근 근처에 그런 놈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쪽을 잘 살펴봐 주도록 하겠소.” 비서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 나도 이미 그녀에게 그 보석들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소. 그녀가 그 말을 잘 들었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을 나누던 중, 바로 뒤에서 시끄러운 모터 경적 소리가 들렸다. 존 뱅크스가 그 옆에 차를 세웠다. 그는 자신의 운전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데바인의 목적지를 듣자, 그는 그 길을 자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어조는 사람들을 태워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여정은 차에 대한 끊임없는 찬사로 채워졌다. 특히 날씨가 변할 때의 적응력에 대한 것이었다.

“입을 딱 닫아두면 상자처럼 단단하지만, 열기야말로 입 벌리는 것만큼이나 쉽다.”

데바인의 입은 그 순간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뱅크스의 독백 소리를 들으며 스미스의 농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외문을 지나쳤다. 데바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가 찾고 있던 남자를 곧바로 찾아냈다.

그 남자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폭신하고 흐물거리는 큰 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길고 턱이 큼직한 사내였다. 넓은 모자 챙이 그의 얼굴 윗부분을 가렸고,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가면을 쓴 듯했다.

배경에는 햇살이 가득한 벌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옆을 노년의 남자, 아마도 스미스 씨일 터인 그가 거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검은 성직자 복장을 입은, 평범해 보이는 작은 키의 동행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나 말인데,” 참지 못했던 존이 끼어들었다. 데바인이 정중한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였다. “그녀를 데려왔어. 한번 태워주려고 말이야. 그녀가 ‘썬더볼트’보다 낫지 않은지 직접 확인해 봐.”

카버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의도한 것은 관대한 미소였겠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차갑고 딱딱해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은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 없겠군요.”

“작은 성실한 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데바인이 똑같이 신비로운 어조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밤새도록 그 벌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 벌들은 정말로 매우 바쁘겠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래.” 카버가 쿨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물었다.

“일단 날이 좋으면 건초를 말려야 한다는 말이 있죠.” 데바인이 말했다. “아마도 달빛이 비칠 때 꿀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넓은 챙의 모자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남자의 눈 흰 자위가 움직이며 빛난 것이다.

“사실 이 일에는 허울 좋은 말도 꽤 섞여 있을지 모르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꿀벌은 꿀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은 경고해 뒀ся겠군. 쏘기도 하니까.”

“차에 함께 타시겠습니까?” 존이 고집스럽게 물었다. 그는 계속 시선을 떼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카버는 데바인에게 답할 때 풍기던 불길한 기색을 잠시 벗어던졌을 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만약 동료가 필요하시다면, 제 친구들에게 한 번 달려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제 친구인 스미스 씨, 브라운 신부입니다.”

“당연하지.” 뱅크스가 외쳤다. “모두 다 오게.”

“정말 감사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사양해야겠네요. 곧 몇 분 뒤에 축복 예식에 가야 해서요.”

“그럼 스미스 씨가 맞군요,” 카버가 거의 조바심 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스미스 씨가 차를 타고 싶어 죽었을 거예요.”

스미스는 입가에 넓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엇도 간절히 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매우 성실해 보이는 가발을 쓴, 활동적인 노인이었다. 그 가발은 모자만큼이나 자연스럽지 않았다. 가발의 누런 기조는 그의 창백한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정한 고집을 부리며 대답했다.

“저도 십 년 전, 그 어떤 기구 같은 걸 타고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홀름게이트에 사는 누이 댁에서 그걸 타고 왔는데, 그 이후로 자동차로는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지 못했죠.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십 년 전이라니!” 존 뱅크스는 비웃듯 말했다. “그때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탔잖소. 자동차가 십 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오?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제 작은 버스에서는 바퀴가 굴러가는 줄도 모릅니다. 마치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죠.”

“스미스 씨가 꼭 날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 카버가 재촉했다. “그건 그의 평생 꿈이니까요. 자, 스미스 씨, 홀름게이트로 가셔서 누이를 만나세요. 누이를 찾아뵙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만약 원하시면 밤을 새우며 묵으셔도 좋습니다.”

“전 보통 걸어서 가요. 그러다 보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죠.” 노년 스미스가 말했다. “오늘따라 이 분께는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형님이 차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 자매분이 얼마나 신나실지 생각해보세요!” 카버가 외쳤다. “정말 가셔야 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뱅크스가 경쾌한 자비심으로 동의했다. “너도 이기적으로 굴어서는 안 돼. 너한테 해가 될 것도 없어. 너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지, 그렇지?”

“글쎄,” 스미스 씨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니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

두 사람은 떠났다. 주변에서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은 마치 군중이 환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데바인과 신부는 단지 예의 차원에서만 그 행위에 동참했을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작별의 분위기가 결국은 호스트의 주된 제스처에서 비롯되었다고 느꼈다. 그 작은 디테일이, 그의 인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묘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갑자기 활기찬 어조로 그들에게 사과하듯 말했다. “자, 이제야!”

그는 특이한 정도로 과한 친근감으로 그 말을 했다. 그것은 결코 환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극단적인 친절한 태도는 일종의 쫓아내는 행동과 같았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데바인이 말했다. “바쁜 벌을 방해해선 안 되죠. 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벌과 말벌을 구분하기도 힘들습니다.”

"말벌도 길러본 적이 있소." 신비로운 카버 씨가 대답했다. 손님들이 거리로 몇 걸음 떨어진 뒤, 데바인은 동료에게 다소 충동적으로 말했다. "그 광경, 좀 이상하지 않소? 당신 생각은 어때?"

"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바인은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크고 회색 빛 눈빛 속에 어떤 것이 스치자, 그의 충동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했다.

"카버가 오늘 밤 이 집을 혼자 차지하려 무척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도 그런 의심을 품어본 적 있나요?"

"의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것과 같은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가족 저택 주변 정원의 마지막 노을이 어둠으로 물들 때였다. 오팔 뱅크스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정신없이 어둠고 텅 빈 방들을 지나가고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졌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 집은 부르주아적 사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묘한 우울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것은 고대라기보다는 오래된 것들 특유의, 즉각적인 슬픔이었다. 그곳에는 역사적인 관습보다는 퇴색한 유행이 가득했고, 이미 죽은 것으로 인정될 만큼 최근의 질서와 장식이 채워져 있었다.

여기저기 빅토리아 초기의 유색 유리가 황혼을 물들였고, 높은 천장은 긴 방들을 좁아 보이게 했다. 그녀가 걷고 있던 긴 방 끝에는, 그 시대의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창문이 하나 있었다.

오팔은 방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멈춰 섰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얼굴을 때린 듯했다.

문턱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안쪽 문이 닫혀 있어 소리는 둔탁하게 울렸다. 집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층에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현관문으로 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문밖에는 뚱뚱하고 누렇게 바랜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로마 가톨릭 사제 브라운 신부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를 그리 깊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신부는 그녀의 영적 관념을 조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지만 그는 그 관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이 억눌렀다. 그가 그녀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공감했지만,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그의 용건을 듣지도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오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전 유령을 봤어요.”

“그걸 두고 걱정할 필요는 없소.” 그가 말했다. “자주 있는 일이니
까. 유명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대부분은 진짜 유명이 아니요, 설령 몇
몇이 진짜 유명이라 해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테니.”

“특정 유명이 나왔소?”

“아니요.” 그녀는 모호한 안도감을 느끼며 시인했다. “그것은 그 사
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끔찍한 부패의 분위기, 빛나는
폐허 같은 것이 문제였죠.”

“그건 얼굴이었습니다. 창문에 있는 얼굴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의 초상화처럼 보였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지.” 신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때로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내가 가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

손님이 함께 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적었던 이들은 전등을 켜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뱅크스 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브라운 신부
는 좀 더 정중한 태도를 취하며, 자신의 침입을 사과했다.

“뱅크스 부인, 집안 사정에 간섭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가 말
했다. “하지만 이 일과 당신께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풀먼네 집에서 있었는데, 전화를 받아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께 중요한 정보를 전할 사람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끼게 된 이유는, 비치우드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경보를 울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여인이 되물었다.

“위쪽 비치우드 하우스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강도 사건이었고, 더 무서운 일은 풀먼 부인의 보석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운한 비서 바나드 씨가 정원에서 발견되었는데, 도주하는 도둑에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남자,” 집주인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는 그가……”

그녀는 신부의 무겁고도 날카로운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이 막혔다. 왜 그랬는지,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다.

“저는 경찰과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조사만으로도 발자국과 지문, 그리고 유명한 범죄자를 지목할 만한 단서들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때쯤이었다. 존 뱅크스가 차를 몰고 돌아왔다. 그는 잠시 동안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했다. 올드 스미스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승객이었나 보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실패했군.” 그는 시끄럽게 불평하며 말했다. “타이어가 펑크 난 줄 알고 내려다보는 사이, 저 녀석이 도망쳐 버렸지. 이런 시골 놈들은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어.”

그러나 브라운 신부와 그의 소식에 모여든 사람들의 흥분 속에서는 그의 불만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도착할 것입니다.” 신부는 묵중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책임을 그분께 넘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대면한 순간, 저는 중대한 일에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치우드 하우스의 하녀가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을 봤다고 제게 말했거든요.”

“우리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봤어요.” 오팔이 말했다.

“오, 너는 항상 얼굴들을 봐.” 오빠 존이 거칠게 말했다.

“그것이 얼굴이라 해도 사실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브라운 신부는 평정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본 그 얼굴은…….”

현관문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1분 뒤, 방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데바인은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은 사내였다. 길고 좀처럼 생기가 없어 보이는 얼굴 아래에는 위압적인 턱이 끝을 맺고 있었다. 이마는 다소 벗겨져 있었고, 눈은 선명하고 푸르렀다. 데바인은 그 눈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넓은 짚모자에 가려져 있던 상태였다.

“제발,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캐버라는 분명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디바인의 어지러운 머리에는, 그 정중함이 권총으로 일행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도들의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보였다.

“앉으시오, 디바인 씨.” 캐버가 말했다. “뱅크스 부인의 허락을 받으면, 나도 따라 왔겠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아마 당신은 나를 저명하고 잘나가는 도둑놈으로 의심했던 모양이요.”

"그렇습니다." 데바인이 차갑게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캐버가 말했다. “말벌과 벌을 구분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좀 더 유용하면서도 동시에 더 성가신 곤충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문샤인이라는 자칭 범죄자의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보석 절도였습니다. 방금 베치우드 하우스에서 보석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모든 정황상 그의 소행임이 분명합니다. 지문은 물론 일치하고, 더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아마도 다른 경우들에서도 그랬듯이, 그는 붉은 수염과 커다란 뿔테 안경이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펔 뱅크스가 격렬하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게 제가 본 얼굴이죠. 커다란 고글을 쓰고, 유다처럼 붉고 텅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비치우드의 하녀가 본 유령이기도 하지.” 카버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와 소포를 내려놓더니, 신중하게 그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남자, 문샤인의 범죄 계획을 조사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봉에 관심을 갖게 됐고, 스미스 씨 댁에 머물렀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데바인이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그 착한 노인을……”

“자, 데바인 씨.” 카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벌통이 제게 숨어 있을 곳일 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그에게도 숨어 있을 곳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데바인은 어둡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는 다시 자신의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스미스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사물을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뱅크스 씨가 그에게 유람을 시켜준다는 친절을 빌려 썼죠. 그의 집을 수색하던 중,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순진한 시골 노인의 소유였는데, 그 노인은 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그 중 하나입니다.”

그는 펼친 종이에서 긴 털 달린 물건을 들어 올렸다. 거의 진홍빛을 띤 그 물건은 연극에서 쓰는 가짜 수염 같은 것이었다.

그 옆에는 묵직한 빨테 안경 한 쌍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이 집과 관련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카버가 이어 말했다. “그것이 오늘 밤 이 집에 침입한 제 변명입니다.”

그는 메모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근처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과 추정 가치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메모에, 폴먼 부인의 티아라 기록 바로 다음에 뱅크스 부인의 에메랄드 목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자기 집에 침입한 자들을 우월한 눈초리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벅크스 부인이, 갑자기 경각심을 갖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열 살은 더 먹은 듯해졌고,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성미 급한 존이 코끼리가 뿔피리를 불 듯 온몸을 쭉 펴며 일어섰다.

“티아라가 이미 사라졌다고?” 그가 포효했다. “그리고 목걸이까지! 나는 그 목걸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소!”

“나쁘지 않은 생각일세.” 카버가 젊은이를 따라 방을 뛰쳐나가는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 온 이후부터는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었지. 하지만 그 암호로 적힌 메모를 해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네. 내가 거의 다 끝냈을 때, 그 저택에서 브라운 신부의 전화가 걸려왔어. 나는 그에게 소식을 전하러 먼저 여기로 들르라고 했고, 나는 그 뒤를 따르기로 했지. 그래서----”

그의 말은 비명 한 소리에 끊겨 버렸다. 오팔이 벌떡 일어나, 둥근 창문을 가리키며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다시 나왔어요!” 그녀가 외쳤다.

잠시 동안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 여자에게서 거짓말과 히스테리라는, 그녀에게 자주 씌워지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밖의 짙은 청회색 어둠 속에서 얼굴이 밀려나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혹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누른 자국 때문인지, 색이 빠진 듯했

다. 눈은 유난히 크고 빛났다. 눈 주위가 고리처럼 둘러져 있어, 그 얼굴은 마치 어두운 푸른 바다에서 나온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였다. 배의 창문에 코를 대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나 아가미는 구리빛 붉은색이었다. 사실 그것은 사나운 붉은 구레나룻과 붉은 수염의 윗부분이었다.

다음 순간, 그것은 사라져 버렸다.

데바인이 창문 쪽으로 한 발짝 내딛으려던 순간, 집 전체를 뒤흔들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도 커서 단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 비명은 데바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목걸이가 사라졌다!” 존 뱅크스가 문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추격하는 사냥개처럼 곧장 자취를 감추었다.

“방금 도둑이 창문 쪽에 있었어요!” 탐정이 외쳤다. 그는 이미 쏜살같이 문쪽으로 달려갔다. 앞서가던 존도 이미 정원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조심하세요.” 여인이 비명처럼 외쳤다. “저들은 권총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 어둠에 잠긴 정원에서 담대한 존의 울림이 깊은 목소리로 퍼져나왔다.

데바인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지나쳐 뛰어갈 때, 그가 도전적으로 권총을 휘두르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존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방어할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생각이 머무르기도 전에, 두 발의 총성이 터졌다. 마치 서로를 응답하듯 이어진 총성은 고요한 교외의 정원에 야생의 새떼를 날려 보냈다. 그러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존이 죽었나요?” 오펠이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브라운 신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답한 이는 바로 그였다.

“아니요,” 그가 말했다. “그건 다른 쪽이에요.”

캐버가 그에게 다가섰다. 잠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키 큰 자와 작은 자의 그림자가, 불규칙하고 소란스러운 달빛이 비추던 시야를 가렸다.

그들이 옆으로 물러나자, 다른 이들은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약간 비틀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투쟁을 하던 듯한 자세였다. 가짜 붉은 수염은 하늘을 향해서 치켜 올라가 있었다. 마치 하늘을 비웃는 듯했다. 달빛은 ‘문샤인’이라 불렸던 남자의 거대한 가짜 안경에 비쳤다.

“정말 아이러니한 최후다.” 카버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토록 모험을 거듭한 끝에, 교외의 정원에서 증권 중개인에게 거의 우연히 총격을 받아 죽다니.”

주식 중개인 자신은 물론 자신의 승리를 더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비록 그 내심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미안합니다. 그자가 저를 향해 총을 쏘았거든요.”

“당연히 검시 심문이 열려야겠죠.” 카버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고, 총알은 한 발만 발사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는 당신의 총을 맞고 난 뒤로는 결코 쏘지 못했을 겁니다.”

“캐버 씨, 당신은 정말 완벽하고도 손재주 넘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내셨군요. 저는 당신의 직업적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벌과 수염, 안경, 암호,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나 빠르게 연결해 놓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어 언제나 기분이 좋소.” 캐버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여전히 탁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긴장한 듯 겸손한 어조를 더해 덧붙였다.

“당신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 말에 단 한 마디도 믿지 않습니다.”

데바인은 갑자기 관심을 드러내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은 그가 도둑 문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가 도둑인 건 알겠소. 하지만 그는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소.”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가 여기로, 혹은 큰 집으로 보석 도난이나 그걸 들고 도망치다 총을 맞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일세. 보석은 어디 있소?”

“보통 그런 경우라면 그들이 숨겨두는 곳일 겁니다.” 카버가 말했다. “그가 직접 숨겼거나, 동업자에게 넘겼겠죠.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제 부하들이 정원을 수색 중이고, 인근 지역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벅크스 부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문샤인 씨가 창밖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공범자가 목걸이를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문샤인이 창밖을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브라운 신부가 조용히 물었다. “그가 창문을 통해 안을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이야.”

“어때, 어떻게 생각해?” 환하게 웃는 존이 물었다.

“제 생각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결코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단 말인가?" 카버가 쏘아붙였다. "공중에 뜬 소리로 떠들어도 소용없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다 목격했다."

"저도 제 눈앞에서 믿지 않던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무대 위든 아래든 말입니다."

"브라운 신부님." 데바인은 어딘지 모르게 존경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눈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이어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이들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큰 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웃들과 친구가 되려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간섭하지 않지만, 우리 이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죽은 남자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해 신부이자 친구였으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나는 그가 오늘 그 정원을 떠날 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금빛 꿀벌들이 가득한 유리 벌통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성실했다고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는 회개라는 것에서 다른 이들이 덕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특별한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의 고해 신부라고 말했지만, 실은 위로를 구하러 내가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원에서 죽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옛날에 전해진 이상한 말들이 내 귀에서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천국으로 곧장 갔다면, 바로 그 일 테니까요.”

“참을 수가 없군.” 존 벅크스가 안절부절못하며 말했다. “어쨌든 그는 이미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였어.”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런 확신을 이 세상에서 들은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둑뿐이었다.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후의 침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드디어 데바인이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대체, 그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하시려구요?”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상한 점이 하나들 눈에 띄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지금으로선 그 남자의 무죄를 입증할 단서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 남자 자신뿐이지. 하지만 내가 옳다는 건 확실해.”

그는 한숨을 쉬며 큼직한 검은 모자를 집어 들었다. 모자를 벗자 그는 묘하게도 새로운 표정으로 탁자를 응시했다. 둥글고 곧은 머리카락의 그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마치 마술사의 모자에서 이상한 동물들이 튀어나온 듯한 기이한 풍광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탁자를 바라보았을 뿐, 거기에는 탐정의 서류들과 형편없이 낡은 소품 수염과 안경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여, 자비하소서.” 브라운 신부가 중얼거렸다. “그가 수염과 안경을 쓴 채, 밖에서 죽어 누워 있군요.”

그가 갑자기 데바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알고 싶다면 따라갈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왜 두 개의 수염을 달고 있었습니까?”

그는 품위도 없이 부리나케 방을 나섰다. 하지만 데바인은 이제 호기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그를 따라 앞마당까지 쫓아갔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됩니다. 내일 다시 들르세요. 그때는 모든 일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제게 답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 그 소리 들리셨나요?”

“자동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났군요,” 데바인이 말했다.

“존 뱅크스 씨의 자동차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제 생각엔 그 차가 꽤 빠를 겁니다.”

“그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데바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이면 저것은 제법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날아갈 걸세.”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다른 한 사람이 쏘아붙였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내가 아는 바를 어렴풋이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존 뱅크스였습니다. 존 뱅크스는 이미 떠났고, 에메랄드를 비롯해 모든 보석들도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데바인이 발견했다. 브라운 신부가 벌통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슬픈 기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저는 벌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말했다. “알다시피, 벌들에게 꼭 말을 해야 하거든요. ‘황금 지분을 쌓는 노래하는 석공들.’ 이 구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는 벌들을 잘 돌봐주길 원하더군요.”

“전체 군중이 호기심으로 떠들썩할 때, 인간이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이 뱅크스가 보석과 함께

사라졌다고 말한 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알 수 있는 게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별통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러곤 말했다.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걸림돌이 있었어요. 비치우드 하우스에서 바나드 씨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아직 거물 범죄자였을 때만 해도 그는 살인 없이 성공하는 것을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자처럼 변한 그가, 죄인 시절엔 경멸하던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려 하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나머지 일들도 끝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늦게나마 단서를 얻었습니다. 수염과 고글을 보고, 그 도둑이 다른 수염과 다른 고글로 들어왔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똑같은 것을 여벌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멀쩡한 옛 안경도 옛 수염도 둘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그가 나가면서 그걸 벗고 새 걸 사야 했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뱅크스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도둑질을 하려 한다면, 장비를 주머니에 쉽게 넣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수염은 나무에 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 어디서 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그걸 더 깊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이성온은 제가 이미 직관으로 알고 있던 진실을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뱅크스와 함께 나갔다고 해서 그 복장을 갖출 의도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 복장을 입은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유를 부리며 그 복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결국 그에게 입힌 것이죠.”

“그에게 입히라고요!” 데바인이 되물었다. “도대체 어떻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다른 창문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 젊은 아가씨가 유령을 봤던 창문으로요.”

“유령!” 다른 한 사람이 다시금 되뇌었다. 그는 살짝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것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마도 그녀가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녀가 말한 ‘심령자’라는 말은 정확히 들어맞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령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동물들도 심령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매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그 얼굴이 지닌, 죽음의 끔찍한 빛깔 같은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당신은……” 데바인이 말을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쳐다본 건 죽은 사람이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여러 집, 여러 창문 너머로 기어 들어가며 들여다본 것도 죽은 사람이었죠. 섬뜩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광경은 유령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벌이는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가 벌이는 기이한 행동이었죠.”

그는 벌통을 향해 다시 한번 눈을 깜빡이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가장 짧은 설명은 그 일을 저지른 남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남자를 아시죠. 존 뱅크스.”

“내가 도무지 떠올리지 못했을 사람,” 데바인이 말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물론 제가 누구를 지목할 권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내 친구, 사회적인 계급이나 직업에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없습니다. 존처럼 살 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이클처럼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때로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완전히 신을 배반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소 잔혹한 사업가들이죠.

그들은 사회적인 이상 따위는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란 말할 나위도 없죠. 신사의 전통도, 노동조합원의 계급적 유대감도 지니지 않았습다. 그가 ‘좋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랑하던 모든 말들은, 사실상 남을 속였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시도한 초자연적

신비주의를 무시했던 태도는 참으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신비주의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더라도, 그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미워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이 이야기의 악당입니다. 단지 흥미로운 점은 그의 악행이 다소 독창적이었다는 사실뿐이죠.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그리고 유일한 살인 동기였습니다. 시신을 무대 소품으로, 혹은 끔찍한 인형이나 마네킹처럼 사용하려는 동기였으니까요.

처음에 그는 마이클을 자동차 안에서 죽여, 집으로 모셔간 뒤 정원에서 살해한 것처럼 위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기묘한 마무리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가 밤에 달린 차 안에서, 잘 알려진 빈집털이범의 시신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는 시신의 지문과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고, 익숙한 얼굴을 창문에 기대어 보이기도 하고 다시 치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셨겠지만, 문샤인은 뱅크스가 에메랄드 목걸이를 찾으러 방을 비운 동안, 겉보기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시체를 잔디밭으로 굴러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각 권총으로 한 발씩 쏘기만 하면. 그제야 그는 무사했다.

만약 두 수염에 대한 추측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 마이클이라는 친구는 그 낡은 수염을 그대로 두었을까?” 데바인이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건 좀 의아하군요.”

“그를 알았던 나로서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그의 태도는 그가 쓰던 가발과 같았소. 그의 속임수에는 위장이 없었거든. 그는 더 이상 옛 가면을 쓰지 않았지만, 그 가면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소. 거짓 수염을 버리는 것이 위선이라고 느꼈을 테니까. 그것은 숨는 행위와 같았고, 그는 숨고 있지 않았소. 그는 하느님 앞에서 숨지도, 자기 자신 앞에서 숨지도 않았소. 그는 정오의 햇살 아래 서 있었소. 만약 그들이 그를 감옥으로 돌려보냈어도, 그는 여전히 행복했을 거요. 그는 하얗게 칠해진 것이 아니라, 하얗게 씻겨낸 것이었소. 그에게는 매우 기이한 무언가가 있었소. 그가 죽은 후 끌려간 기괴한 죽음의 춤만큼이나 기이한 것이었죠. 그가 벌통들 사이를 미소 띤 채 오가던 그 순간에도, 그는 가장 빛나고 환한 의미에서 이미 죽어 있었소. 그는 이 세상의 심판 밖으로 나갔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데바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세상일은 결국 벌과 말벌이 너무 비슷해서 헛갈리는 데서 비롯되는 건가요?”

III

날아오르는 물고기의 노래

페레그린 스마트 씨의 영혼은 한 가지 소유물과 한 가지 농담을 빙빙 돌며 맴돌았다. 그 농담은 그리 과격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에게

“내 금붕어 봤니?”라고 묻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농담은 사치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스마트 씨는 지출 내역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 농담 자체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오래된 마을 광장 주변으로 새로 지은 작은 주택가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지체 없이 자신의 취미로 대화를 돌렸다. 단단한 턱과 독일인처럼 뒤로 빗어 넘긴 머리를 한, 유망한 생물학자 버독 박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자연사에 관심이 있으시죠? 제 금붕어 좀 보셨어요?” 정통 진화론자인 버독 박사에게 자연은 모두 하나일 터였지만, 처음에는 그 연결고리가 그리 밀접해 보이지 않았다. 버독 박사는 기린의 원시적 조상에만 집중하는 전문 연구자였기 때문이다.

브라운 신부에게는 이웃 지방 도시의 교회에서 온 신부로, 스미트 씨는 ‘로마—성 베드로—어부—물고기—금붕어’라는 빠른 사고의 열차를 이어갔다. 은행장인 임택 스미스 씨에게는, 차분한 태도에 세련된 차림새를 갖춘 날씬하고 창백한 신사에게 금본위제 이야기를 꺼내 금붕어로 연결했다. 또 뛰어난 동양 탐험가이자 학자, 이본 드 라라 백작에게는 갠지스 강과 인도양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 바다에 금붕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런던에서 막 내려온, 매우 부유하지만 매우 수줍고 말수가 적은 젊은 신사 해리 하트롭 씨에게는, 드디어 그 당황한 청년이 낚시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빼내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낚시에 대해 말하자면, 제 금붕어 좀 보셨어요?”

황금붕어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바로 그 붕어들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어떤 부유한 동방 왕자의 기이한 취향으로 제작된, 사치스럽지만 비싼 장난감의 일부였다. 스마트 씨는 이런 독특한 물건들로 자신의 집을 채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어떤 경매장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이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방의 다른 쪽 끝에서 보면, 이 장난감은 꽤 크고 특이한 물고기들이 들어 있는 그릇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것은 베네치아 유리로 아름답게 붙여낸 거대한 거품 같은 형태였다. 유리는 매우 얇았고, 은은하게 빛나는 색감으로 흐릿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 빛깔이 감도는 어스름한 빛 속에서, 눈이 루비인 괴상한 금붕어들이 매달려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물건은 재료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큰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수집가들의 세계에서 일렁이는 광기의 파도에 달려 있었다.

스마트 씨의 새로운 비서, 프랜시스 보일이라는 젊은 아일랜드인 남자는 신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웠지만, 스마트 씨가 우연히 근처에 머무르게 된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집품 중 보석들을 이렇게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 수집가들은 보통 경계심이 강하고 때로는 비밀을 지키는 편이기 때문이다.

보일 씨는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이들 사이에서는 그 가벼운 놀라움이 점차 심각한 불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목이 잘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스마트 씨의 하인 해리스가 말했다. 그는 마치 순수한 예술적 관점에서 ‘안타깝군’이라고 말한 것처럼, 가상의 쾌감을 느끼며 이 말을 건넸다.

“그가 사방에 물건들을 방치해 두는 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올라와 새로 온 비서를 돕기 위해 온 스마트 씨의 수석 서기 제임슨이 말했다. “게다가 그는 그 초라한 낡은 문에다 그 초라한 낡은 나무 판자조차 막지 않으려 합니다.”

“브라운 신부와 의사는 괜찮아요,” 스마트 씨의 하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고한 의견이 담겨 있었지만, 표현은 다소 모호했다. “하지만 외국인 문제라면 저는 신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직 백작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그 남자도 저에게는 영국인이기에는 너무 누렇게 보입니다.”

“음, 하트롭이 녀석은 충분히 영국인답군.” 보일이 좋은 기운으로 말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하죠.” 하녀가 말했다. “그가 딱히 외국인이라곤 할 수 없지만, 겉모습만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란 행동을 보고 정하는 거라고요.” 그녀가 어두운 어조로 덧붙였다.

만약 그녀가 그 오후, 주인의 응접실에서 오간 대화를 들었다면, 그녀의 불쾌감은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 대화의 주제는 금붕어였지만, 공격적인 외국인 남자는 점점 더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가 말을 많

이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조차도 무엇인가 뚜렷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쿠션 더미 위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거대해 보였다. 질어지는 황혼 속에서 그의 넓은 몽골계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달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의 배경이 얼굴과 체격에 아시아적인 분위기를 더 부각시킨 듯했다. 방은 값비싼 장식품들로 어지럽게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동양의 무기, 담뱃대, 그릇, 악기,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사본들의 굵은 곡선과 타오르는 듯한 색채가 드러나 있었다. 어쨌든 대화가 이어질수록, 보일에게 쿠션 위에 앉아 황혼에 어둠으로 물든 그 인물은 거대한 부처상의 실루엣과 정확히 일치해 보였다.

대화는 꽤 포괄적인 수준으로 이어졌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드나드는 습관이 있었고, 이제 그들은 마치 하나의 클럽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녹색 광장을 둘러싼 네다섯 채의 가옥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중 페러그린 스마트의 집이 가장 오래되고, 크며, 풍광이 아름다웠다. 그 집은 광장 한쪽 면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덕분에 작은 빌라 한 채가 들어설 공간만 남았는데, 그곳에는 은퇴한 버니 대령이 살고 있었다. 그는 병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밖을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이 건물들과 직각을 이루는 곳에는 두세 개의 가게가 있었다. 그곳은 마을의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었다. 구석에는 ‘푸른 용’ 여관

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런던에서 온 낯선 사람 하트롭 씨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광장 반대편에는 세 채의 가옥이 있었다. 그중 한 채는 데 라라 백작이, 또 다른 한 채는 버독 박사가 임차했고, 마지막 한 채는 아직 비어 있었다. 네 번째 면에는 은행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은행장 관사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토지는 건축 용도로 임대되어 있었고, 그 일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처럼 이 지역은 자급자족적인 집단이었다. 광장 주변 수 마일 이내의 땅이 비교적 비어 있었기에, 주민들은 서로의 교제를 더 많이 찾게 되었다.

그날 오후, 한 명의 낯선 사람이 그 마법 같은 고리 안에 끼어 들었다. 그는 썩기형 얼굴에 거친 눈썹과 수염을 가진 사내였다. 옷차림은 형편없어 보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그렇게 주장되듯이) 오래된 수집가와 거래하러 내려온 것이라면, 그는 백만장자이거나 공작이어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푸른 용’ 여관에서는 그를 하며 씨라고 불렀다.

그에게 다시금 금으로 입힌 물고기들의 영광과, 그들을 간수하는 일에 대한 비판들이 들려졌다.

“사람들은 늘 저더러 그것들을 더 철저히 보관해 두라고 말하더군요.” 스마트 씨가 어깨 너머로 그 자리에 서서 사무실 서류를 들고 있는 하인을 향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스마트는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몸을 가진 아주 작은 노인이었다.
그는 대머리 앵무새와 꽤 닮아 보였다.

“제임슨과 해리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문을 단단히 잠그라고 조릅니다. 마치 중세 요새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썩어 빠진 녹슨 낡은 빗장은 오히려 중세 시대어나 어울릴 만큼 아무도 막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운과 현지 경찰을 믿는 편이죠.”

“항상 가장 튼튼한 철문이 사람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백작이 말했다. “누가 들어오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옛날 힌두교 은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벌거벗고 살았죠. 그리고 무굴 황제를 포위하고 있던 세 군대를 거침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폭군인 황제의 두건에서 거대한 루비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무사히 돌아왔죠.”

“그는 위대한 자들에게 공간과 시간의 법칙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요.”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미세한 법칙을 진지하게 연구할 때,” 버독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개 알게 됩니다. 서양 과학은 동양의 마술에 상당 부분 빛을 비취 놓았죠. 물론 최면과 암시를 활용하면 많은 일이 가능합니다. 손재주까지 더해지면 말입니다.”

“루비는 왕의 천막에 없었소.” 백작은 꿈결 같은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백 개의 천막 사이에서 그것을 찾아냈지.”

“그 모든 것이 텔레파시로 설명될 수 없습니까?” 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질문은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뒤이어 찾아온 무거운 침묵 때문이었다. 마치 그 유명한 동방 여행자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실례합니다.” 그는 갑자기 미소를 띠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말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깜빡했군요. 동방에서는 생각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죠. 당신네 사람들은 말을 숭배하고, 말로 만족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텔레파시’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전에 ‘허튼수작’이라고 불렀을 때와 무엇이 달라집니까? 한 남자가 망고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것을 ‘공중 부양’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단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중세의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를 파란 개코원숭이로 바꾸었다면, 당신들은 그것을 ‘유전적 회귀’라고 부르겠지요.”

의사는 잠시 동안, 결국 그다지 큰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띠었다. 그러나 그의 짜증이 그런 말이나 다른 어떤 표현으로 분출되기 전에, 하머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이 거친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인도 마술사들이 기이한 짓을 잘 한다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보통 그런 짓을 인도에서 한다는 걸 눈치챘어. 공범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집단 심리의 작용일 수도 있어. 나는 그런 마술이 영

국 마을에서 펼쳐진 적이 없다고 봐. 그러니 우리 친구의 금붕어들은
꽤 안전할 거야.”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죠.” 데 라라는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일은 인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카이로의 가장
현대화된 지역 한복판에 있는 영국 병영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철제 대문 안쪽에 서서, 철창 사이로 거리 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맨발에 원주
민의 헐벗은 옷을 걸친 채였죠. 그런데 그가 영어로 건넨 말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는 병사에게, 건물 내부에 안전을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 특정 공문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병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
죠. 그러자 거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무엇이 다른가요?”

병사는 여전히 철창 너머로 거지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대문도 움직이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로는 거리 위에 서서 병영 안뜰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사실ைய요. 안뜰에는 거지가 그대로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
고, 역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건물 쪽으로 몸을 돌리자, 병사는 간신히 남은 이성을 되찾
았습니다. 그는 철문 안쪽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죄수를 꼭 붙잡아 두게!”

그는 악의에 찬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러자 거지는 은빛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무엇이 다른가요?”

병사는 여전히 같은 철창 너머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철창이 다시 자신과 거리 사이, 즉 거지가 서 있는 곳과 병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손을 흔들며 종이를 들고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임택 스미스 씨는 어둡고 윤기 나는 머리를 숙인 채 카펫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 입을 열었다.

“그 종이에 관한 일은 없었나요?” 그가 물었다.

“선생의 직업적 직관은 정확하군요.” 백작은 차갑지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 여파는 국제적인 차원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젊은 하트롭이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정치적인 측면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백작은 차분하게 말했다. "다시 말해 철학적인 측면만 다루는 거죠. 이 사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치 레버를 돌리듯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물질적인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까?"

"글쎄, 나는 영적인 힘에 대해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네." 노스마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브라운 신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신부가 대답했다. "지금까지 들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도둑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도둑질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도둑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교양 없는 사람이야." 스미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 무리에게 동정을 느낍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필리스티아인은 단지 이유를 모른 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건 너무 영리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군요." 하트롭이 진심으로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자네는 말없이 대화하고 싶은가 보군. 백작이 제안한 것처럼."

백작은 먼저 의미심장하게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자네는 묵묵함으로 화답하겠지.

“음악으로 무언가 해볼 수도 있겠군요.” 백작이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말보다 나를 테니까.”

“네, 그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젊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일은 그 대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대화에 참여한 이들 중 한두 사람의 태도가 그에게 의미심장하거나, 심지어 기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화가 음악 이야기로 흘러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은행 지점장에 게 요청이 들어갔다. 그는 재능 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젊은 비서는 깜짝 놀라 자신의 임무를 깨달았다. 그는 상사에게, 서기장이 여전히 손에 서류를 든 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아, 지금은 그건 잊으십시오, 제임슨.” 스마트가 재빨리 말했다. “그냥 내 계좌에 관한 것뿐이요. 나중에 스미스 씨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던 첼로, 스미스 씨----”

냉랭한 현실의 숨결이 초월적인 담론의 안개를 이내 쓸어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떴다. 다만 은행 지점장이면서 음악가인 임랙 스미스 씨만이 끝까지 남았다.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난

뒤, 그는 주인과 함께 금붕어를 키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문을 닫았다.

집은 길고 좁았다. 2층에는 덮개 있는 발코니가 길게 이어져 있었다. 2층은 주로 집주인이 쓰는 방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침실과 탈의실, 그리고 안방이 있었다. 안방에는 집주인의 귀중한 보물들이 밤마다 보관 되곤 했다. 낮에는 아래층 방들에 두지 않고, 밤마다 이 안방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이 발코니와 그 아래에 있는 철창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문은 집사와 수석 서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걱정거리였다. 그들은 수집가의 부주의를 한탄하며 불평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교활한 노신사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집사가 쓸데없이 녹슬고 있는 낡은 문단속 장치들을 보고 한탄했지만, 노신사는 그런 것에 큰 믿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더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가장 좋아하는 금붕어들을 침실 뒤쪽 방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방 앞에 잠자리를 틀었다. 베개 밑에는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보일과 제임슨은 단둘이 나눈 밀담 이후, 고용주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고용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한 유리 수조를 매우 공경하는 태도로 들고 있었다. 마치 성인의 유물을 옮기는 것처럼 말이다.

밖에는 해질 무렵의 마지막 빛이 녹색 광장의 모서리에 애매하게 남아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전등이 켜져 있었다. 두 빛이 섞인 가운데, 색색의 둥근 어항은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다. 화염 같은 물고기들의 기이한 형상은 그 어항에 부적 같은 신비로움을 더했다. 마치 예지자가 운명의 수정구 속에서 본 기이한 형상들처럼.

노인의 어깨 너머로, 올리브빛 얼굴의 임팩 스미스가 스팅크스처럼 응시하고 있었다.

“저녁에 런던으로 올라갑니다, 보일 씨.” 늙은 스마트가 평소보다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스미스 씨와 나는 여섯 시 사십오 분 열차를 타요. 제임슨,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자는 게 좋겠소. 어항을 평소처럼 뒷방에 두면 아무 문제없을 거요. 물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스미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통은 총을 들고 자시잖아요. 이번 일은 어차피 총이 필요 없을 테니, 그냥 집에 두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페레그린 스마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나서서 마을 광장을 둘러싼 도로로 향했다.

비서와 수석 서기는 지시대로 고용주의 침실에서 잠을 잤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석 서기 제임슨은 탈의실의 침대에서 잤다. 하지만 두 방 사이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앞쪽으로 이어진 두 방은 사실상 하나의 공

간이었다. 긴 프랑스식 창문이 발코니로 통하는 침실과, 안전을 위해 금붕어 그릇을 두었던 안방으로 이어지는 뒷문이 있었다.

보일은 침대를 끌어서 그 뒷문을 완전히 막았다. 그리고 권총을 베개 밑에 숨긴 뒤 옷을 벗고 침대에 올랐다. 불가능하거나 드문 사건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안도감에 잠들었다. 그는 정상적인 절도 사건에 특별한 위험이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여행자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데 라라 백작의 초자연적인 절도에 관해, 잠들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꿈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꿈과 깊은 잠 사이를 오가며 잠들었다.

오래된 서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불안하게 지냈다. 하지만 잠시 더 부산을 떨며 자신의 대표적인 후회와 경고를 되풀이하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침대로 물러가 잠들었다. 달빛은 녹색 광장과 회색 건물들 위를 오가며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인간이 목격하지 못한 듯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였다. 그리고 회색 하늘 모서리에 새벽의 하얀 균열이 이미 나타나던 때, 그 일이 발생했다.

젊은 보일은 두 사람 중 더 건강했고, 더 깊게 잠들었다. 한 번 깨어나면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일 같았다. 게다가 그의 꿈은 문어처럼 흐릿한 축수를 뺀 치며 깨어나는 의식에 달라붙는 종류였다. 그의 꿈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그중에는 발코니에서 바라본 네 개의 회색 길과 초록빛 광장의 마지막 풍경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꿈의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고, 어지럽게 회전했다. 그 와중에는 낮은 갈림 소리가 들렸는데, 어딘지 지하의 강물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드레싱룸에서 잤던 제임슨 노인이 코를 골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웅웅거림과 움직임이 데 라 라 백작의 말과 어렴풋이 연결되었다. 백작은 시간과 공간의 레버를 쥐고 세상을 돌릴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말한 바 있었다. 꿈속에서는 지상 아래에 있는 거대한 웅웅거리는 기계들이 실제로 온갖 풍경들을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지구의 끝이 한 사람의 앞마당에 나타나거나, 그의 앞마당이 바다 너머로 유배되는 일도 가능해 보였다.

그가 의식을 되찾으며 처음 들어온 것은 노래의 가사였다. 낮고 금속성 있는 반주음이 함께 들렸다. 노래는 외국 억양으로,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목소리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잠자는 동안 시를 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육지 위를, 바다 위를 날아 내 날치들이 내게 올 테니 그들은 깨어난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그곳의 노래에 이끌려 오니——

그는 애써 몸을 일으켜 일어섰다. 그러자 함께 지킴이 노릇을 하던 동료들이 이미 침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제임슨은 긴 창문을 통

해 발코니 밖을 내다보며, 아래 거리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누구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보일에게 돌아섰다.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회하고 있어. 내가 말했지, 이 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든 나는 내려가서 정문을 꼭꼭 걸어 잠글 거야."

그는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보일은 현관문에 빗장을 채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일 자신은 발코니로 나가, 집으로 이어지는 회색빛 긴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회색빛 길 위에는, 황량한 황야와 작은 영국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다. 그곳에 나타난 한 인물은 정글이나 바자리를 방불케 했다. 백작의 기이한 이야기 속 인물이거나, ‘천일야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동쪽 하늘의 빛이 특정 지점을 비추던 시절을 지나, 모든 것을 또렷이 드러내면서도 색을 흐릿하게 만드는, 유령 같은 회색 황혼이 있었다. 그 황혼이 회색 거즈 장막을 걸어 올리듯 천천히 사라지자, 그는 낮은 의상을 두른 한 인물을 보게 되었다.

그 인물은 이상한 바다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스카프는 두건처럼 머리를 감싸고 턱 밑까지 내려와 후드 같은 인상을 주었다. 얼굴 부분은 마치 가면을 쓴 듯했다. 머리 위의 옷감이 베일처럼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는 은이나 강철로 만든 기묘한 악기를 쥐고 있었다. 모양은 기형이거나 구부러진 바이올린 같았다. 악기는 은빛 빛 같은 것으로 연주되었고, 그 소리는 유난히 가늘고 날카로웠다.

보일이 입을 열기도 전에, 번들거리는 버누스(모직 외투) 그림자 아래에서 그 낯선 억양이 들려왔다. 그는 같은 종류의 가사를 노래하고 있었다.

황금새들이 나무로 돌아가는 사이 내 황금 물고기들이 내 곁으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여기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보일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금붕어는 내 것이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혈령한 파란 망토를 걸쳤지만 발에는 신발이 없었다. 베두인족의 모습이었으나, 말투는 솔로몬 왕처럼 위엄이 있었다. "금붕어는 내게로 올 것이다. 오라!"

그가 그 말에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이며 이상한 바이올린을 쳤다. 소리가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다. 그러자 희미한 답이 돌아왔다. 진동

하는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금붕어 그릇이 놓인 어두운 방 뒤에서 들려왔다.

보일이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가 몸을 돌리던 순간, 안방에서 들리던 메아리가 갑자기 전기 벨처럼 길게 찌르르 울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이어 희미한 깨지는 소리가 났다. 발코니에서 그 남자를 꾸짖은 지 불과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늙은 서기는 이미 숨을 헐떡이며 계단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고령의 신사였기 때문이다.

“일단 문은 잠갔습니다.”

"마구간 문이요."

제임슨은 그를 따라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무지개 조각들처럼 색색의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구간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임슨이 물었다.

“말이 도둑맞았다는 뜻입니다.” 보일이 대답했다. “날아오르는 말들이죠. 우리 아랍인 친구가 방금 애견 훈련하듯 호각을 불어 모은 날치들처럼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노직원은 경악하며 외쳤다. 그런 일이야말로 도무지 존중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듯했다.

“이미 떠났군.” 보일이 짧게 말했다. “깨진 그릇이 여기 있네. 제대로 열려면 오래 걸렸겠지만, 깨뜨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지. 하지만 물고기들은 사라졌어. 하느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겠지. 하지만 우리 친구에게 한 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팔린 제임슨이 말했다. “우리는 당장 그를 쫓아붙여야 합니다.”

“당장 경찰에 전화하는 게 낫습니다.” 보일이 답했다. “모터차와 전화를 이용하면 경찰은 우리들이 밤옷 차림으로 마을을 뛰어다니며 따라잡으려 할 때, 순식간에 그를 앞지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찰 차나 전화선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임슨은 안절부절못하는 목소리로 경찰서와 전화를 나누고 있었다. 보일도 다시 발코니로 나가, 새벽빛이 내려앉은 회색빛 풍경을 급히 훑어보았다. 두건을 쓴 남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생명체의 기척도 없었다. 다만 청룡 호텔의 어딘가에서, 전문가라면 알아챌 법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었다.

보일은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주시해 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잠긴 마음속에서 제 뜻을 주장하며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사실 같았다. 바로 그 회색빛 풍경이 완전히 회색빛만은 아니었다는 점이였다. 무채색의 줄무늬 사이로 한 점의 금빛이 빛나고 있었다. 초록빛 너머 집들 중 한 곳에서 켜진 등불이였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직관 같은 것이 그에게 속삭였다. 그 불은 어둠이 깔린 밤새 내내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제야 새벽 빛에 의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들을 세어 보았다. 그의 계산 결과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와 딱 들어맞는 듯했다. 어쨌든 그 집은 분명히 이 본 드 라라 백작의 저택이었다.

핀너 경위는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도착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다. 값비싼 장신구들의 터무니없음이 오히려 사건을 신문 지상에서 큰 주목을 받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그를 조급하게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점검했고, 모든 것을 측정했으며, 모든 사람의 진술을 기록하고 지문을 채집했다. 결국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뒤, 그는 믿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막의 아랍인이 공공 도로를 따라 걸어와, 안방에 인공 금붕어 그릇을 둔 퍼그리네 스마트 씨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작은 시를 노래하거나 암송했고, 그 순간 그릇은 폭탄처럼 폭발했으며, 물고기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부드럽고 나긋한 목소리로 경험의 한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외국인 백작의 말도, 경위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작은 무리 각 구성원의 태도는 제각기 특징이 역력했다. 퍼그리네 스마트는 자신의 손실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런던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 작

은 노신사의 스포츠맨십과 기개가 드러나는 모습은, 그가 잃은 것에 대한 우울함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수색에 임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났다. 그의 작고 으스대는 몸짓은 마치 수참새처럼 보였다.

금붕어를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마을에 찾아온 하머라는 남자는, 그 물고기들이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조금 짜증을 내도 무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다소 공격적인 수염과 눈썹은 실망 그 이상을 드러내는 듯이 쭈뼛 섰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번갈아 훑어보는 눈빛은, 의심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중에 기차를 타고 런던에서 돌아온 은행 지점장의 창백한 얼굴은, 그 반짝이고 움직이는 눈빛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대상이 되었다. 원래 원형 무리를 이루던 나머지 두 인물 중, 브라운 신부는 말을 걸리지 않는 한 대체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하토프는 말을 걸렀을 때도 종종 침묵했다.

하지만 백작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해 보이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타입이었다. 그는 이성주의자 의사와 미소 지으며 마주쳤다. 그 미소는 마치 남을 짜증나게 하는 법을 잘 아는 자의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중 적어도 일부는 어제보다 오늘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내가 묘사했던 것처럼 초라한 남자가, 단 한 마디 말로 바깥에서 집 안의 단단한 그릇을 녹여버릴 수 있었다. 이는 내가 말한 영적인 힘과 물질적 장벽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의 과학 지식만으로도 어떻게 그 장난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정말, 박사님," 스마트가 흥분한 어조로 물었다. "이 미스터리엔 과학적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백작께서 신비라 부르신 그 일에 대해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명백한 일이지요. 소리는 진동의 파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특정 진동은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리의 종류와 유리의 재질이 맞물릴 때, 말입니다.

그 남자는 도로 한복판에 서서 생각에 잠기지 않았습다. 백작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양인들이 대화를 나누려 할 때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그 방식이지요. 그는 원하는 소리를 크게 내뿔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로 날카로운 고음을 내며 그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특수한 성분으로 만든 유리를 깨뜨리는 많은 실험들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예컨대, 단단한 금괴 여러 덩어리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그 실험 말입니다.” 백작은 가볍게 말했다.

“핀너 경위가 오십니다.” 보일이 말했다. “사실은 저도, 핀너 경감이 의사의 자연스러운 설명을 백작의 초자연적인 설명만큼이나 동화 취급할 것 같다고 봅니다. 경감은 특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 의심받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백작이 말했다.

보일은 자신의 사건에 그 같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브라운 신부에게 직접 조연을 구하기로 했다. 몇 시간 뒤, 두 사람은 마을 중앙의 초지 주변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신부는 경청하며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생각에 잠긴 듯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 보이시나요?” 그가 물었다. “누군가 이 길바닥을 씻어놓았어요. 정확히는 바니 대령 댁 앞쪽의 좁은 보도 한 줄 정도만요. 어제 누군가 한 짓인지 궁금하군요.”

브라운 신부는 그 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집은 키가 크고 좁았다. 창문에는 줄지어 무지개빛 선블라인드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색이 바래 어딘지 흐릿했다.

내부를 엿볼 수 있는 틈새들은 안쪽의 어둠을 더 짙게 보여줬다.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정면과 대비되니, 그 틈새는 거의 까맣게 보였다.

“저곳이 바니 대령의 집이죠?” 그가 물었다. “그분도 동방에서 오셨나 봅니다. 대체 어떤 분인가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일이 대답했다. “그 사람을 본 이는 의사 버독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도 필요 이상으로 그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큰 현관이 열리며 작은 사제를 삼켰다. 친구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진 듯, 비이성적인 표정이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도 하듯 말이다.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브라운 신부가 나왔다.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그는 도로 네모난 광장을 천천히, 어정쩡하게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때로 지금의 일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지나가는 말로 역사와 사회 문제를 논하기도 했고, 지역의 개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이 새 도로를 내기 위해 쓴 흙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낡은 마을의 잔디밭을 건너다보며, 어렴풋한 표정을 지었다.

“공동 목장이지. 만약 돼지나 거위가 있다면 그 위에서 키우는 게 맞겠지.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잡초와 엉성퀴만 무성할 뿐, 그 무엇도 자라고 있지 않아. 넓은 초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째서 이렇게 작고 답답한 야생으로 변해버렸는지, 정말 아쉽군. 맞은편에 있는 것이 버독 박사의 집이지?”

“네,” 보일이 대답했다. 갑작스러운 추가 문구에 놀라 거의 점프하듯 반응했다.

"좋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스마트의 집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보일은 동행자에게 새벽녘에 벌어진 사건들의 여러 정황을 반복해 설명했다.

“혹시 또 잠들었다가 누군가가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임슨이 문단속하러 내려가는 틈을 놓쳤나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아니요.” 보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발코니에서 제임슨이 낮선 이를 향해 누구냐고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단을 내려가서 빗장을 채우는 소리까지 들렸죠. 그러자 저는 두 발로 뛸 듯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당신 사이로 슬쩍 들어왔을까요? 정문 말고 다른 출입구는 없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보일이 진지하게 말했다.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게 좋겠죠?” 브라운 신부가 사과하는 투로 물으며, 다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보일은 앞방에 그대로 서서, 그가 사라지는 뒤를 다소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 흐른 뒤, 동그랗고 소박한 인상의 얼굴이 다시 계단 꼭대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마치 활짝 웃는 순무 귀신처럼 보였다.

“아니요. 이제 출입구에 대한 의문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순무 귀신은 쾌활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단단히 박스에 담긴 셈이니,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꽤 흥미로운 일이군요.”

“보일 씨, 그 백작이나 대령, 아니면 다른 동방 여행객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일이 물었다. “아니면,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제는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백작이든, 대령이든, 아니면 당신의 이웃 중 누군가가 아랍 가면극 복장을 하고 어둠 속에서 이 집으로 기어올라왔다면, 그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일이었을 테니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왜요?”

“아랍인 발자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한쪽에는 대령이고, 다른 한쪽에는 은행가입니다. 그 느슨한 붉은 흙은 당신과 은행 사이에 있는데, 맨발로 밟으면 석고 주형처럼 발자국이 또렷이 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붉은 자국이 여기저기 남았을 겁니다. 저는 대령의 카레 향이 나는 성미를 무릎쓰고 확인했습니다. 앞쪽 보도가 어제 씻겨졌지 오늘 씻겨진 게 아니라는 사실ைய요. 보도가 젖어 있었기에 길 전체에 젖은 발자국이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 방문객이 맞은편 집에 사는 백작이나 의사였다면, 물론 공동목초지를 건너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맨발로 그곳을 지나기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 그곳은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쏘는 췌기풀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찢렸을 테고, 아마도 그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보일은 자신의 성직자 친구인 브라운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무표정했고, 읽을 수 없는 듯했다.

“그가…… 정말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떤 것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죠.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파리를 보고 달 위에 놀라운 드래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재생해 들으면 마치 타인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정면에 있는 것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만약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매우 기이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정면의 사물이 조금 멀리 떨어진 중간 거리에 놓인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 밖으로 나가보시겠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마치 생각하며 말하는 듯한 어색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백작과 아시아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사건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태에 도달하면, 머리에 떨어지는 벽돌이 점토판에 썰기문양이 새겨진 바빌론산 벽돌로, 심지어 바빌론의 공중정원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벽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의 집이나 주변 벽돌과 같은 양식임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니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오?” 보일이 끊어 말하며 입구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것이오? 문에 다시 빗장이 걸려 있소.”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들어왔던 앞문, 즉 낡은 철창이 다 시금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듯이, 그 철창은 마구간 문을 닫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 낡은 잠금장치들이 그들의 뒤에서 닫히며,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을 가두고 감금하고 있었다.

그 광경은 어둡고도 무언의 아이러니를 풍기고 있었다.

“그건 제가 막아 둔 거예요.” 브라운 신부가 담담하게 말했다. “방금 제가 직접 철봉을 설치했거든요.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보일이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네.” 다른 한 사람이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위층에서 그 철창을 설치하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전혀 없어. 어떤 고리가 어떤 구멍에 쉽게 끼워지거든. 아주 가까이서야 둔탁한 ‘딸깍’ 소리가 들릴 뿐이야. 그게 다야.”

“위층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오직 이것뿐이지.”

그가 빗장을 흠에서 빼내더니, 문 옆에서 쟁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문고리를 풀면 소리가 나긴 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은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위층에서 들리던 소리는 제임슨이 문을 열고 나서 닫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직접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 봅시다.”

그들은 발코니 아래 거리로 나와 섰다. 작은 사제는 마치 화학 강의를 하듯, 차분하게 이전의 설명을 이어갔다.

“내가 말하려는 건, 어떤 남자는 아주 먼 곳을 찾아 헤매느라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그건 자기 자신과도 닮은, 아주 가까운 무엇일 수도 있어. 네가 이 도로를 내려다보며 본 그 기이하고 낯선 광경은, 그런데 그가 저 발코니를 올려다봤을 때 무엇을 봤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

보일은 발코니를 응시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덧붙여 말했다.

“아랍인이 맨발로 문명화된 영국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당신은 그 순간 당신 자신도 맨발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죠.”

보일도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이미 누군가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제임슨이 문을 열었죠.” 그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맞아요.”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임슨은 밤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바로 당신이 발코니에 나왔을 때와 같은 타이밍이었죠. 그는 당신이 백 번은 봤을 법한 두 가지를 손에 쥅니다. 하나는 머리에 두른 오래된 푸른 커튼의 한 뼀 길이였고, 다른 하나는 동양 잡동사니 더미 속에 항상 놓여 있던 동양식 악기였죠. 나머지는 분위기 연출과 연기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는데, 그는 범죄라는 예술에서 아주 뛰어난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슨!” 보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는 너무 지루한 구시대 사람이라, 나는 그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맞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그는 예술가였죠. 마법사나 트루바두르 역할을 여섯 분간 연기할 수 있었다면, 서기로 여섯 주를 연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보일이 말했다.

“그의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아니면 거의 달성됐죠.”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는 이미 금붕어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가져갈 무려 스무 번의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가 단순히 금붕어만 가져갔다면, 사람들은 그가 그 일을 저지를 스무 번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챌었을 것입니다.

그는 먼 땅 끝에서 온 신비로운 마법사를 등장시켜, 사람들의 시선을 아라비아와 인도 같은 먼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조차 이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죠.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일이 말했다. “그는 엄청난 모험을 감수한 셈이군. 그리고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했겠지.”

“거리의 사람들이 제임슨이 발코니에서 말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사실 내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전부 가짜였기 때문이었겠지.”

“그리고 내가 완전히 깨어나 발코니로 나가기 전에, 그가 밖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것도 사실일 테고.”

“모든 범죄는 누군가가 너무 일찍 깨어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우리 대부분은 너무 늦

게 깨어납니다. 저는 특히 더 늦게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가 지문 채취 직전이나 직후에 이미 도망갔을 테니까요.”

“어쨌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눈을 떴죠.” 보일이 말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임슨은 너무 정확하게 무채색이라, 나는 그를 완전히 잊고 있었으니까요.”

“잊어버린 남자를 조심하라”고 친구가 대답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남자야. 하지만 나도 너에게 그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당신 덕분이예요.” 보일이 따뜻하게 말했다.

“모든 것은 로빈슨 부인에게 빚진 거예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로빈슨 부인?” 놀란 비서가 물었다. “그 하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잊어버린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더구나...”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이 남자는 매우 고위급의 범죄자였다. 그는 훌륭한 배우였기 때문에 심리학자로서의 재능도 뛰어났다. 백작 같은 자는 자신의 목소리 외에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당신이 모두 그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로맨스에 꼭 필요한 재료를 정확히 모았고, 당신을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딱 맞는 톤을 정확히 알

아냈다. 하지만 그는 하녀장 로빈슨 부인의 심리학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도대체 그녀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일이 말했다.

“제임슨은 문이 잠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는 많은 남성들, 특히 당신이나 당신의 상사처럼 부주의한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무언가 해야 한다’거나 ‘차라리 해두는 게 낫다’고 말만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여성에게 ‘무언가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 그녀는 언제나 그것을 즉각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V

배우와 알리바이

연극 극단장 머튼 만데빌 씨는 무대 뒤 복도, 정확히는 무대 아래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차림새는 단정하면서도 축제 같았다. 어쩌면 약간 지나치게 화려할 정도였다. 단추 구멍에 꽂힌 꽃도 축제 같았다. 구두 광택까지도 축제 같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축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거구에 목이 굵고 눈썹이 짙은 사내였다. 평소보다 눈썹이 더 어두웠다.

물론 그에게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다. 크고 작은, 새롭고 오래된 문제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

다. 오래된 판토마임 배경들이 쌓여 있는 복도를 지나갈 때면 그는 화가 났다. 그는 그 극장에서 인기 있는 판토마임으로 경력을 시작해 성공했지만, 이후 더 진지하고 고전적인 연극에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돈을 잃었다.

그래서 푸른 수염의 파란 궁전의 사파이어 문이나, 황금 오렌지 나무의 마법 숲 일부가 벽에 기대어 거미줄로 뒤덮이거나 쥐들에게 갇혀 먹히도록 방치된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어린 시절의 동화 세계를 엿본 듯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그가 돈을 잃은 자리에 눈물을 흘릴 시간도, 피터 팬의 낙원을 꿈꿀 시간도 없었다. 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대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급히 불려왔기 때문이다.

무대 뒤라는 이상한 세계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은 심각할 정도로 컸다. 이탈리아계 부모를 둔 재능 있는 젊은 여배우 마로니 양은, 오후에 연습하고 저녁에 공연할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리고 격렬하게 거절했다. 그는 아직 그 성가신 여인을 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분장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분간 그를 만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머든 만데빌 경은 영국인답게 모든 외국인은 미쳤다고 중얼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정상적인 섬에 살고 있다는 행운을 생각해도, 그는 달래지지 않았다. 마법 숲에 대한 기억도 그를 달래주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친밀한 관찰자

라면 만데빌 경의 문제가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것임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다.

무겁고 건강한 남자가 초췌해 보일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초췌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통통했으나 눈구멍은 오목하게 패여 있었다. 입술은 떨렸고, 마치 항상 검은 수염 줄기를 물어뜯으려 하는 듯했다. 그 수염은 조금 짧아서 입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약 때문에 비극에 빠진 것이 아니라, 비극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보였다.

그가 가진 더 깊은 비밀은, 긴 복도 끝의 어두운 곳에 자리한 작은 서재 입구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했다. 그는 빈 복도를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신경이 예민해진 듯했다.

하지만 일은 일이다. 그는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가, 미스 마로니의 빈 초록색 문을 마주했다. 그 문은 마치 세상 전체를 향해 버티고 서 있는 듯했다.

문 앞에는 배우들과 관련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고민하고 있었다. 거의 망치로 문을 부술 방법을 논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무리 속에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그의 사진은 많은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고, 서명은 수많은 앨범에 적혀 있었다. 노먼 나이트는 아직 다소 지방적이고 구식인 극장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었

다. 그곳에서는 그를 '걸어 다니는 신사'의 최고봉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분명 더 넓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를 지녔다. 길게 갈라진 턱과 이마까지 내려온 밝은 머리카락이 그를 네로 황제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움직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인상이었다.

그 무리에는 래프 랜들도 있었다. 그는 주로 노인의 분장을 맡았으며, 면도한 자국이 파랗게 진 익살스러운 손도끼 같은 얼굴에 분장으로 얼룩져 있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었다. 만데빌 극단의 두 번째 '걸어 다니는 신사'였다. 그는 찰스의 친구라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곱슬 머리에, 약간의 세미틱한 인상을 풍기는 젊은이였다. 이름은 오브리 버논이었다.

그 무리에는 만데빌 부인의 하녀, 혹은 의상 담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우 당당해 보이는 외모에, 붉은색 머리를 단단히 묶고 단단한 나무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만데빌의 부인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그녀는 배경에 조용히 서 있는 여성으로, 창백하고 인내심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선에는 고전적인 대칭과 엄숙함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가 열은 색이라 더 창백해 보였다. 열은 노란색 머리는 두 가닥으로 매끈하게 묶여, 마치 아주 고대적인 마돈나처럼 보였다.

그녀가 한때 입센과 지적인 희곡에서 진지하고 성공적인 배우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문제극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외국 여배우를 잠긴 방에서 어떻게 꺼내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사라진 여자의 마술을 새로운 버전으로 풀어낸 것과 같은 문제였다.

“아직 나오지 않았나?” 그는 아내에게 묻기보다, 아내의 단단한 태도를 가진 수행원에게 묻듯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샌즈 부인이라고 알려진 여자가 무겁게 대답했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늙은 랜달이 말했다.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입니다.”

“젠장!” 만데빌이 소박하고 솔직한 어조로 말했다. “광고는 아주 좋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광고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녀에게 여기 친구가 없단 말인가? 그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자비스는 그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근처에 있는 본당 신부뿐이라고 믿고 있소.” 랜달이 말했다. “그녀가 모자걸이에 목을 매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면, 신부님이 계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자비스가 신부님을 모셔오려 갔는데, 하필이면 지금 오시는군요.”

무대 아래 지하 통로로 또 다른 두 인물이 나타났다. 먼저 나온 사람은 애슈턴 자비스였다. 그는 통쾌하게 악역을 맡는 유쾌한 배우였으나, 그 높은 소명은 잠시 내려놓고 코가 특이한 곱슬머리 소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두 번째 인물은 키가 작고 사각형에 가까운 체격에, 온몸을 검은색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그는 모퉁이 교회에서 온 브라운 신부였다.

브라운 신부는 자신의 양 떼 중 한 마리가 기묘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러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심지어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 여인이 검은 양, 즉 죄인인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길을 잃은 어린 양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살이라는 제안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다.

"저렇게 화를 내게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가 말했다. "누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나 봅니다.” 노련한 배우가 말했다.

“항상 그렇죠.” 문던 맨데빌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딱 이 말씀만 드릴 수 있겠네요.” 문던 맨드빌 부인이 피곤한 듯 말했다. “제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역할을 주었으니까요. 연기에 목말라 하는 젊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건, 화려한 화환과 박수 속에서 아름다운 젊은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 주인공역

을 맡는 거잖아요. 제 또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숙녀 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어요.”

“어쨌든 지금 와서 배역을 바꾸는 건 정말 골치 아프겠군,” 랜달이 말했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먼 나이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라면 도저히 연기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미 늦어버렸으니까요.”

브라운 신부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긴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극단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곤 다시 낮게 덧붙였다. “자신에게 해를 입혔을까요?”

“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브라운 신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소리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아마도 발로 창문이나 거울을 부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녀가 스스로를 해칠까 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발로 거울을 깨는 것이 자살의 전조라니, 그건 너무 이례적인 일 이니까요. 만약 그녀가 독일인이었다면, 형이상학이나 ‘벨트슈메르츠(염세적 비애)’ 같은 것을 조용히 생각하러 사라진 것일 테니, 문을 과감히 부수어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자살을 하지도 않죠. 혹시 다른 누군가…… 네, 아마도…… 그녀가 뛰어 나올 경우를 대비해 평범한 예방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문 강제로 여는 건 반대야?” 만데빌이 물었다.

"연극에 그녀를 출연시키고 싶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무대 위를 발각 뒤집어 놓으며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라면, 누군가에게 대충이라도 문을 지키게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믿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데빌이 말했다. “그녀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부터 연습할 수밖에 없겠군요. 제 아내가 지금 바로 배경 준비를 모두 맡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막이 가장 핵심이니깐요. 그쪽부터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상 리허설은 아니에요,” 만데빌의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좋아요," 나이트가 말했다. "물론 의상 리허설은 아니죠. 저 지옥 같은 시대의 드레스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연극이 대체 뭐죠?” 신부는 호기심 어린 어조로 물었다.

“『스캔들 학교』 요,” 만데빌이 말했다. “문학적인 가치야 있겠지만, 저는 연극을 원합니다. 제 아내는 자신이 고전 희극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희극이라기보다는 고전적이라고나 할까, 훨씬 더 고전적인 작품들을 말입니다.”

그때였다. 이른바 샘이라는 노쇠한 문지기가, 영업시간 외에는 극장에 홀로 남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뒤통뒤통 걸어와 극장 관리자에게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미리엄 마든 부인이 뵙고 싶다고. 관리자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몇 초 동안이나 그 관리자의 아내 쪽을 향해 눈동자를 깜빡였다. 그리고 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는 것을.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밝은 것이 아니었다.

브라운 신부는 자신을 안내해 준 남자와 함께 자리를 떴다. 그 남자는 우연히도 친구였는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배우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다.

그가 물러서려 할 때, 문득 맨더빌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샌즈 부인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닫힌 문 옆에서 감시역을 서라는 것이었다.

“맨더빌 부인은 지적인 여성인 것 같소.” 사제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인지 항상 뒷전에 서 있더군.”

“그녀는 한때 매우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자비스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맨더빌 같은 무식한 남자와 결혼하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쇠퇴했다고 말하지요. 그녀에게는 연극에 대한 매우 높은 이상, 즉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녀의 남편이 그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죠.”

알고 계십니까? 그는 그런 여성이 판토마임의 소년 역을 맡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녀가 훌륭한 배우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판토마임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말했죠. 이것이 그의 심리적 통찰력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불평은 세계 끝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녀는 한 시대의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상한 비평가들조차 여전히 그녀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녀는 바로 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가락을 뻗었다. 맨더빌이 그들을 등진 채, 부른 대로 현관으로 나온 숙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리엄 부인은 매우 길고 나른하며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최근 유행하는, 이집트 미라를 본뜬 스타일로 아름답게 단장해 있었다. 어두운 머리는 투구처럼 낮고 네모나게 자른 모양이었고, 입술은 짙게 화장을 하고 돌출되어 있어 그녀에게 영원한 경멸의 표정을 부여했다.

그녀의 동반자는 매우 생동감 넘치는 숙녀였다. 못생겼지만 매혹적인 얼굴에 회색 가루가 뿌려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레사 텔벳 양으로, 말을 매우 많이 했다. 반면 그녀의 동반자는 아예 말을 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두 남자가 지나가려던 찰나, 미리엄 부인은 비로소 기운을 모아 입을 열었다.

“연극은 지루하죠. 하지만 평상복을 입고 있는 재연습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좀 재미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요즘 세상은 어딘가 이상해서, 본 적 없는 것을 결코 찾아낼 수 없거든요.”

“이제 맨더빌 씨,” 텔벗 양이 그의 팔을 재촉하듯 두드리며 말했다. “우린 그 리허설을 꼭 봐야 해요. 오늘 밤은 올 수 없고, 또 올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옷을 잘못 입은 그 웃긴 사람들 전체랍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특별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맨더빌이 황급히 말했다. “아마도 부인에게서 이쪽으로 오시겠지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이끌고 또 다른 복도로 들어섰다.

“궁금한데,” 자비스가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맨더빌도 그런 종류의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그렇다면,” 신부인 동료가 물었다. “맨더빌이 그녀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소?”

자비스는 잠시 동안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맨더빌은 수수께끼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 알아요. 그가 피카딜리 거리를 거닐던 평범한 악당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수수께끼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양심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고, 그의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그 그림자가 몇몇 유행처럼 번진 가벼운 연애사 때문인지, 아니면 가엾게도 외롭고 방치된 아내 때문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의 원인이라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연히 다른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사실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수수께끼다’라는 결론뿐입니다.”

그는 현관 안을 둘러보아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비밀을 지키는 데는 당신을 믿고 있으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거든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맨더빌은 항상 복도 끝, 무대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일합니다. 모두가 그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 앞을 지나가게 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번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극단 소속 여성들 중 맨더빌과 관계가 있을 법한 사람들은 모두 결석했거나, 평소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여자들이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있었소.” 자비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를 자주 방문하는 여자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낯선 인물이지. 그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복도를 따라 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닌데도 말이다. 하지만 한 번은 극장 뒤쪽에서 해질 무렵, 유령처럼 베일이나 망토를 쓴 인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가 유령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녀가 단순한 ‘사귀는 사이’도 아닐 것 같다.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이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왜냐고요?” 자비스의 얼굴이 진지함에서 차가운 공포로 바뀌었다.
“저는 한 번은 싸움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상한 여자가 금속성으로 날카롭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네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가 중혼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물론 중혼죄와 협박은 자주 한 쌍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협박이면서 동시에 허세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극계 사람들은 종종 한 가지 집착에 사로잡힌 추종자들을 거느리곤 하죠. 맞을 수도 있지만, 성급한 결론

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연극계 이야기를 꺼내셨으니, 연습이 곧 시작되지 않나요? 당신도 연극계 사람이잖아요.”

“이 장면엔 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탈리아 친구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한 막만 한다고 하니까요.”

“이탈리아 친구 이야기를 꺼내시니,” 사제가 말했다. “그녀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는지 궁금하군요.”

“좋아하시면 돌아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비스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길게 이어진 복도 끝에는 맨더빌의 서재가 있었고, 반대편 끝에는 마로니 부인의 닫힌 문이 있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듯했다. 샌즈 부인은 문 밖에 굳게 앉아 있었다. 마치 나무로 만든 우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통로 끝자락에서 그들은 무대 바로 위의 계단을 오르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잠깐 엿보았다. 버논과 노년 랜달이 앞장서서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반면 맨더빌 부인은 조용하면서도 위엄 있는 걸음걸이로 비교적 천천히 올랐다. 노먼 나이트는 그녀에게 잠시 말을 건네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연히 귀를 기울인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몇 마디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

“여자가 그에게 찾아온다고!” 나이트가 격분하며 말했다.

“췌!” 그 부인이 은빛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기억하세요, 그는 제 남편입니다.”

“정말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나이트가 중얼거리며 계단을 급히 올라 무대로 향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창백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으려 했다.

“다른 이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부는 고요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맞아요.” 자비스가 중얼거렸다. “누구든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갔다. 이탈리아 여자의 문 밖에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던 감시인이 그곳에 있었다.

“아직 나오진 않았소.” 여자는 우울한 어조로 말했다. “죽지도 않았어. 내가 이따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거든. 대체 무슨 꾀를 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소.”

“실례지만, 마담,” 브라운 신부가 갑자기 정중하게 물었다. “맨데빌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녀가 즉답했다. “방금 전, 프롬프트가 신호를 보내고 커튼이 오르기 직전에, 그가 복도 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직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나온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신부님, 그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거기뿐이라는 말씀이 시죠?” 브라운 신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래, 시노라가 빠져 있는 와중에도 연습은 한창일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여기서도 무대 위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올드 랜들, 목소리가 정말 좋죠.”

두 사람은 잠시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우렁차게 내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계단 아래로, 복도 너머로 울려 퍼지는 것이 들릴 정도였다.

그들이 다시 말을 건네거나 평소의 태도로 돌아서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그들의 귀를 채웠다. 닫힌 문 뒤, 먼던 만데빌의 개인 방에서 들려오는 둔중하지만 묵직한 부딪히는 소리였다.

브라운 신부는 활에서 날아간 화살처럼 복도를 질주했다. 자비스가 깜짝 놀라 눈을 뜨고 그를 따라잡으려 하기 전, 이미 그는 문고리를 잡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사제가 약간 창백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문, 이 문을 부수는 데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당신은 무슨 뜻이요? 그 알 수 없는 손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요?” 자비스가 다소 섬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소?”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저는 빗장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들의 잠금 장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칼을 꺼냈다. 칼에는 긴 강철 도구가 달려 있었다. 그는 잠시 도구를 만지작거리더니, 문이 열렸다. 지배인의 서재였다.

그들이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문이 하나뿐이고 창문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신 책상 위에는 거대한 전등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본 첫 번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그들은 만데빌이 방 한가운데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바닥에 처져 있었고, 피가 그 아래로 스며나오고 있었다. 그 피는 붉은 뱀 무리처럼 기어 나왔다. 그 불쾌하고도 부자연스러운 지하실의 빛에 반짝이며.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응시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제야 자비스가 입을 열었다. 숨을 죽이고 참아왔던 말을, 이제야 내뱉는 사람처럼.

“외부인이 어쨌든 들어왔다면, 그녀도 어쨌든 나갔겠지.”

"아마도 우리는 이 낯선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이상한 극장에는 기이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는 오히려 그중 일부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가 재촉하듯 물었다.

“여럿이 있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예를 들어 저기 잠겨 있는 다른 문도 그렇고요.”

“하지만 다른 문은 분명 잠겨 있어요.” 자비스가 놀라 외쳤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모두 잊으셨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진지한 어조로 덧붙였다. “샌즈 부인은 성격이 까칠하고 우울한 분이시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이탈리아인이 실제로 나왔다는 말이오?” 다른 한 사람이 낮게 물었다.

“아니요.” 사제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그저 인물 묘사를 위한, 감정을 배제한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샌즈 부인이 직접 저지른 일이라고요?” 배우가 놀라며 외쳤다.

“제가 말한 건 그녀의 인물을 분석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렇게 단호한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 브라운 신부는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소망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시신임을 확인했다.

시신 옆에는 단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쪽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극장에서 쓰는 듯한 형식의 단검이었다. 상처에서 떨어졌거나, 살인자의 손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놓여 있었다.

자비스는 그 도구를 알아봤다. 그는 그 단검에서 배울 만한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지문을 찾아낼 수 있는 한에서야 말이다. 그것은 극장의 소품 단검이었다.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그 단검은 극장 구석구석을 헤매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놓여 있었다. 아무나 주워 들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리하여 신부는 일어나, 진지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의사도요. 비록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겠지만 말입니다."

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이 방을 보니, 우리 이탈리아 친구가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탈리아인?" 친구가 외쳤다. "그럴 리가 없지. 누구보다도 그녀에게 알리바이가 있었을 거야. 긴 복도 양끝에 있는 두 개의 방. 둘 다 잠겨 있었고, 복도를 지키는 목격자까지 있었잖아."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어떻게 이쪽 끝으로 들어왔느냐는 거죠. 저는 그녀가 다른 쪽 끝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고요. 거울이거나 창문이었을 겁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깜빡했었습니다. 그녀가 꽤나 미신적이라는 거요. 그녀는 거울을 깨뜨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을 깨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비록 이곳이 모두 1층 바닥 아래(지하)에 있긴 하지만, 천장창이거나 바닥으로 이어지는 창문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천장창이나 바닥으로 이어지는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천장을 매우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깜짝 놀라 의식 세계로 돌아왔다. “우리는 지금 바로 올라가서 전화로 모두에게 알려야 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신이시여, 저 위쪽에서 배우들이 아직도 소리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연극은 아직 진행 중이야. 아마 그게 그들이 말하는 비극적 아이러니의 뜻이겠지.”

극장이 애도의 집으로 바뀌게 된 운명적인 순간, 배우들은 자신의 본성과 직업이 지닌 진정한 미덕을 여러 가지로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관용적인 표현대로 ‘신사답게’ 행동했다. 그것도 무대에서 신사역을 연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사답게 굴었다.

그들 모두 만데빌을 좋아하거나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의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연민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그 과부는 새로운, 그리고 매우 다른 의미에서 ‘비극의 여왕’이 되었다. 그녀의 가장 가벼운 말도 법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거닐 때, 배우들은 그녀를 위해 여러 가지 용무를 자처하며 달려다녔다.

“그녀는 늘 강인한 성품이었소.” 랜들 노인이 약간 쉼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았지. 물론 불쌍한 만데빌은 교육 같은 면에서 그녀만 못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소. 때때로 그녀는 더 많은 지적 삶을 원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모습이 꽤 애절할 정도였소. 하지만 만데빌은…… 어쨌든, 그들은 ‘선한 것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소.” 그리고 노인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정말 선함밖에는 없다니,” 자비스가 음울하게 말했다. “어쨌든 랜들은 그 이상한 여인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분은 정말로 그 이상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건요,” 사제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상한 여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아, 이탈리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스가 급히 말했다. “사실은 당신 말씀이 그녀에 관해서도 정확했어요. 그들이 방에 들어

갔을 때 천창이 깨져 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죠. 하지만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그 여자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려는 건 그 비밀 회의에서 그를 협박하는 소리가 들렸던 여자, 바로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주장했던 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그의 아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의 아내였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운 신부는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건 바로 질투심에서 비롯된 동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으면서 다시 결혼한 중혼이 문제였을 테니까요. 시신에서 금품이 도난당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 도둑질하는 하인이나 궁핍한 배우자를 의심할 필요도 없겠죠.”

자비스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그건 그렇치고, 당신도 이 사건의 가장 두드러지고 특이한 점을 눈치챘을 테죠?”

“저는 이상한 점들을 몇 가지 눈여겨봤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극단 전체의 알리바이를 말한 거예요.” 자비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로 극단 전체가 그런 식으로 공개된 알리바이를 갖는 경우는 드물지. 무대 위 등불 아래서 서로를 증명하는 알리바이라니. 결과

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운이 좋았던 건, 불쌍한 만데빌이 리허설을 지켜 보라고 두 명의 어리석은 사교계 여성을 박스에 앉혔기 때문이야. 그들은 전체 공연이 끊김 없이 진행되었고, 무대 위의 등장인물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어. 그 공연은 만데빌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지. 그리고 당신과 내가 그의 시체를 발견한 지 최소 5분에서 10분 뒤까지 계속됐어. 그리고 운 좋게도, 우리가 실제로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은 바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무대 위에 함께 있던 때였어.”

“네, 그건 확실히 매우 중요하군요. 모든 게 간명해집니다.” 브라운 신부가 동의했다.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람들을 한 명씩 세어봅시다. 랜달이 있군요. 랜달은 본래 극장장을 거의 증오했지만, 지금은 감정을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달은 범인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우레처럼 울려 퍼진 목소리가 바로 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다음은 주연 배우, 나이트 씨가 있습니다. 나이트 씨는 만데빌의 부인에게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감추려 애쓰기보다 솔직하게 드러냈을지도 모를 정도죠. 하지만 나이트 씨도 범인이 아닙니다. 그는 랜달이 꾸짖는 소리를 무대에서 듣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오브리 버논이라고 소개하는 그 친절한 유대인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데빌 부인도 제외됩니다. 말하신 대로 그들의 공동 알리바이는 주로 미리엄 여사와 그녀의 친구가 서 있는 박스에 의존합니다. 다만 극의 진행이 자연스럽게 끝났고, 극장의 일상적인 절차에 아무런 중단이 없었던 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강해 줍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법적 증인은 미라미 여사와 그녀의 친구, 텔벳 양입니다. 두 분은 모두 문제없으리라 확신하시나요?”

“미리엄 부인이라고요?” 자비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 네…… 아마도 그분이 묘한 분위기의 요부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요즘은 명문가 부인들조차 이런 차림이 흔하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지 못하시겠군요. 게다가 그들의 진술을 의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우리가 빈 벽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 집단 알리바이가 사실상 모든 사람을 덮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시 극장에 있던 배우는 네 명뿐이었습니다. 하인도 거의 없었고, 유일한 정문을 지키는 노년 샘과 마로니 양의 문을 지켰던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용의자는 우리 둘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체를 발견했으니, 우리가 범인이라고 의심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눈을 떼는 사이 당신이 그를 죽인 것은 아니죠?”

자비스가 고개를 들어 깜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시 그의 어두운 얼굴에 넓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범인이 아니야.”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잠시 논리를 위해,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무대 쪽 사람들은 이미 밖으로 나갔으니, 남은 용의자는 문이 잠긴 방 안의 시노라, 다른 쪽 문 지킴이,

그리고 올드 샘뿐이야. 아니면 그 박스석의 두 부인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물론 그들 역시 박스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있지.”

“아닙니다.” 자비스가 말했다. “나는 그 알 수 없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나타나서 맨데빌에게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말했죠.”

“아마도 그랬겠죠.” 사제가 말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는 이번에는 남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소리에 놀란 동료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가 말했죠,” 그가 낮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아내가 두 번째 아내를 질투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 여자는 이탈리아 소녀나, 아니면 미리엄 마든 부인에게 질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아내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아니란 거죠?”

“다른 아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만델빌 씨는 중혼은커녕, 오히려 매우 철저한 일부일처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두 그녀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가 살해당했을 때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 시간 내내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역을 맡아 말이죠…….”

“정말, 그 남자를 유령처럼 괴롭히던 이상한 여자가 우리가 아는 맨
더빌 부인이라는 뜻이요?”

자비스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브라운 신부는 공허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표정은 거의 멍청이처럼 비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 가
장 날카로운 통찰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멍청해 보이는 얼굴을 짓곤 했
다.

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었다. 얼굴은 매우 당황한 기색이
있고, 초조함이 가득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나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드빌
부인에게 잠시 혼자 대화할 수 있는지 여쭙봐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자비스가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왜 그래?”

“그건 그냥 본디부터 바보였기 때문이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증상이죠. 제가 그 연극이 <스캔들의 학교>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갔다. 그러자 자비스가 다시 문턱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고, 심지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디를 뒤져도 그녀가 안 보여요.”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노먼 나이트도 보지 못했다고요?” 브라운 신부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내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면담을 피할 수 있게 됐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여자를 무척 두려워했지. 하지만 그녀도 나를, 아니 내가 보거나 말한 어떤 것을 무서워했어. 나이트는 항상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치라고 조르곤 했거든. 이제 그녀는 그걸 실행에 옮겼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위한 것이오?” 자비스가 물었다.

“음, 살인자와 도망친다는 게 그리 좋은 일은 못 되겠지.” 다른 한 사람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살인자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였어.”

“그게 대체 뭐죠?”

“이기주의자였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기 전에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는 타입이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재앙이 바로 그런 짓이야. 거울이 그녀에게 불운을 가져다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깨져서가 아니었지. 오히려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자비스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가장 고결한 이상을 지닌 인물로 여겼습니다. 거의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분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그 생각에 빠뜨리는 법도 알고 있었다. 아마 내가 그녀를 충분히 오래 알지 못해 그녀를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지 오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챘다.”

“오, 제발요.” 자비스가 소리쳤다. “그녀가 그 이탈리아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여기 사람들 모두로부터 그녀의 교양과 섬세함, 그리고 가없는 맨더빌의 머리 위를 날아오르는 영적인 고결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과 섬세함은 결국 단순한 사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녀는 분명히 숙녀였고, 그는 확실히 신사가 아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성 베드로가 천국의 문에서 그 사실만을 유일한 심판 기준으로 삼을지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머지로 말하자면,” 그는 점점 더 흥분한 어조로 이어갔다. “그녀가 처음 내뱉은 말부터 나는 그녀가 그 차가운 아량의 그럴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없는 이탈리아 여자에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스캔들의 학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는데, 제가 따라가기 힘드네요.” 자비스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 연극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음,” 신부가 말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주인공 역을 그 소녀에게 주고, 자신은 중년 부인 역으로 뒷전에 물러났다고 했다. 그 말은 어떤 연극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연극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다. 그녀가 말한 것은 다른 여배우에게 마리아 역을 줬다는 뜻일 뿐이다. 마리아 역은 거의 대사가 없는 조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녀가 ‘소외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기혼 여성’이라고 말한 그 역할은, 여배우들이 모두 연기하고 싶어 하는 유일한 역할인 레이디 티즐 역일 것이다. 만약 그 이탈리아 여배우가 일류 연기를 하는 배우였고, 일류 역할을 맡을 것을 약속받았다면, 그녀의 광적인 이탈리아식 분노에는 어느 정도 변명거리가, 혹은 적어도 원인이 있었다. 광적인 이탈리아식 분노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라틴 민족은 논리적이며, 미친 데에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단서가 그녀의 자비로움 뒤에 숨겨진 의미를 내게 비춰주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사실이 있었다. 샌즈 부인의 불쾌한 표정이 ‘인물 묘사의 모범’이라고 내가 말했을 때, 너는 웃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샌즈 부인의 인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만약 한 부인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녀를 보지 마라. 그녀는 너보다 더 교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 주변 남성들을 보지 마라. 그들은 그녀에게 너무 어리석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 주변에 늘 함께 있는, 특히 그녀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다른 여성

을 보라. 그 여성의 거울 속에 그녀의 진정한 얼굴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샌즈 부인의 거울에 비친 얼굴은 매우 추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정황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가엾은 늙은 멘데빌이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가 그녀에게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였고, 저는 그 소문이 간접적으로 그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말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지적 고독감을 모든 남자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도 그녀가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불평하지 않는 침묵이 영혼을 단련시킨다’는 인용문을 들추어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스타일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이고 기독교적인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악마입니다. 스토이시즘의 그 거만한 태도가 바이런식 사탄 숭배의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녀가 구체적으로 불평할 만한 사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술을 마셨다거나, 때렸다가, 돈을 주지 않았다가, 심지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회견에 대한 루머가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 회견들은 단지 그녀가 남편의 사무실에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퍼붓던 그녀의 멜로드라마적 습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퍼뜨린 순교자 같은 분위기적 정황을 제쳐두고 사실만 보면,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멘데빌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팬터마임으로 돈을 버

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고전 연극으로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대 장치와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셰리던의 희곡을 원했고, 그 희곡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레이디 티즐 역을 원했고, 그 역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특정 시간에 의상 없이 리허설을 원했고, 그 리허설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점을 원했다는 기묘한 사실에 주목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런 장황한 변론이 무슨 소용이죠?” 배우가 물었다. 그는 신부가 이렇게나 긴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이런 심리학적 논쟁을 하다 보니 살인 사건과는 점점 동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이트와 도주했을 수도 있고, 랜들을 속였을 수도 있으며, 저를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전체 동안 그녀가 무대에 서 있었다는 데 모두 동의하니까요. 그녀는 악랄할지 몰라도 마녀는 아닙니다.”

“글쎄,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말게.” 브라운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경우 마술 같은 수단을 쓸 필요가 없었네. 내가 이제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그 방법은 정말로 간단했어.”

“왜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자비스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연극이 《스캔들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 작품의 특정 장면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가구를 언제나 마음대로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 무대는 판토마임용으로 지어졌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트랩도어나 속임수 출구 같은 장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격자들이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있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캔들의 학교》의 주요 장면 중 하나에서는 주요 배우 중 한 명이 상당 시간 동안 무대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무대 위에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벗어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레이디 티즈일의 커튼 뒤 숨는 공간이고, 맨더빌 부인의 알리바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배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스크린 뒤의 함정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 아래층에 매니저 방이 있었고요.”

“물론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가장 유력한 추측이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녀가 의상을 입지 않는 약식 리허설을 기회로 삼았다는 점, 심지어는 그 연습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약 의상을 갖춘 정식 리허설이었다면 18세기풍의 후프 스커트를 입은 채 함정문을 통과하기는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작은 난관들이 여러 가지 있죠.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차례차례 그 난관들도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큰 난관이 있군요.” 자비스가 한숨 섞인 듯한 소리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괴며 말했다. “저렇게 빛나고 평온한 존재가, 말하자면 육체적 균형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 균형 따위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녀를 움직일 만한 동기가 정말로 강력했을까요? 그녀가 나이트를 정말로 깊이 사랑했을까요?”

“그런 뜻이길 바랄 뿐입니다.” 동료가 대답했다. “사실 그게 가장 인간적인 변명이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녀는 시골 냄새 물씬 나는 구시대적 배우인 남편을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죠. 그녀는 빛나는 배우의 아내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스캔들의 학교》 같은 연극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서는 다른 남자와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게 사랑 같은 뜨거운 정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체면’이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비밀리에 쫓아다니며, 이혼하거나 어쨌든 자리를 비워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가 거부하자, 결국 그 거부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식인들(highbrows)이 더 높은 예술과 더 철학적인 연극을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의 철학이 대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최고의 것’ 앞에 보여주는 행실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권력의 의지’라든가, ‘살 권리’, ‘경험할 권리’ 따위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주받을 헛소리입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을 헛소리요, 더 나아가 영혼까지 저주할 수 있는 헛소리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좀처럼 그러는 일이 없는데도 얼굴을 찡그렸다. 모자를 쓰고 밤거리로 나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보드레이의 사라짐

아서 보드레이 경은 연회색 여름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색 머리에 하얀 모자를 썼는데, 그는 그 모자를 거침없이 즐겨 썼다. 그는 강가 길을 따라 자신의 집에서 작은 주택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던 중이었다. 그 작은 주택군은 그의 본가에 거의 부속건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그 작은 마을로 들어섰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요정들에게 납치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사건의 현장은 너무나 평범했고, 문제의 조건은 극도로 단순했다. 그래서 사라짐이 더욱 완고하고도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이 작은 마을은 엄밀히 말해 마을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사실은 네다섯 개의 가게가 늘어선, 기묘하게 고립된 한 줄기 길에 불과했다. 그 길은 넓고 트인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근의 몇몇 농부들과 큰 저택에 사는 일가 외에는 필요로 하지 않을, 최소한의 가게들뿐이었다.

길 끝에는 정육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아서 경을 본 사람이 있었다.

그를 본 이는 두 명의 젊은이었다. 하나는 그의 비서로 일하는 에반 스미스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양녀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존 달몬이었다.

정육점 옆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곳이었다. 여기서는 한 노파가 사탕, 지팡이, 골프공, 껌, 실뭉치, 그리고 색이 바랜 편지지를 팔았다. 그 가게 너머에는 담배 가게가 있었다. 아서 경이 정육점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두 젊은이는 바로 그 담배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담배 가게 뒤로는 두 명의 숙녀가 운영하는, 음침한 작은 재단사가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들을 향해 창백하고 윤기 나는 레모네이드가 가득 담긴 큰 잔을 내미는 가게가 그 건물의 끝을 장식했다.

이 일대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번듯한 여관은, 본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여관과 이 작은 마을 사이에는 네거리가 있었다. 그곳에는 경찰 한 명과 모터클럽 소속의 제복 차림 관리인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서 경이 그 지점을 지나간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날은 한창 빛이 찬란했던 여름 아침이었다. 노신사가 활기차게 길을 걷고 있었다. 지팡이를 흔들며 노란 장갑을 날리는 모습이 유쾌해

보였다. 그는 꽤나 단정히 차려입은 분이였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운 넘치고 단단한 체격을 가졌다. 그의 신체적 힘과 활동성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였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희미한 노란빛이 도는 하얗기까지 했다. 수염을 깨끗이 민 얼굴은 잘생겼으며, 웰링턴 공작처럼 콧날이 오뎝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단순히 비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다. 돌출되어 거의 튀어나올 듯한 눈은 그의 얼굴에서 유일한 불균형처럼 보였다. 반면 입술은 민감해 보였고, 의지적으로 조인 듯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는 이 땅의 영주였으며, 작은 마을의 주인이었다. 그런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특정 순간에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다. 보통이라면 아서 경은 마을까지 걸어가서, 도축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 정도면 대략 반 시간이면 충분했다. 담배를 사러 갔던 두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눈에 띄는 사람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손님, 즉 아벗 박사뿐이었다. 그는 등을 보이고 참을성 있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세 명의 손님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지주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하루가 흘러가고, 지주가 한 끼를, 또 한 끼를 놓치는 상황이 계속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안의 여주인인 사이빌 라이는 심각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마을로 정탐대를 보내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지만, 지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어둠이 내리자, 집안은 뚜렷한 공

포감으로 가득 찼다. 사이빌은 과거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브라운 신부를 불러들였다. 그는 사이빌의 친구였다. 명백한 위기가 닥친 지금, 그는 집안에서 밤을 새우며 사태의 해결을 돕기로 동의했다.

새날이 밝아왔지만, 소식이 없었다. 브라운 신부는 일찍부터 일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강가에 독을 쌓은 정원의 길에서 그의 검은색의 뚱뚱한 몸매가 보였다. 그는 짧은 시야와 다소 흐릿한 눈으로 주변 경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제방을 따라 또 다른 인물이 더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스미스 비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에반 스미스는 키가 크고 금발의 청년이었다. 그토록 어수선했던 시간대에 어울리듯,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언제나 그의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그가 지닌 신체 조건이 그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운동선수처럼 팔다리가 길고 균형 잡힌 자세를 하고 있었으며, 사자처럼 풍성한 금발과 수염을 자랑했다. 소설에서는 물론 때로는 현실에서도, 그런 외모는 ‘영국의 청춘’ 특유의 정직하고 명량한 태도와 함께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에반의 경우 달랐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구렁처럼 어둡았고, 얼굴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초채함을 띠고 있었다. 낭만적인 소설

에서 흔히 묘사되는 키 크고 금발의 전형적인 모습과 달리, 그의 외모는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풍겼다.

브라운 신부는 그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은 뒤,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참으로 고역이군.”

“라이 양에게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젊은이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달몬과 약혼했다 해도,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감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놀라셨나요?”

브라운 신부는 크게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하기 일췌였지만, 그는 다만 부드럽게 말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녀의 초조함에 공감합니다. 그 일과 관련해 당신도 별다른 소식이나 견해는 없습니까?”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스미스가 대답했다. “적어도 외부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견해 같은 건…….” 그러자 그는 다시 우울한 침묵에 빠졌다.

"당신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작은 신부가 온화하게 말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도 될지 걱정입니다."

젊은 남자는 흠칫 놀라기보다는 몸을 뒤척였다. 그는 사제를 똑바로 바라보며, 함몰된 눈이 짙은 그림자에 잠기도록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말해야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같군요.”

“아서 경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태도가 너무도 평온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네,” 비서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아서 경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침이군요.” 그의 귓가에 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소 우울한 만남에 어울리는 아침이지요.”

이때, 이미 강렬한 햇살이 내리쬘고 있었지만, 애벗 박사의 큰 그림자가 비서의 발길 앞에 드리우며 그가 펄쩍 뛰어올랐다. 충에 맞은 듯 놀란 반응이었다.

애벗 박사는 아직 목욕 가운을 걸친 채였다. 화려한 동양풍의 가운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용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는 마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꽃밭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크고 평평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아마도 그 덕분에 그는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보통이라면 그는 그런 가볍고 경쾌한 접근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일 터였다. 그는 매우 크고 넓으며 무거운 사내였기 때문이

다. 그의 얼굴은 힘차고 자비로워 보였으나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다. 고풍스러운 회색 수염과 턱수염이 그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수염은 풍성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존경할 만한 노인의 회색 곱슬머리처럼 보였다.

그의 길게 찢어진 듯한 눈은 다소 졸려 보였다. 사실, 그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노신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건장하고 풍파에 시달린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마치 모든 날씨를 겪어본 노농부나 선장처럼 보였다.

그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지주의 유일한 옛 친구이자 동년배였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작은 집들은 인형의 집과도 같아요. 앞뒤로 완전히 뚫려 있어, 설령 숨기고 싶어도 숨길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숨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달몬과 제가 모두를 심문했거든요. 대부분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할 노파들입니다. 남자들은 거의 모두 수확하러 나갔고, 정육점 주인만 남았죠. 그리고 아서도 정육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강가 그 구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종일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스미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긴 눈동자에 담긴 시선은 잠시 동안, 단순한 즐림을 넘어 약간의 교활함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과 달몬이 증언할 수 있겠소.”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이나, 내내.”

“네.” 에반 스미스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길게 이어진 이 방해에 대해 다소 성급해 보였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애벗 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곧 다른 방해에 의해 끊겨 버렸다.

화창한 꽃밭 사이로 초록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볍지만 단단한 체격의 인물이 매우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존 달몬이 그들 사이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피부는 다소 까맣게 탄 편이었다. 매우 단정하고 나폴레옹 풍의 사각형 얼굴에, 매우 슬픈 눈을 가졌다. 그 눈의 슬픔은 마치 죽은 듯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아직 젊어 보였지만, 검은 머리는 꽤 이르게 관자놀이 주변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방금 경찰로부터 전보가 왔소.” 그가 말했다. “어젯밤에 그들에게 전보를 쳤더니, 당장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더군. 애벗 박사, 혹시 우리도 불러야 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아시오? 가족 같은 분들, 그런 쪽으로요.”

“그에게는 조카 버넌 보드리가 있지요.” 노인이 말했다. “저와 함께 오시면, 그의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애벳 박사와 달몬은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자, 브라운 신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죠?”

“당신은 참으로 차분한 분이시군요.” 비서가 말했다. “고해성사를 듣다 보니 그런 기운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곧 고해성사를 하려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한 늙은 꼬끼리가 뱀처럼 슬그머니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이는 그 기이한 존재에 놀라 자신감 같은 것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이대로 계속해야겠군요. 비록 제 고해가 아니라 남의 고해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눈썹을 찌푸리고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는 아서 경이 도망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고 있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다시 폭발했다.

“나는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였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주 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요. 이제 나는 간사하고 비열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텐데, 나는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믿고 있소.”

“당신은 판사이시군요.”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의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라이벌, 그것도 성공한 라이벌을 고발하는 아주 불쾌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는 도대체 다른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드레이의 실종에 대한 설명을 묻더군요. 저는 달몽이 그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르몽이 아서 경을 죽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부는 태연하게 물었다.

“아니!” 스미스가 놀라울 정도로 격렬하게 외쳤다. “아니, 백 번이라도 아니라고! 그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했든 간에 말이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말이다. 그는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 그를 미워하는 한 남자의 증언이라는 증거 말이다. 나는 달몽을 사랑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법정에서든 나는 그가 어제 노인을 해치지 않았다고 증언할 수 있다. 달몽과 나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그날의 대부분을 말이다. 그리고 그가 마을에서 한 일은 담배를 사는 것뿐이었다. 여기에서 한 일은 담배를 피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뿐이었다. 아니, 나는 그가 범죄자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보드레이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더 말해도 좋다. _그가_ 범죄자이기 때문에 보드레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네,” 다른 한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요,” 비서가 대답했다.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는 보드레이를 살려두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시빌 라이에 대해 잘 알고 있소. 그녀의 인물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이루지. ‘훌륭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지. 하나는 품성이 고결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질감이 너무도 섬세하다는 것이오. 그녀는 습관이나 굳은 상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지나칠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 중 하나야. 거의 광기에 가까운 민감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이기적이지 않지.

그녀의 역사는 흥미로워. 고아처럼 완전히 무일푼으로 남겨졌을 때, 아서 경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대해줬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이지. 노인을 타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의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열일곱 살쯤 되었을 때, 충격적인 해명이 찾아왔어. 그녀의 보호자가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한 거야.

이제 이야기의 가장 기묘한 부분으로 넘어가자. 시빌은 누군가로부터, 아마도 애벗 노인에게서 들었을 텐데, 아서 보드레이 경이 젊은 시절 방종한 시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적어도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무엇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건 그녀가 감성적으로 순진하던 시절에 악몽과도 같았고, 그를 괴물처럼 보이게 했어. 적어도 결혼이라는 밀접한 관계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녀가 취한 행동은 그녀의 성격을 극적으로 보여줘. 무력한 공포와 영웅적인 용기를 섞어, 떨리는 입술로 진실을 그에게 고했어. 자신의

혐오감이 병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며, 마치 비밀스러운 광기처럼 그것을 고백했지. 안도감과 놀라움에 그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 그의 관대함에 대한 그녀의 감사는 다음 전개로 더욱 커졌지.

그녀의 외로운 삶에 또 다른 외로운 남자의 영향력이 들어왔어. 그는 강 중의 한 섬에서 은자처럼 야영하고 있었지. 그 비밀이 그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을 거야. 인정하건대 그는 본래부터 매력적이었어. 신사적이고 유머러스하면서도 매우 우울했지. 아마도 그 우울함이 로맨스를 더 부각시켰겠지. 물론 그 남자는 달몬이었어.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녀가 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확신이 서지 않소. 하지만 그 관계는 그가 그녀의 보호자를 만나겠다는 허락을 받을 때까지 진행되었지.

그녀가 그 면담을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기다렸을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소. 늙은 구혼자가 경쟁자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하며 말이야. 하지만 여기서도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불의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었지. 그는 젊은 남자를 정중한 환대로 맞이했고, 두 젊은이의 장래를 기뻐하는 듯했어. 그는 달몬과 함께 사냥과 낚시를 하며 최고의 친구가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

대화 중 달몬이 실수로 내뱉은 한 마디, ‘그 노인은 서른 해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소’라는 말 때문이었지. 기묘한 친밀감의 진실이 그녀에게 번개처럼 내려앉았어. 그 모든 소개와 환대는 가면무도회에 불과했

어. 두 남자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지. 그래서 젊은 남자가 그 지역으로 은밀히 내려온 것이었고, 노인이 그 결혼을 성사시키려 그렇게 쉽게 협조한 것이었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소?”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겠소.”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생각은 전혀 논리적입니다. 여기 보드레이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흥측한 일이 하나 숨어 있고, 그를 쫓아다니는 신비로운 낯선이가 있습니다. 그 낯선이는 보드레이로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평범한 말로 풀자면, 당신은 달몬이 협박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대답했다. “그런 생각은 정말 지저분한 것이죠.”

브라운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애벗 박사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두 시간 뒤, 그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는 애벗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 나온 이는 시빌 라이라는 창백한 소녀였다. 붉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에, 섬세하고 거의 떨리는 듯한 윤곽선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를 본 순간, 누구나 비서의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녀가 떨림 속에서도 얼마나 솔직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디바 공주나 순교한 처녀들의 전설

을 떠올리게 했다. 오직 수줍은 자들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토록 당당할 수 있다.

스미스가 그들을 맞으러 나섰다. 잠시 그들은 잔디밭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침부터 눈부셨던 날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듯 뜨거워졌고, 심지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하지만 브라운 신부는 검은 우산을 어깨에 멘 채,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을 막아 서기 위해 가슴까지 단추를 채워 입을 듯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태도의 무의식적인 효과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폭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모든 게 싫은 건, 벌써부터 이런 수군거림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의심 말이에요. 존과 에반은 서로를 믿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애벗 박사는 정육점 주인과 큰 소동을 벌였어요. 정육점 주인은 박사 자신을 의심하는 줄 알고, 오히려 역으로 박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반 스미스는 몹시 당황한 기색을 띠다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자, 시빌, 자세히는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그 모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네. 정말 끔찍한 일이긴 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폭력도 없었던 것 같아.”

“이제야말로 이론이라도 있으신가요?” 소녀가 즉시 신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도 그런 이론을 들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제게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더군요."

그는 강물을 향해 다소 몽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스미스와 시빌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급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신부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거의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가파른 언덕의 얇은 나무 숲으로 들어섰다.

강렬한 햇살이 춤추는 작은 잎들의 얇은 베일 위에 내리쬘었다. 그 잎들은 작은 녹색 불꽃처럼 반짝였고, 새들은 마치 그 나무가 백 개의 혀를 가진 듯 힘차게 지저귀었다.

몇 분 후, 에반 스미스는 수풀 깊은 녹색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돌아오는 브라운 신부를 만났다. 신부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여기 아래로 아가씨가 오지 못하게 해 주게. 어서 쫓아내게나 해. 전화라도 하라고 하고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에반 스미스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몸을 돌렸고,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남의 작은 일이라도 척척 처리해 버리는 타입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집 안으로 사라졌고, 스미트는 고개를 돌려 브라운 신부를 찾았다. 신부도 다시 덩불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무 무리 바로 옆에는 잔디가 꺼져 모래밭 높이로 내려앉은 작은 절벽 같은 곳이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그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

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한 햇볕이 머리를 내리쬘고 있었음에도, 그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게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증거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소.” 그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각오 단단히 하길 경고하오.”

“무엇에 대비하란 말인가?” 다른 쪽에서 물었다.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일 때문이죠.”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스미스도 잔디 둑 가장자리로 다가가려 했다. 그는 간신히 비명을 지르려는 본능을 억눌렀다.

아서 보드레이 경이 그를 올려다보며 노여움과 미소를 동시에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뒤로 젖혀져 있어, 누군가라면 그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얗고 노란빛이 도는 가발이 뒤로 흘러내린 채, 그는 거꾸로 된 시선으로 스미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경은 악몽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마치 머리가 몸통에 거꾸로 붙은 채로 돌아다니는 남자처럼.

그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보드레이 경이 정말로 들판과 제방의 틈바구니에 몸을 숨기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그들을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몸은 웅크리고 거의 구부정한 모습으로 보였다. 마치 불구이거나 기형인 것처럼.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뭉쳐져 쓰러진 팔다리의 원근법 때문에 생긴 착시에 불과했다.

그는 미친 걸까? 정말로?

스미스가 그를 더 오래 바라볼수록, 그 자세는 더 단단하고 경직되어 보였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이 베였소.”

스미스는 갑자기 오한이 일 듯 몸을 떨었다.

“당신이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일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마도 얼굴이 거꾸로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저 얼굴은 매일 아침 식사 때나 저녁 식사 때나, 십 년 동안이나 봐 왔습니다. 평소엔 아주 친절하고 정중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거꾸로 돌려 보니 악마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얼굴은 웃고 있었군요.”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것이 이 수수께끼의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목을 베이는 순간, 설령 스스로 그 일을 저지르더라도 많은 남자가 웃지는 않습니다.

그 미소와 함께, 늘 눈구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의 구스베리 같은 눈빛이 결합되었다면, 그 표정이 설명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물건을 거꾸로 보면 사물은 다르게 보입니다.”

화가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봅니다. 때로는 사물 자체를 거꾸로 뒤집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터혼 산 같은 경우를 들어봅시다. 그런 경우 화가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서거나, 적어도 다리 사이로 내려다보며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는 상대방의 신경을 안정시키려 경솔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더 진지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당황하셨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다른 것까지도 흔들고 말았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의 아주 완벽한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렸소.”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하며, 강가 모래사장 위로 언덕을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가 직접 저지른 일일지도 모릅니다.” 스미스가 불쑥 말했다. “결국 그것이 가장 명백한 탈출 방법이고, 우리의 가설에도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는 조용한 장소를 원했고, 이곳에 와서 자신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그는 여기로 오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적어도 살아서 온 것은 아니요, 육로를 통해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피가 너무 적거든요. 이 햇볕이 그의 머리카락과 옷을 이미 충분히 말려 놓았죠. 하지만 모래 위에는 물줄기 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쯤에서 바닷물이 밀려와 소용돌이를 이루며 시신을 개천으로 밀어 넣었고, 썰물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은 먼저 강을 따라 내려와야 했습니다. 아마도 마을에서부터일 것입니다. 강은 작은 집들과 가게들이 늘어선 줄 바로 뒤를 흐르니까요. 불쌍한 오드레는 어쨌든 그 작은 마을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한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오두막 같은 작은 곳에서 누가, 어떻게 그를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뭉툭한 우산 끝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상가 줄을 한 번 살펴볼까? 먼저 정육점이 있군. 물론 도살자는 큰 칼을 든 이상적인 범인처럼 보이지. 하지만 보드레이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잖아. 정육점이 ‘안녕하세요. 목을 베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건요?’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는 동안, 그가 밖에서 웃으며 서 있을 가능성은 낮아. 서 아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꽤 활한 미소를 띠고 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힘이 세고 기운이 넘쳤으며, 성미가 좀 급한 편이었지.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정육점주 말고는 누가 있겠어? 그다음 가게는 노파가 운영하고, 그다음은 담배 가게야. 담배 가게 주인은 분명 남자지만, 아주 작고 겁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다음은 노처녀 두 사람이 운영하는 양장점이고, 그다음은 병원 신세를 진 남자가 아내에게 가게를 맡긴 다과점이지. 마을 소년들 몇 명이 보조나 잡일을 했지만, 그들은 특별한 임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 다과점이 이 거리의 끝이고, 그 너머에는 경찰관이 서 있는 여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는 우산 끝의 금속 장식을 이용해 구멍을 뚫었다. 그것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강 위쪽을 응시했다. 그러다 그는 손을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는 재빨리 걸어가 시신 위로 몸을 굽혔다.

“아,” 그가 몸을 일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 가게였군! 대체 왜 그 담배 가게 이야기를 잊고 있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스미스가 성이 나서 물었다. 브라운 신부가 눈을 굴리며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담배 가게’라는 단어를 마치 재앙을 알리는 끔찍한 말인 양 내뱉었다.

신부가 잠시 후 물었다. “그 사람 얼굴에서 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상하다니, 맏소사!” 에반이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며 말했다. “어쨌든 그의 목이 베어졌어.”

“그의 얼굴을 말했지.”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게다가, 그 손이 다쳐서 작은 붕대를 감고 있는 것 보이지 않아?”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에반이 황급히 말했다. "그건 이미 전에 일어난 일이야. 완전한 우연이었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그가 깨진 잉크병으로 손을 베었거든."

"무언가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사제(신부)는 우울한 표정으로 모래사장을 따라 걸었다. 우산을 끌며 걸었고, 때로는 ‘담배 가게’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친구를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우산을 들어 갈대 숲 속의 보트 창고를 가리켰다.

“그게 그 집 보트인가요?” 그가 물었다. “강을 따라 배를 저어 주실 수 있나요? 뒷마당에서 저 집들을 살펴보고 싶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체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다시 말을 건네기 전, 스미스는 이미 작은 배를 몰아 시골 마을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자 신부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옛날 애베테게서, 불쌍한 오드레이의 그 잘못에 대한 진짜 사연을 알게 됐네. 꽤 흥미로운 이야기였어. 이집트 관리가 오드레이를 모욕했거든. 그 관리가 말하기를, ‘좋은 무슬림은 돼지와 영국인을 피해야 하지만, 그래도 돼지를 더 낮게 여긴다’는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련된’ 발언을 했다는 거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든, 수년이 지난 후 그 관리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분쟁은 다시 불붙었지. 분노한 오드레이는 그 남자를 시골 저택 부속 농장의 돼지우리까지 끌고가 집어넣었어.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대로 방치한 거지.

물론 그 일은 꽤 시끄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드레이가 애국심에서 나온 용서할 만한 격분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그 정도 사정이라면 치명적인 협박이 수십 년간 그를 침묵하게 만들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보시는군요?” 비서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제 그들은 낮은 담장과 강가로 내려다보는 가파른 뒷마당들을 지나 떠나고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우산으로 가리키며 하나씩 세어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당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담배상인! 혹시 그 담배상인이……. 하지만 일단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소. 다만, 아서 경의 얼굴에서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을 말해 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죠?" 동료가 물었다. 그는 잠시 노에 기댄 채 노 젓기를 멈추었다.

“그는 대단한 멋쟁이었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얼굴은 반쯤만 면도했어. 잠깐만 기다려 주겠나? 이 배를 저 기둥에 묶을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그들은 낮은 담장을 넘어 작은 정원으로 올랐다. 계단처럼 가파른 자갈길이 이어졌고, 그곳에는 사각형으로 잘 정리된 채소밭과 꽃밭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 담배 가게 주인은 감자도 재배하거든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윌터 롤리 경과 관련된 연유겠지요. 감자도 많고, 감자 자루도 많으니까요. 시골 사람들은 농부의 습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시다.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죠. 하지만 시골 담배 가게 주인은 종종 하나씩 더 특이한 일을 합니다. 저는 보드레이의 턱을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에 아홉은 그 가게를 ‘담배 가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발소’이기도 하죠. 손이 베어서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었던 그가, 그래서 여기로 올라온 겁니다. 그게 다른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암시하죠,” 스미스가 답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많은 것을 시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예를 들어, 목이 베였을 때에도 활기차고 다소 폭력적인 신사가 기쁜 미소를 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시사합니까?”

그들은 곧장 집 뒤쪽의 어두운 복도를 두세 개 지나쳐, 가게 뒷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과, 흐릿하고 금이 간 거울 하나에 비친 빛으로 간신히 밝아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수조(水槽) 속의 푸른 황혼 같았다. 하지만 이발소의 투박한 도구들은 뚜렷이 보였고, 그 사이에는 한 사내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이발사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에 질린 듯했다.

브라운 신부의 시선이 방 안을 두루 훑었다. 방은 방금 청소한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결국 문 바로 뒤쪽, 먼지가 쌓인 한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모자걸이에 모자가 걸려 있었다. 하얀 모자였다. 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낯익은 모자였다.

거리에서 늘 눈에 띄었던 그 모자였지만, 지금은 사소한 물건처럼 보였다. 바로 그런 사소한 것들을 남들이 가장 주의 깊게 바닥을 닦거나 얼룩진 천을 찢어 버릴 때, 어떤 종류의 남자들은 종종 완전히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어제 아침에 서 아서 보드리가 여기서 면도하셨죠, 제가 기억하거든요.” 브라운 신부는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이발사 워스는 작고 탈모가 심하며 안경을 쓴 사내였다. 그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갑자기 두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바닥 아래 무덤에서 두 유령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초자연적인 공포 이상으로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구석으로 몰려

났고, 거의 위축된 듯 보였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작아진 것 같았지만, 그의 거대한 괴물 같은 안경만큼은 예외였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 지주님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석에 있던 남자가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스미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증오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해 드릴까요?"

뒤쪽 부엌에서 시계 초침이 미세하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침묵을 채웠다. 그러자 브라운 신부가 말을 이었다.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달몬 씨가 당신 가게 앞문으로 들어섰을 때, 창문에 진열해 둔 담배를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점원들이 흔히 하듯, 당신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려고 잠시 밖으로 나섰죠. 그 짧은 순간, 달몬 씨는 안방에서 방금 내려놓은 면도기와 이발 의자에 앉아 있는 아서 경의 누런빛 머리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 너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에 둘 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순식간에 면도기를 집어 목을 베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면도기와 그 손에 놀라지조차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취해 미소 지으며 죽었죠. 그리고 그 생각이라니! 달몬 씨 또한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너무 빠르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

니다. 스미스 씨가 법정에서 두 사람이 항상 함께 있었다고 증언해도 믿을 만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매우 정당하게 놀랐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죠. 당신은 집주인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의자에서 자신의 면도기로 당신의 적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희망이 없다고 절망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죠. 바닥을 닦고, 시체를 밤에 감자 주머니에 넣어 강에 던졌습니다. 주머니 매듭은 느슨하게 묶어두었구요.

다행히도 당신의 이발소는 정해진 폐점 시간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신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자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음,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잊을 테니까요. 모자도 포함해서요.”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안쪽 가게를 지나 거리로 나섰다. 놀란 스미스가 그 뒤를 따랐고, 뒤에는 낮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 이발사가 남았다.

“보시오,” 브라운 신부가 옆사람에게 말했다. “이건 그런 경우 중 하나였소. 동기가 너무 약해서 사람을 유죄로 몰아세우기엔 부족하지만, 동시에 강해서 무죄를 입증하기엔 충분했던 사건이랄까.”

“그렇게 자그마하고 신경질적인 남자가, 돈 문제로 한바탕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덩치 큰 사내를 죽일 리가 만무하잖소. 하지만 그는 자

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타입이겠지.”

“아, 진짜 범인의 동기는 그와 완전히 달랐소.”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공허한 앞을 응시하며, 거의 노려볼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정말 끔찍하군.” 에반 스미스가 신음하듯 말했다. “고작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달몬을 협박꾼이요, 천박한 개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었는데, 그가 정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자니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신부는 여전히 일종의 몽롱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치 심연 아래를 내려다보며 넋을 잃은 사람처럼.

마침내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맹세라기보다는 기도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자비로우신 주님, 과연 얼마나 끔찍한 복수인가!"

친구가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했다.

“정말 끔찍한 증오의 이야기군. 한낱 유한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저지르는 복수라니. 우리는 끝없이 깊은 인간의 마음속, 그런 끔찍한 상상이 머무는 곳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를 교만으

로부터 구하소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저런 증오와 복수의 형상을 마음속에 그려낼 수가 없구나.”

“네, 맞습니다.” 스미스가 말했다. “그가 왜 하필 보드레이를 죽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달몬이 협박꾼이었다면, 오히려 보드레이가 달몬을 죽이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목을 베어 죽인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브라운 신부가 깜짝 놀라 눈을 깜빡거렸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 그건요!” 그가 급히 말을 고쳤다. “그건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끔찍한 복수의 이야기’라고 말했을 때, 이발소 살인 사건을 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건도 제법 끔찍하긴 했지만요. 다만 그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범행이었습니다. 거의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죠. 사실 그것은 거의 정당방위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소리요?” 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등 뒤로 다가와 목을 베었는데, 그 남자는 이발사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며 밝게 웃고 있었던 말ियो.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요!”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단지, 끔찍한 재앙—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다른 범죄입니다. 방금 당신이 물었던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협박범이 살인자일까요?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오해와 오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최근의 공포에 잠겨 있던 정신을 가다듬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러고는 평소와 같은 어조로 계속했다.

두 명의 남자가 함께 다니며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한 명은 나이 많고, 다른 한 명은 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밀함은 오래전부터 숨겨져 왔습니다. 한 명은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고 블랙메일(협박)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협박하는지 잘못 추측했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부자를 협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남자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서가 반박했다.

“그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 드문 일도 아니죠.” 상대가 대답했다. “현대 정치의 절반은 부자들이 사람들을 협박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두 가지 환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환상들 역시 모두 터무니없죠. 첫 번째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돈만을 위해 협박을 당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점입니다. 서 아서 보드레이 경은 탐욕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죠.”

“왜 존 달몬에게 복수를 계획해야 했을까?” 스미스가 물었다.

“그가 복수를 계획한 대상은 존 달몬이 아니었습니다.” 사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주제를 바꾼 듯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시체를 발견했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얼굴이 거꾸로 보였지. 그때 당신은 그 얼굴이 악마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했어.”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살인자도 그 얼굴을 거꾸로 봤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 이발사 의자 뒤로 다가오던 살인자가, 시체의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테니까.”

“그건 다 병적인 과잉 반응일 뿐이야.” 동료가 반박했다. “얼굴이 제 자리에 있을 때는 아주 익숙했거든.”

“아마도 그 그림을 바로 세워 본 적이 없으시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화가들이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말쯤은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아침과 차 시간 동안, 당신은 악마의 얼굴에 익숙해져 버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스미스가 재촉하며 물었다.

“나는 비유로 말하노라,” 상대방이 다소 어두운 어조로 답했다.

“물론입니다. 서 아서 경은 본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으로 향할 수도 있던 기질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커다랗게 부릅뜬 의심스러운 눈과, 굳게 다물렸으나 떨리는 입술은… 당신이 그것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상처가 아물지 않는 신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 아서 경의 마음도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는 마치 피부가 없는 듯했죠. 그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초조한 경계심을 지녔고, 그 긴장된 눈은 이기주의에서 오는 불면증처럼 떠 있었습니다.

민감함이 반드시 이기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빌 라이는 같은 얇은 피부를 지녔으면서도, 어딘지 성자 같은 존재가 되곤 하죠. 하지만 보드레이는 그것을 모두 독이 된 자존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자존심은 심지어 안전하거나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표면의 작은 긁힘 자국 하나하나가 고름으로 썩어갔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돼지우리에 사람을 던졌다는 옛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가 돼지라고 놀림을 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를 던져 넣었다면 그것은 용서할 만한 격분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돼지우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보드레이는 그 어리석은 모욕을 수년, 수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양인을 돼지우리 근처라는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끌

어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적절하고 예술적인 복수라고 생각한 것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그는 자신의 복수가 적절하고 예술적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스미스가 그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돼지우리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다른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목 소리에 스민 떨림을 억누르고 말을 이었다.

“형벌이 죄와 꼭 맞게 내려지는, 기이하면서도 인내심 넘치는 복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자. 보드레이를 모욕했거나, 그가 치명적인 모욕으로 여길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있었는가? 있었다. 한 여인이 그를 모욕했다.”

에반의 눈가에 희미한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었다.

아직 아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그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한때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집트인 사건으로 잠시 감옥에 갇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 광기가 그의 마음속 지옥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살인자와 결혼해야 해.”

그들은 큰 집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강가를 잠시 조용히 걸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보드레이는 달몬을 협박할 입장에 있었다. 달몬은 오래전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젊은 시절의 거친 동료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어딘지 구원할 만한 점이 있는 야만적인 범죄였을 것이다. 가장 야만적인 살인들조차 결코 가장 나쁜 것은 아니니까.

달몬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보드레이를 죽인 일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그는 보드레이의 손아귀에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소녀를 매우 교묘하게 약혼이라는 함정에 빠뜨렸다. 예를 들어 연인이 먼저 운을 시험해 보게 하고, 다른 한쪽은 화려하게만 부추기는 식이었다.

하지만 달몬 자신도, 악마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 노인의 마음속에 정말로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며칠 전, 달몬은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마지못해 따랐지만, 결국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어떻게 버려질지,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그는 서재에서 보드레이의 메모 몇 장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내용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는 전체 계획을 이해했고, 내가 처음 이해했을 때처럼 충격을 받았다.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순간, 신랑은 체포되어 교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교도소에 다녀온 남편을 싫어하는 신부는,

교수대에 오른 남편만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서 아서 보드레이가 생각한 이야기의 완벽한 마무리였다.

에반 스미스는 죽음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다. 멀리, 길 끝에서 그들은 아벳 박사의 큰 체구와 넓은 모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외형에서도 일종의 동요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종말론적인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증오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군요.” 에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안도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달몬이 두 번이나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 불쌍한 달몬에게 품었던 모든 증오가 사라졌거든요.”

그들은 나머지 거리를 침묵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덩치 큰 의사를 마주쳤다. 의사는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큰 장갑 낀 손은 절망적인 제스처로 뻗어져 있었다. 회색 수염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끔찍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서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원에서 숨진 듯합니다.”

“세상에,” 브라운 신부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존 달몬이 버논 보드레이, 즉 조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버

논 보드레이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달몬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세상에,”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정말 이상하군!”

VI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브라운 신부는 그림 갤러리를 거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사실 그는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림 자체는 싫어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거기에 걸린 그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적이거나 부적절했던 것은 아니다. 현대적 기하학적 형태, 즉 끊어진 나선형, 거꾸로 된 원뿔, 부러진 실린더들이 가득한 그 미래지향적인 작품들을 보고 pagan(이교도적)인 열정에 불타오를 사람은 드물 것이다. 미래의 예술이 인류를 영감으로 채우거나 위협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사실 브라운 신부는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친구를 찾고 있었다. 그 친구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 만남의 장소를 정했는데, 그녀가 본질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젊은 친구는 동시에 그의 젊은 친척이기도 했다. 그가 가진 몇 안 되는 친척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페인(Elizabeth Fane)이었지만, 베티(Betty)라고 불렸다. 그녀는 세련되지만 가난한

지주 집안과 결혼한 자매의 딸이었다. 지주도 이미 죽었고 가난도 여전했기에, 브라운 신부는 그녀에게 사제이자 보호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자이자 삼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브라운 신부는 갤러리의 군중들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익숙한 갈색 머리와 밝은 얼굴을 가진 조카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중에는 취향상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다.

신부가 알지 못하면서도 흥미를 느낀 사람 중에는 날렵하고 눈치가 빠른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매우 정교하게 차려입었고, 외국인처럼 보였다. 수염은 오래된 스페인인처럼 삼 모양으로 깎았지만, 머리카락은 검은 두건처럼 짧고 뻣뻣하게 다듬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부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매우 위압적인 인상을 풍기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렬한 진홍색 옷을 입고 있었고, 금발 머리는 짧다고 부르기엔 너무 길었고, 그렇다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엔 너무 험령했다. 그녀는 창백하고 다소 불건전한 피부색의, 힘세고 다소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를 바라볼 때면 바실리스크의 매혹적인 눈빛을 부렸다.

그녀 뒤에는 작은 키에 큰 수염을 기른, 매우 넓은 얼굴을 가진 남자가 따라붙었다. 그의 눈은 길고 졸린 슬릿 모양이었다. 그의 표정은 반쯤 깨어 있는 상태라면 환하게 빛나고 자비로웠지만, 황소 같은 그의 목은 뒤에서 볼 때 다소 잔인해 보였다.

브라운 신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며, 조카가 나타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웬지 모를 이유 때문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내 ‘누구라도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때 그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돌렸고,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얼굴은 선명했지만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랜비라는 변호사의 얼굴이었다. 그의 회색 머리카락 무더기는 가발에서 날린 가루처럼 보였다. 그의 움직임이 가진 청춘의 에너지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시티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사무실 안팎으로 소년들처럼 뛰어다녔다. 그는 유행하는 그림 갤러리를 그런 식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보였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을 두리번거리며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초조해 보였다.

“새로운 예술의 후원자라니, 저는 몰랐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줄은 몰랐소.” 다른 한 사람이 쏘아붙였다. “나는 여기에서 한 사내를 잡으러 왔소.”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저도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으로 지나간다고 했지,”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 골치 아픈 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겠냐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봐라, 너는 비밀을 잘 지킬 줄 안다. 존 머스그레이브 경을 아느냐?"

“아니요.” 사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비밀에 싸인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록 성 안에 숨어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 즉 성문과 인양식 다리가 있는 탑에 살며 대체로 중세 시대로부터 나오지 않으려는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인가요?”

“아니,” 그랜비가 짧게 잘라 말했다.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머스그레이브 대위가 우리한테 온 거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아. 나는 그 노인을 모르거든. 그게 문제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친구를 옆으로 끌어냈다. 두 사람은 비교적 한산한 측랑으로 들어섰다. 여기에는 실제 사물들을 재현한 다양한 전 시물들이 놓여 있었다.

“이 젊은 머스그레이브는 노섬벌랜드의 아버지에게 사후 채권을 발행해 우리에게 큰돈을 뜯어내려 하네. 노인은 이미 일흔이 넘었으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지. 하지만 문제는 그 ‘사후’ 이후야. 그의 현금과 성채, 그리고 성문의 쇠창살 같은 재산들은 어떻게 될까? 그 유산은 정말 훌륭한 고가(古家)의 재산이라 여전히 막대한 가치가 있지만, 놀랍게도 상속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보이겠지. 문제는 디킨스의 인물처럼 말하자면, 노인이 자손들에게 관대한가 하는 거야.”

"그가 아들에게 우호적이면, 당신도 더 우호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머스그레이브
경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를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점에 대한 답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분이 한 푼만 받고 상속에서 끊길 사람인가요?"

"글쎄, 난 의문이군."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는 매우 인기 있
고, 빛나며, 사회에서 큰 인물이야. 하지만 그는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고, 전직 기자였거든."

"글쎄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건 항상 범죄라고 볼 수는 없
죠. 적어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랜비가 짧게 잘라 말했다. "내가 무슨 뜻
인지 아시죠.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기자도 하고 강연자도 했으며
배우도 했죠. 그러니 내가 그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아, 저기 그가 있네요."

변호사는 좀 더 비어 있던 복도에서 답답하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
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사람이 더 많은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짧게 자른 머리와 이국적인 수염을 가진,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
려입은 젊은 남자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잠시 후, 시력이 짧아 눈썹을 찌푸리고 있던 브라운 신부는 그들을 시선으로 따라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험뎁이며, 심지어는 시끄럽기까지 한 조카 버티의 도착에 의해 급히 거뒀졌다.

삼촌으로서는 다소 놀랍게도 버티는 그를 더 비어 있는 방으로 다시 데려가, 바닥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놓인 의자 위에 그를 앉혔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신부님을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 일, 즉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군사들이 말하는 ‘일반 전투’ 같은 건 아니죠.”

“알고 계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저를 머스그레이브 대위와 약혼하게 하려 한다는 걸.”

“저는 아니에요.” 브라운 신부가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머스그레이브 대위가 요즘 꽤 화제인 모양이군요.”

“물론 우리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브라운 신부가 눈꺼풀을 살짝 내린 채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찡그렸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방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럼 다 말해 줘.”

“그가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훌륭한 사회적 예절이죠.” 그가 답했다.

“이해 못 하신다고요,” 소녀가 말했다. “그건 전혀 사교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핵심이었죠. 사교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아주 일찍 여기 왔습니다. 그때 그 새 그림들이 걸린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나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음, 놀랄 일도 아니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저는 미술 비평가가 아니지만,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아니, 당신도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녀는 거의 화가 난 듯 말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림을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천장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안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신부는 일어나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손은 등 뒤로 꼬고 있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성급해선 안 됩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에 대해 논하기에는 이르군요. 자, 바로 오시니.”

머스그레이브 선장이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미소로 방 안을 훑었다. 그 뒤를 이어 변호사 그랜비가 들어섰다. 그의 법조인 특유의 얼굴에는 전에는 없던 안도감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선장에 대해 제가 한 말은 모두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문 쪽으로 살며시 걸어가며 말했다. “그는 아주 상식적인 분이예요. 제 생각도 잘 이해하더군요. 자기가 왜 북쪽으로 가서 그의 노부를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고, 직접 저에게 물으더군요. 유산 문제는 그 노인의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 더 공정한 말이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해서, 자신의 차로 머스그레이브 모스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 저택 이름입니다. 제가 만약 그

가 그렇게 친절하다면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수다를 떨던 차에, 버티와 선장이 함께 문간으로 들어섰다. 그들 두 사람이 문틀 안에 서 있는 모습은, 누군가라면 감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원뿔이나 원기둥 같은 기하학적 형태보다 더 나아라고 여길 만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비록 그들 사이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든 간에, 두 사람 모두 매우 잘생기고 아름다웠다. 그 변호사는 이 사실에 대해 한 마디의 평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그림은 급격하게 변해 버렸다.

제임스 머스그레이브 선장은 메인 갤러리를 향해 내다보았다. 그의 웃음과 승리의 빛이 서려 있던 눈이,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은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브라운 신부는 다가오는 전조 같은 그림자 아래 있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붉은 옷을 입은 그 큰 여자의, 낮아지고 거의 푸르스름해진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사자 같은 노란 머리카락 아래에서였다.

그녀는 늘 소가 뿔을 낮추는 듯한, 살짝 굽은 자세로 서 있었다. 창백하고 반죽 같은 그녀의 얼굴 표정은 너무도 압도적이고 몽환적이어서, 그녀 곁에 서 있는 수염 많은 작은 남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머스그레이브가 그녀 쪽으로, 방 한가운데로 다가가고 있었다. 마치 걸어 다니도록 시계가 감겨 있는, 옷차림이 아름다운 왁스 인형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함께 돌아서서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마치 논쟁이라도 하듯, 턱수염을 기른 짧고 투박한 목을 가진 남자가 뒤를 따랐다. 그는 마치 기괴한 고블린 시종처럼 보였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브라운 신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저와는 친구가 아닙니다. 다행이죠.” 그랜비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와 잠깐 시시덕거리기만 해도 치명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녀에게 구애하는 건 아닌 것 같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 무리는 복도 끝에서 흩어졌다. 머스그레이브 대위가 급한 걸음으로 그들 쪽으로 돌아왔다.

“잠깐만요.” 그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그의 안색이 변한 듯했다. “그랜비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일 북쪽으로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제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런던에 며칠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원하시면 친구를 한 명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제 친구인 브라운 신부님이라면----”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만약 머스그레이브 선장이 정말로 그렇게 자비로우시다면,”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그랜비 씨의 조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제가 갈 수 있다면, 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한 신부와 한 변호사가 요크셔의 황야를 북쪽으로 달리는 매우 우아한 차를 타고, 그에 못지않게 우아한 운전기사의 조종을 받으며 이동하게 되었다. 신부는 마치 검은색 뭉치처럼 보였고, 변호사는 남의 바퀴가 아닌 자신의 발로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서부 지역(West Riding)의 큰 계곡 중 한 곳에서 여정을 즐겁게 끊었다. 편안한 여관에서 식사를 하고 묵은 뒤, 다음 날 일찍 출발해 노섬브리아 해안을 따라 달렸다. 그러다 모래 언덕과 거친 바다 초원이 미로처럼 펼쳐진 땅에 도착했다. 그 한가운데에는 옛 국경 전쟁의 독특한 동시에 신비로운 기념비로 남아 있던 오래된 국경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해안에서 안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해협의 옆길을 따라 성에 도착했다. 그 길은 결국 성의 해자를 끝으로 하는 거친 운하 같은 형태로 끝이 났다. 성은 정말로 성이었다. 갈릴리에서 그램피언스 산맥까지 노르만인들이 곳곳에 세웠던 네모반듯하고 성벽이 있는 평면의 성이었다. 성문과 들어올릴 수 있는 다리가 정말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 진입이 지연되는 사고를 통해 그 사실을 매우 현실감 있게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길고 거친 풀과 엉겅퀴 사이를 헤치고, 못의 독으로 걸어들어갔다. 못물은 죽은 낙엽과 이끼 낀 거품으로 뒤덮인 채, 검은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다. 마치 황금 문양이 박힌 흑옥처럼 보였다.

검은 리본에서 겨우 일보, 이보쯤 더 나아가면 다른 쪽 푸른 독과 대문 앞의 큰 돌기둥들이 보였다. 하지만 이 외로운 요새는 바깥에서 거의 접근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조바심 내던 그랜비가 성문 너머의 흐릿한 그림자들 쪽으로 외쳤을 때, 그들은 거대한 녹슨 들어올리게 다리를 내리는 것조차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위에 거대한 탑이 넘어지듯 회전하며 내려왔지만, 이내 멈춰 섰다. 위협적인 각도로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 버린 것이다.

조급한 그랜비는 강둑 위를 서성이며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니!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덜 귀찮을 지경이에요.”

그는 특유의 거침없이 몸을 던졌다. 안전지대인 안쪽 강가에서 살짝 비틀거리며 착지했다. 브라운 신부의 짧은 다리는 도약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인내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진흙탕에 풍당 빠지는 일에 더 잘 적응되어 있었다. 동료가 재빨리 끌어준 덕분에 그는 너무 깊게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푸르고 미끄러운 강둑을 끌어올리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이고 풀밭 경사면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멈춰 섰다.

“식물 채집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그랜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동안 바다 속 보물들을 찾아 헤매다가 물에 젖은 몸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이제야 귀중한 식물 따위 모을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자, 진흙이 묻었든 말든, 이제 준남작 앞에 나가 인사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유일한 하인 한 명이 그들을 맞았다. 그는 예의 바르게 그들을 맞이한 뒤, 용건을 묻자 곧 오래된 양식의 격자창이 달린 긴 참나무 판벽 방으로 안내했다. 어두운 벽면에는 여러 세기에 걸친 무기들이 균형 잡힌 배열로 걸려 있었고, 큰 벽난로 옆에는 14세기의 완전한 갑옷이 보초병처럼 서 있었다.

그 방 너머의 또 다른 긴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면, 가족 초상화가 줄지어 걸린 어두운 색채의 풍경이 보였다.

“집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것 같군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우돌포의 신비’ 같은 고전 미스터리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 노신사는 확실히 역사에 대한 미련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군요.” 사제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짜도 아닙니다. 중세 사람들이 모두 한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리 없죠. 때때로 서로 다른 부품을 섞어 갑옷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갑옷은 한 사람을 완전히 감쌀 수 있을 만큼 온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걸 후기 마상창시합용 갑옷이거든요.”

“대화가 좀 늦게 시작되는 타입이군.” 그랜비가 투덜거렸다. “정말 오랜 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드느군.”

“이곳 같은 데서는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게 당연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가 우리를 만나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그러우신 거예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와 사적인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집주인이 나타나자, 그들은 대접에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전통적인 예절과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예절은 야만적인 고독 속에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의 은둔과 우울함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품위를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

남작은 드문 방문에 대해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비록 그들은 그가 인생의 사분의 일 동안 집에 낯선 손님을 들인 적이 없으리라 짐작했지만, 그는 마치 방금 전까지 공작부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매우 사적인 문제를 꺼냈을 때, 그가 부끄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잠시 여유 있게 생각하더니,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의 호기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의 마른 노신사였다. 검은 눈썹과 긴 턱을 가졌고, 조심스럽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확실히 가발이었지만, 그는 노인의 회색 가발을 쓰는 지혜를 보였다.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길도 걷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보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가 답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함이 저로 하여금 솔직히 말씀드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씀은 다소 과장되신 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

"그렇습니다." 머스그레이브 경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평가입니다. 잠시 옆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그들을 더 안쪽 복도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미 그곳을 잠깐 스쳐 본 적이 있었다. 남작은 검은빛으로 그을린, 표정이 무거운 초상화들이 늘어서 있는 벽 앞에 서서 진지하게 발걸음을 멈췄다.

“이분이 로저 머스그레이브 경입니다.” 그는 검은 가발을 쓴, 얼굴이 긴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윌리엄 3세 시대의 가장 비열한 거짓말쟁이이자 악당 중 한 명이었죠. 두 왕을 배신했고, 아내 두 명을 살해한 혐의까지 있는 인물입니다. 저분이 그의 아버지, 로버트 경입니다. 그는 완전한 정직함으로 무장한 올드 카발리에였죠. 그리고 저분이 아들, 제임스 경입니다. 제임스 경은 제임스와 순교자들 중 가

장 고귀한 이 중 한 명이며,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보상을 시도한 첫 번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권력, 명예, 권위가 한 명의 선한 남자로부터 또 다른 선한 남자,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는 한 명의 악인을 거쳐 이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에드워드 1세는 잉글랜드를 잘 다스렸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에 영광을 안겨 주었죠. 그런데도 그 두 번째 영광은 첫 번째 영광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광은 에드워드 2세의 치욕과 우매를 거쳐 전달되었죠. 그는 가베스턴에게 아부했고, 브루스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그랜비 씨. 위대한 가문과 역사의 위대성은 그것을 이어가는 우연한 개인들, 비록 그들이 그것을 빛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유산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왔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 돈을 잃은 고양이들을 위한 보호소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머스그레이브는 그 돈이 하늘이 무너지는 날까지 머스그레이브 가문에게 남길 것입니다.”

“네,”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

"그런 기쁜 소식을 아드님께 전해 드리게 되어 저희도 매우 기쁩니다." 변리사가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호주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겨도 성채와 작위, 땅, 그리고 재산을 확실하게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처에는 사사로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저는 평생 그와 단 한 마디도 말을 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공손하게나마 빨리 응시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짓을----”

“저는 사적인 신분을 가진 신사이자, 거대한 유산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저지른 짓은 너무도 끔찍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신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라고도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세상에 그보다 더한 죄는 없습니다.”

“그의 손님인 마르미온이 더글러스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더글러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나의 성은 왕의 것이라, 탑에서 초석까지.” 머스그레이브가 말했다. “더글러스의 손은 오직 그 자신의 것일 뿐.”

그는 다른 방으로 돌아서서, 어리둥절해 하는 방문객들을 다시 그 안으로 안내했다.

"잠시 쉬어가시며 간식을 드시겠소?" 그는 여전히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당신의 일정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다면, 기꺼이 성에서 하룻밤 묵어가실 수 있도록 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 경." 신부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량을 즉시 내리겠습니다." 호주가 말했다.

잠시 후, 거대하고 기이하게 낡은 장치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성을 가득 채웠다. 마치 방앗간 돌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비록 녹이 슬어 있었지만, 이 장치는 이번엔 잘 작동했다. 그들은 다시 해자 너머의 푸른 잔디밭 위에 서 있었다.

그랜비는 갑자기 몸을 떨며 경악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브라운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차를 몰아 그리스톤스라는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그곳의 세븐 스타스 여관에서 그들은 내렸다. 그때서야 변호사는 약간의 놀라움을 느끼며 알게 되었다. 신부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분명히 이 근처에 머물 작정이었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소."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자동차를 돌려보내겠소. 당신도 자연스럽게 그 차를 따라가길 원할 테고. 당신

의 질문은 해결됐소. 당신의 회사가 젊은 머스그레이브의 장래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소. 그는 베티의 적절한 남편이 되느냐의 문제니까. 그가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한 노인의 망상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오.”

“하지만,” 변호사가 반문했다. “그에 대해 알아내고 싶다면, 왜 직접 그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거의 발걸음도 들이지 않는 이 황량한 구석에 왜 머무르고 계신 겁니까?”

“저를 따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본드 스트리트의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를 붙잡고 ‘실례지만, 당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으셨습니까?’라고 묻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 죄를 저지를 만큼 나쁜 놈이라면, 부인할 만큼도 나쁜 놈일 테니까요. 게다가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아니, 오직 한 사람만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다시 위엄 있는 기이한 충동을 느껴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저는 그 근처에 머물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실 브라운 신부는 그 특이한 남작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몇 차례나 마주쳤고, 서로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다.

남작은 나이가 많았지만 기력이 왕성했다. 그는 걸음을 매우 좋아해, 종종 마을을 거닐거나 시골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 다녔다. 신부가 도착한 다음 날, 여관에서 나와 거친 돌로 깔린 광장으로 나왔을 때, 그는 우편국 쪽으로 향하는 남작의 어둡고 단정한 뒷모습을 보았다.

남작은 검정색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나, 강렬한 햇살 아래 그의 단단한 얼굴은 더욱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빛 머리카락과 짙은 눈썹, 길게 뻗은 턱을 가진 그는 헨리 어빙 같은 유명 배우의 인상을 풍겼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지만, 그의 얼굴과 몸짓은 여전히 힘을 느끼게 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처럼 든 채 걸었다. 그는 신부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와 같은 담대한 태도로 말을 건넸다.

“아직 내 아들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와 마주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냉담한 어조로 그 호칭을 사용했다. “아들은 이미 나라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도망친 셈이죠.”

브라운 신부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룬노프라는,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 제게 줄곧 그의 행방을 캐물고 있더군.” 존 경이 말했다. “그래서 방금 전보를 보내서, 제가 아는 그는 리가의 우체국 유치우편으로 지내고 있다고 알렸지. 그 일도 귀찮았어. 어제 그 일을 하려고 왔지만, 우체국 마감 시간보다 5분이나 늦어서 못 보냈거든.”

“당신 오래 머물 예정이오? 또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오.”

사제가 마을에서 머스그레이브 노인과 나눈 짧은 면담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들려주자, 변호사는 당혹스러움과 흥미를 동시에 느꼈다.

“대령은 왜 도망친 거죠?”

그가 물었다.

“그를 쫓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고, 도대체 그룬노프 가문은 누구란 말입니까?”

“첫 번째 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답했다. “그가 지닌 신비한 죄가 세상에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있을 거라 추측합니다.”

“세 번째 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황금빛 머리의 살찐 여자는 마담 그룬노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녀의 남편으로 통합니다.”

다음 날 브라운 신부가 다소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다. 순례자가 지팡이를 내려놓듯, 그는 검은 우산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우울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황은 그가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흔히 겪던 모습과 같았다. 그것은 실패의 우울이 아니었다. 성공의 우울이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걸 알아챘어야 했다.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물건이 거기서 있는 것을 보고 말이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랜비가 조바심 내며 물었다.

“갑옷이 하나뿐이라는 걸 보고는,”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는 친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조카에게 이런 말을 하려던 참이었소. 혼자서 도 옷을 수 있는 남자는 두 종류뿐이라는 거요. 거의 말하자면, 그런 남자는 매우 착하거나 매우 사악한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는 그 농담을 하느님께 털어놓거나, 악마에게 털어놓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는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말로 악마에게 농담을 털어놓는 종류의 남자도 있소. 그에게 남들이 그 장난을 보지 못하는 것은 상관없소. 설령 남들이 그 장난을 알 수조차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관없소. 그 장난 자체가 충분하니까요. 그것이 충분히 음흉하고 악의적이라면 말이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랜비가 소리쳤다. “누구를 두고 그러는 겁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사탄의 군주와 악의 장난을 치고 있다는 그 인물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브라운 신부는 그를 향해 끄찍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아, 그게 바로 요점이지.”

또 다른 침묵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공허하기보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다. 해 질 녘의 노을이 짙은 어둠으로 변해가듯, 그 침묵은 그들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브라운 신부는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괴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저는 머스그레이브 가문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기운이 세고 장수하는 혈통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돈을 돌려받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노인은 거의 여든 살입니다. 비록 아직 거닐기는 하지만, 이 마을 여관 사람들은 그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농담조로 말하곤 하죠.”

브라운 신부는 드물게도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손을 식탁 위에 얹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거야." 그가 낮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게 유일한 문제야. 진짜 난관이지. 그는 어떻게 죽을까? 대체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뜻이요?” 그랜비가 물었다.

“내가 말하려는 건,” 어스름이 내리앉는 방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 머스그레이브가 저지른 그 범죄를 내가 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워서 그랜비는 떨림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그는 또 다른 질문을 중얼거렸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였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적어도 많은 공동체와 문명이 그렇게 여겨 왔지. 아주 오래전부터 부족과 마을에서 극형에 처할 만한 죄악으로 규정되어 왔으니까.”

“하지만 아무튼, 이제 나는 젊은 머스그레이브가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사제가 대답했다.

법률가도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찌푸린 눈썹을 드러내며 테이블 너머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성에 계십니다.”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외쳤다.

“그의 아버지는 해자에 계십니다.” 사제가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던 바보였습니다. 그 갑옷에 대해 말입니다. 방의 풍경을 기억나십니까? 그 방이 얼마나 신중하게 배치되고 장식되었는지요. 벽난로 한쪽에는 두 개의 교차한

전투도끼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도 똑같이 두 개의 교차한 전투도끼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둥근 스코틀랜드 방패가, 다른 쪽 벽에도 둥근 스코틀랜드 방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로 한쪽에는 갑옷을 입은 인물이 지키고 있었지만, 다른 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방의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과장된 대칭으로 정리한 남자가, 단 하나뿐인 이 특징만 편향되게 놔두었을 것이라고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거의 확실하게도 다른 갑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고 실제적인 어조로.

“생각해 보면, 이건 살인 계획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영원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죠. 살인자는 시체를 완전한 킬팅 아머 안에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드나드는 사이, 그는 한밤중을 이용해 시체를 끌어내고 해자로 내려보낼 수 있었죠.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나요? 썩은 물속에서 시체가 어느 정도 부패하면, 결국에는 14세기 갑옷을 입은 해골만 남게 됩니다. 오래된 국경 성채의 해자에서 그런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죠. 아무도 그곳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찾는다 해도, 결국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해골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추측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제가 희귀한 식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 의미에서 일종의 '함정(plant)'이었죠. 농담을 허용해 주신다면요. 저는 단단한 제방에 두 발자국이 깊게 패인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자국이 너무 깊어서, 그 남자는 체중이 무거웠거나, 아니면 매우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우아하고 고양이 같은 도약을 했을 때의 일화에서 얻은 것이죠.”

“제 머리가 빙빙 돌니다,” 그랜비가 말했다. “하지만 이 악몽 같은 일이 대체 무슨 뜻인지 조금씩 감이 옵니다. 당신과 그 고양이처럼 날아오른 도약은 어때요?”

“오늘 우체국에 갔다가, 어제 준남작이 저에게 했던 말을 우연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제, 즉 우리가 도착한 바로 그날, 문 닫은 직후에 그 우체국에 들렀다고 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도착한 그 시각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는 밖에 있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갑자기 모든 사건의 전모를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른 한 사람이 성급하게 물었다. “그건 어때?”

“팔십 살 노인이 걸을 수는 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노인이 시골 길에서 어슬렁거리며 꽤 거리를 걷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땀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다지 우아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인이 뛰는 모습은 더더욱 기괴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준남작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돌아왔다면, 그는 우리가 들어온 방식과 똑같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곧장 해자를 뛰어넘어서요. 다리는 나중해야 내려졌으니까요.

그가 불청객을 막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고쳐 놓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수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색 머리를 한 검은 그림자가 해자를 힘차게 뛰어넘는 기이한 풍경을 보자마자, 그것이 노인으로 분장한 젊은이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 말은,” 그랜비가 천천히 말했다. “이 즐거운 청년이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을 먼저 갑옷 속에, 다음에 해자에 숨겼다는 뜻인가? 그리고 변장까지 했다는 거지?”

“사실 두 사람은 거의 완전히 닮았습니다.” 사제가 말했다. “가문 초상화를 보면 그 닮은꼴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가 자신을 위장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한 가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옷차림은 위장입니다. 노인은 가발을 쓰고, 젊은이는 외국풍의 수염을 기르며 자신을 가렸던 셈이죠. 그는 면도하고 잘라낸 머리에 가발을 쓰자, 약간의 화장만 더했을 뿐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가 당신에게 다음 날 자동차로 이곳에 오

라고 매우 정중하게 권유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가 바로 그 밤 기차로 올라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앞서 도착해 범 죄를 저지르고, 위장을 완성한 뒤 법적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랜비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법적 협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진짜 늙은 준남작이라면 아주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했을 거라는 뜻이시겠죠.”

“그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선장이 단 한 톨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런 기묘한 계획이,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당신에게 말한 것의 교묘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계획은 한 번에 여러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인들로부터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전쟁 중 반역 행위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는 단번에 그들로부터 벗어났고, 아마도 그들을 리가로 쫓아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수완은, 아들을 상속인으로 인정하되 한 인간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이 사후 상속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곧 가장 큰 난관이 될 상황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이오." 그랜비가 말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만약 아들이 상속에서 제외되지도 않았다면, 부자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좀 이상할 거야.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사적인 파기’라는 설이었지. 그래서 남은 건 하나뿐이야. 지금 그분이 가장 고민하고 있을 문제 말야. 도대체 그 노인이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는 거지.”

"그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랜비가 말했다.

브라운 신부는 약간 어리둥절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디론가 마음이 떠 있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이론에 대해 그가 느꼈던 무언가는, 음, 더 ‘이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인물이 되어 다른 인물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미친 듯한 지적 쾌락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바가 바로 그 지옥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악마와 함께 나누는 장난 같은 것이죠.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드릴까요? 때로는 지옥 한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도록 진실을 말하는 것.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남인 척 가장한 뒤, 실제 그러했듯 자신을 시커멓게 그리는 그 기이한 짓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조카가 그림 갤러리에서 그가 홀로 혼잣말로 웃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랜비는 깜짝 놀라는 듯 몸을 떨었다. 마치 현실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처럼.

“당신의 조카 말ियो.” 그가 외쳤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머스 그레이브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소? 부와 지위에 관한 문제였겠지.”

“네,” 브라운 신부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중한 결혼을 무척 선호했죠.”

일곱

메루의 붉은 달

매로우우드 대저택의 바자회는 성공적이었다. 마운트이글 여사의 허락을 받아 열린 행사였다. 회전목마와 그네, 그리고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즐겼다.

행사의 목적은 자선이었다. 그 목적은 훌륭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 자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많지 않다. 특히 세 명, 한 여성과 두 남성이 두 개의 주요 천막 사이를 지나갈 때의 상황이 중요하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오른쪽에는 ‘산의 주인’이라는 천막이 있었다. 그는 수정과 손금으로 점치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점술가였다. 그 천막은 진한 보라

색으로, 검은색과 금색으로 그려진 아시아 신들의 모습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신들은 마치 문어처럼 수많은 팔을 휘저으며 서 있었다. 그 팔들이 신의 도움이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건한 손금술사가 이상적으로 여긴 존재가 가능한 한 많은 팔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반대쪽에는 더 소박한 천막이 있었다. 골상학자 프로소(Phroso)의 천막이었다. 소크라테스와 셰익스피어의 머리 모양을 그린 도표로 단정하게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머리들은 덩어리진 모양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순수하게 합리적인 과학의 엄숙한 품위에 맞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숫자와 주석과 함께 그려져 있었다.

보라색 천막은 검은 동굴처럼 열린 입구를 가지고 있었고, 안은 적절하게도 고요했다. 하지만 골상학자 프로소는 자신의 신전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야위고 낡았으며, 햇볕에 그을린 사람이었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나운 검은 수염과 콧수염이 그의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나 소리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검사해 보면 셰익스피어의 머리만큼이나 덩어리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여성이 천막 사이로 나타나는 순간, 경계심 가득한 프로소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옛날의 정중한 몸짓을 취하며 그녀의 두개골을 만져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예의 바르되, 오히려 무례해 보일 만큼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만 한창 논쟁 중이었으니 양해받을 만했다.

하지만 그녀를 용서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용서받았다. 그녀가 마운트이글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로에 지친 듯했다. 깊고 어두운 눈빛에는 굶주린 듯한 빛이 서려 있었고, 미소에는 무엇인가 간절하고 거의 맹렬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장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기이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압감 있고 회상적인 분위기, 즉 대전쟁이 남긴 그 무거운 기운이 아직 우리 곁에 오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옷은 마치 보랏빛 천막 같았다. 반쯤 동양풍이었고, 이국적이고 내밀한 상징들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모두 마운트이글 가문이 미친 줄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동양의 신조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 부인의 기이한 행보는 두 신사의 관습적인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그들은 먼 옛날의 엄격한 풍습에 따라 장갑 끝부터 번쩍이는 탑햇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제임스 하드캐슬은 단정함과 격식을 동시에 갖춰 보였으나, 토미 헌터는 단정할 뿐 평범해 보일 뿐이었다. 하드캐슬은 유망한 정치인으로 통했다. 그는 사회적인 자리에서 정치 외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모든 정치인이 자칭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는 종종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공연용’ 정치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만 그를 위한 화려한 퍼플 텐트가 박람회장에 마련된 적은 없었다.

“저는요,” 그가 말했다. 단호하고 법조인다운 얼굴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단안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꼭 고정하며 말했다. “마법을 논하기 전에 최면술의 가능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심리적 능력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외관상 뒤떨어진 민족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파키르들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기꾼이 저질렀다고요?” 다른 젊은이가 의아한 듯 물었다.

“토미, 너 정말 바보야.” 부인이 말했다.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마술 비법이 뭔지 안다고 고함 지르는 초등학생과 다를 바 없지. 그건 다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정서야. 초등학생 특유의 회의주의 말이지. 최면술(메스머리즘) 같은 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봐.”

그때 마운트이글 부인이 원하는 사람을 발견한 듯했다. 아이들이 추악한 탁상 장식품에 후프를 던지는 부스 앞에 서 있는, 검은색의 뚱뚱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가 외쳤다.

“브라운 신부님, 찾던 차였습니다. 여쭙볼 게 있습니다. 신부님은 점술을 믿으시나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손안의 작은 고리를 어쩔 줄 모르고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믿는다’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만약 그것이 모두 속임수라면……”

“아니요, 산의 주인은 결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분은 평범한 마술사도, 점쟁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저희 파티에 내려와 점을 봐주시는 것은 큰 영광이죠. 그분은 고국에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시니까요. 예언자요, 예지자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점술은 그저 재물이 들어온다는 식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상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시죠.”

“그렇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문제 삼는 거죠. 저는 방금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모두 가짜라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자선 바자회 같은 곳의 물건들도 대부분 속임수가 섞여 있는 법이니까요. 거기서는 그런 속임수가 일종의 실용적인 장난쯤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만약 그게 종교이고 영적인 진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만큼이나 거짓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좀 역설적인 말씀이군요.” 하드캐슬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역설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군.” 신부는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내 생각엔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만약 누군가가 독일 첩자 분장을 하고, 독일인들에게 갖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떠든다고 치자. 그 정도야 별일 아닌 거야. 하지만 만약 한 남자가 독일인들과 ‘진실’을 거래한다면? 음, 그건 사뭇 다르지.”

신부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난 점쟁이가 만약 그런 식으로 ‘진실’을 거래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하드캐슬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가 적과 거래하고 있는 것 같아.”

토미 헌터가 웃음을 터뜨렸다. “브라운 신부께서 사기꾼이라면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구릿빛 예언자쯤은 성자나 다름없다고 보시겠군요.”

“내 사촌 톰은 고칠 수 없이 고집이 세요.” 마운트이글 여사가 말했다. “자신이 ‘속임수를 밝힌다’고 부르는 일을 항상 하지요. 마스터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는 부처님이나 모세까지도 속임수를 밝히려 들었을 거예요.”

“좀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 둥근 얼굴에 미소를 띤 청년이 말했다. “그래서 슬렁슬렁 내려왔어. 그 갈색 원숭이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꼴은 싫으니까.”

“또 그 말씀이시군요!” 마운티이글 부인이 말했다.

“수년 전, 내가 인도에 있을 때쯤이었지. 우리 모두는 갈색 피부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편견을 품곤 했어. 하지만 이제 그들의 놀라운 영적 힘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 다행히도 나는 더 나은 안목을 갖추게 되었지.”

“우리의 편견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은 그가 브라만 같다는 이유로 갈색을 용서하고, 나는 그가 갈색이라는 이유로 브라만 같음을 용서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영적인 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약점에 훨씬 더 공감을 하죠. 하지만 왜 누군가가 구리나 커피, 또는 호두빛 예일, 그리고 북부의 정겨운 이탄 시냇물과 같은 아름다운 갈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싫어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옆자리의 숙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나는 아마도 ‘갈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편애하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죠?” 마운티이글 부인이 의기양양한 어조로 외쳤다. “당신이 그저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둥글게 살이 오른 젊은이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는 곧장 ‘소년 같은 회의주의’라 부르더군요. 도대체 언제 수정 구슬 점을 시작한다는 거야?”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사실은 수정 구슬 점이 아니라 손금 보는 일입니다. 아마도 당신이라면 같은 종류의 헛소리로 치부하시겠지요.”

“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캐슬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연스럽고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기이하죠. 수술 받으러 들어갈 생각입니까? 솔직히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런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소.” 의심을 품은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의 둥근 얼굴은 경멸과 불신으로 인해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은 그 마호가니빛 돌팔이와 시간을 보내시오. 나는 코코넛에 공을 던지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소.”

골상학자는 여전히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두개골이죠, 친애하는 선생님.” 그가 말했다. “인간의 두개골은 코코넛보다 훨씬 정교한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넛은 당신의 그 가장----

하드캐슬은 이미 보라색 천막의 어두운 입구로 몸을 날렸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툼 헌터가 골상학자에게 성급한 대답을 내뱉었다. 그는 자연 과학과 초자연적 과학 사이의 경계 따위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그때, 부인은 작은 신부와 이어가려던 작은 논쟁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제임스 하드캐슬이 다시 텐트 밖으로 나섰다. 그의 굳은 얼굴과 빛나는 단안경에는 놀람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불쑥 말했다. “이미 떠났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그의 수행원인 양 보였는데, 그중 한 노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주인님께서 성스러운 비밀을 금에 팔기보다는 떠나셨다고요.”

마운트이글 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이들을 향해 돌렸다.

“봐요, 제가 뭐랬어요? 당신이 상상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런 군중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이제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갔죠.”

“미안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렇겠죠,” 주인의 부인도 똑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면 그는 항상 회랑으로 가거든요. 왼쪽 별채 끝자락에 있

는 곳이에요. 남편의 서재와 사설 박물관을 지나면 나옵니다. 이 집이 본래 수도원이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들었습니다.” 사제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좋으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자가 경쾌하게 말했다. “정말 남편의 수집품을 보셔야 합니다. 적어도 레드 문은요. 메루의 레드 문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네, 그것도 루비입니다.”

“그 예언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중 하나라면, 산의 주인을 비롯해 그 컬렉션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드캐슬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도,” 뒤에서 따라오던 회의적인 토머스에게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갈색 짐승이, 점치는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여기 왔는지 정말 궁금하군.”

그가 사라지자,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프로소 씨는 마지막까지 그를 쫓았다. 그의 코트 자락을 거의 낚아챌 듯이.

“그 용기----” 그가 말을 시작했다.

“용기는 없습니다. 혹(hump)이 있을 뿐이죠. 마운트이글을 보러 올 때마다 항상 이 혹이 생깁니다.” 그는 과학자의 포옹을 피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회랑으로 향하는 길, 방문객들은 마운트이글 경이 아시아의 부적과 마스코트로 꾸민 사설 박물관이 있는 긴 방을 지나야 했다. 맞은편 벽에 난 열린 문 하나를 통해 그들은 고딕 양식의 아치와 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을 볼 수 있었다. 그 아치들은 사각형의 열린 공간을 표시하고 있었고, 그 공간의 지붕 가장자리 주변으로 수도사들이 예전에는 거닐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 보기에는 수도사의 유령보다 더 기이해 보이는 무언가를 지나쳐야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두른 노신사가 나타났다. 옅은 녹색 터번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매우 분홍빛이 도는 하얀 영국인이었다. 부드러운 수염은 친절한 영국령 인도 출신의 대령을 연상시켰다.

그는 마운트이글 경이었다. 동양의 즐거움을 아내보다 더 슬프게, 적어도 더 진지하게 즐긴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의 종교와 철학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했다. 심지어 동양의 은수자처럼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보물을 보여 주는 것을 기뻐했지만, 그들을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나 현금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상징적으로 간주되는 진리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가 박물관에서 아마도 유일한 고가의 보물인 큰 루비를 꺼냈을 때, 그는 그 크기가 아니라 이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가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거대한 붉은 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피 같은 빛줄기 너머로 보이는 장작더미처럼 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마운트이글 경은 그 돌을 손바닥에서 가볍게 굴리며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는 천장을 응시하며, 메루 산의 전설적인 성격과, 그노시스 신화에서 그것이 이름 없는 원초적 힘들의 씨름터였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노시스파의 데미우르고스, 그리고 매니교의 평행 개념과의 연관성을 잊지 않은 채 강연이 막 끝물쯤 다다랐다. 신사적인 하드캐슬 씨조차도 이때쯤이 되자 분위기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돌을 한 번 더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고, 해가 저물며 긴 복도 안의 단 한 문은 점점 어둠에 잠겨갔다. 그는 복도를 나와 더 밝은 곳에서 보석을 점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은 산의 주인, 즉 그 살아 있는 존재의 기척을 느꼈다. 느리게, 그리고 조금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회랑의 원래 구조는 전형적인 양식을 따랐다. 고딕 양식의 기둥과 뿔족한 아치들이 안쪽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고딕 문들은 낮은 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허리 높이쯤 되는 그 벽은 문들을 창문처럼 변모시켰고, 각 창문마다 평평한 돌 창턱이 생겼다. 이 개조는 아마도 오래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마운트이글 경과 부인의 개성적인 취향이 드러난, 더 기묘한 변화들도 있었다. 기둥 사이에는 얇은 커튼,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베일이 걸려 있었다. 대륙풍이나 남부 양식의 구슬이나 가느다란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 위로는 아시아의 용이나 우상들의 줄무늬와 색채가 드러났다. 회색 고딕 골격과 대비를 이룬 것이었다.

이것이 장소의 흐려지는 빛을 더욱 어지럽히기는 했지만, 손님들이 다양한 감정으로 깨달은 부조화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수회랑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 한복판에는, 사각형 안에 그려진 원처럼 둥근 길이 나 있었다. 열은 돌로 깔린 그 길 가장자리에는 인공 잔디를 모방한 듯한 푸른 에나멜 재질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 그 길 안쪽, 정확히 중심에는 짙은 녹색 분수, 혹은 높은 연못이 솟아 있었다. 연못 위에는 수련이 떠 있고 금붕어들이 오가며 반짝였다. 그 위, 어스름하게 지는 빛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을 드러낸 거대한 녹색 형상이 있었다.

그 형상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마치 머리가 없는 조각상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어스름한 황혼 속, 단순한 검은 윤곽선만으로도 그들은 즉시 깨달았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형상이 아님을.

몇 발짝 떨어진 원형 길 위, 거대한 초록 신상을 바라보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산의 주인’이라 불렸다. 날카롭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얼굴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구리 가면을 빚어놓은 듯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짙은 회색 수염은 거의 남색처럼 보였는데, 턱 끝의 짧은 수염에서 시작해 마치 큰 부채나 새의 꼬리처럼 넓게 퍼져나갔다. 그는 공작새 깃털 같은 초록빛 옷을 입고 있었고, 벗겨진 머리 위에는 낫선

모양의 높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본 적 없는 머리 장식이었지만, 인도풍보다는 이집트풍에 가까워 보였다.

그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었다. 넓게 벌린 물고기 같은 눈은 너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미라 관에 그려진 눈처럼 보였다. 비록 산의 주인의 모습은 충분히 기이했지만, 브라운 신부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가 응시하고 있던 짙은 초록색 우상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군.” 하드캐슬이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옛 수도원 회랑 한복판에 그런 걸 세우다니.”

“제발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마요.” 마운트이글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동서양의 큰 종교들을 연결하자는 거죠. 부처님과 그리스도를요. 모든 종교는 실은 하나라는 걸, 당신은 분명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브라운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시아 한복판까지 가서 하나를 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마운트이글 부인께서는 이 두 가지가 이 돌처럼 서로 다른 면을 가진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드캐슬이 말을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주제에 흥미를 느끼며, 고딕 양식의 아치 아래에 놓인 돌 받침대 위에 거대한 루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면들을 하나의 예술적 양식으로 섞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섞을 수 있겠지만, 고딕 양식과

사라센 양식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진짜 인도 양식과는 말할 나위 없어요.”

말을 하던 산의 주인은 마치 경련증 환자처럼 생기를 띠며, 원형의 또 다른 사분면으로 무거운 걸음걸이를 옮겼다. 그는 자신들의 아치 열 밖으로 자리를 잡더니, 등을 돌린 채 서서 이제 우상의 뒷모습을 바라 보았다. 그는 마치 시계 바늘이 시계판을 도는 것처럼, 몇 단계씩 원형 전체를 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멈출 때마다 그는 기도하거나 명상에 잠겼다.

“그의 종교가 대체 뭐란 말인가?” 하드캐슬이 약간의 조바심을 섞어 물었다.

“그가 말하길,” 마운트이글 경이 경건한 어조로 답했다. “그것은 브 라만교보다 더 오래되었고, 불교보다 더 순수하다고.”

“아,” 하드캐슬이 말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단안 경 너머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응시했다.

“세상에서는 말하죠,” 고귀한 신사가 부드럽지만 교훈적인 어조로 말했다. “메루 산의 동굴에 거대한 형상으로 새겨진 신이 있다고요. 바로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존재 말입니다.”

강연하듯 이어지던 그의 평온함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갑자기 깨졌다. 그들이 막 회랑으로 나섰을 때, 그들이 방금 떠난 박물관의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

두 젊은이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음엔 분노한 표정을 지었고, 마지막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방해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군요.” 우아하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리의 불패의 레슬링 선수, 프로소 교수였다. “여러분 중 일부가 아주 천대받는 bumps(봄스) 과학에 잠시 시간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잠깐만,” 성급한 토미 헌터가 외쳤다. “나한테는 명 하나도 없어. 하지만 곧 네 머리에 몇 개쯤 만들어 주마, 너----”

하드캐슬이 그가 문으로 다시 뛰어들어가려 할 때, 부드럽게 그를 제지했다. 잠시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안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

다시 한번 선두에 나선 것은 성급한 토미였다. 이번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아무도 무언가를 눈치채기 전에, 하드캐슬은 자신이 보석을 둘 창턱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며 겨우 기억해냈다. 하지만 토미는 이미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그는 두 기둥 사이의 틈으로 머리와 어깨를 내밀고, 아치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맑고도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이 방향을 틀고 나자마자, 그리고 그의 승리를 알리는 외침을 듣기 직전, 그들은 모두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했다.

두 기둥 중 하나의 모퉁이를 돌아, 갈색, 정확히 말하면 죽은 금빛 같은 청동색의 한 손이 쑥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그 손이었다.

그 손은 뱀이 덩비듯 직선으로, 개미핥기가 긴 혀를 차듯 순식간에 움직였다. 하지만 그것은 보석을 삼켜 버렸다. 창틀의 돌판은 흐릿해져 가는 희미한 빛 속에서 맨몸으로 빛나고 있었다.

“내가 잡았어!” 토미 헌터가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놈이 제법 몸부림을 치네. 너희들, 놈을 둘러싸고 앞으로 돌라. 어쨌든 놈이 그걸 버렸을 리가 없어.”

다른 이들은 곧장 따라 나섰다. 복도를 달리는 자도 있었고, 낮은 담장을 뛰어 넘는 자도 있었다. 그 결과, 곧 하드캐슬과 마운트이글 경, 브라운 신부, 그리고 골상학(bumps)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프로소 씨까지 포함된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산의 주인, 즉 포로가 된 마스터를 에워쌌다. 헌터는 한 손으로 그의 옷깃을 꼭 쥐고 매달렸으며, 때때로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 모습은 예언자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품위 없는 행태였다.

“어쨌든 이제 그놈은 잡았어.” 헌터가 한숨을 내쉬며 손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 할 일은 그를 수색하는 것뿐이야. 그건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사십오 분 후, 헌터와 하드캐슬이 회랑에서 마주쳤다. 최근의 활동으로 인해 모자와 넥타이, 장갑, 그리고 발목 가리개가 모두 지저분해져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그렇군요.” 하드캐슬이 절제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기랄.” 헌터가 대답했다. “그걸 신비라고 부를 수는 없지. 우리 모두 직접 그가 그것을 집어 가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맞아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가 그것을 잃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문은, 그가 그것을 어디다 잃어서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있을 거야." 헌터가 말했다. "그 근처에 있는 분수나, 저 썩어빠진 옛 신상 주변도 모두 뒤져봤어?"

“저는 작은 물고기들을 해부하지 않았습시다.” 하드캐슬이 단안경을 들어 올리고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폴리크라테스의 반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눈앞의 동그란 얼굴을 단안경으로 살폈다. 그 얼굴에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가 그것을 삼켰다는 게 아니라면, 그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헌터가 갑자기 되뇌었다.

“우린 예언자도 해부해 봐야 합니까?”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 오시는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군요.” 마운트이글 경이 하얀 콧수염을 초조하고 떨리는 손으로 비비며 말했다.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거기에다 마스터 같은 인물과 연결 지으려니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이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당신의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헌터는 뒤따라가며 회랑 주변을 서성이는 브라운 신부와 수다를 떨었다.

“정말 힘이 세시군요.” 사제는 다정하게 말했다. “한 손으로 그를 붙잡았다고요. 우리가 여덟 손으로 꼭 눌러 잡고 있었을 때도 그는 꽤 견장해 보였죠. 마치 인도 신들처럼.”

그들은 회랑을 한두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산의 주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벤치에 앉은 그는 포로였지만, 왕처럼 위엄을 떨치고 있었다.

마운트이글 경이 말한 대로, 그의 태도와 어조는 결코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평온하면서도 비밀스러운 권위의 어조로 말을 이었다. 보석을 숨길 만한 사소한 장소에 대한 그들의 추측을 보며, 그는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더구나 그는 전혀 분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들 모두 자신이 보석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믿으며 쫓아온 노력들을, 여전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웃어넘기는 듯했다.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조금씩 배우고 있구나.” 그는 오만한 자비심으로 말했다. “너희 최신 과학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종교보다 천 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너희는 물건을 숨긴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불쌍한 친구들아, 너희는 물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너희도 나처럼 이것을 또렷이 볼지도 모른다.”

“그게 여기 있다는 말이냐?” 하드캐슬이 거칠게 물었다.

"이 말은 뜻이 여러 가지인 단어이기도 하지요." 신비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이 여기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그걸 볼 수 있었다고 말했을 뿐이죠."

짜증 섞인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는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온전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해져 본다면, 세상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산들 속에서, 원형의 상이 자리한 곳에서, 마치 산처럼 우뚝 선 그 상을 향해 혼자 경배하는 자의 비명 말이다. 어떤 이들은 유대교도나 무슬림조차도 그 상을 경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

간, 들리는가? 그가 고개를 들고, 수세기에 걸쳐 속이 빈 그 돌 구멍 안을 들여다볼 때, 산의 눈이자 붉고 격분한 달을 마주하는 그 비명을?”

“정말, 여기서 메루 산까지 보낼 수 있다고요?” 마운트이글 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예전엔 당신이 위대한 영적 힘을 지녔다고 믿어 왔습니다만——”

“아마도,” 마스터가 말했다. “당신이 결코 믿지 못할 만큼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드캐슬은 성이 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쑈서 넣고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만큼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능력은 ... 신이여!”

그의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중에서 갑자기 끊어졌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던 것을 멈췄고, 안경이 눈에서 빠져나왔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 동일한 정지된 생명의 표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메루의 붉은 달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던 그대로 돌창틀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장작더미에서 날아온 붉은 불꽃 같기도 했고, 부서진 장미에서 흩날린 붉은 꽃잎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드캐슬이 무심코 내려놓았던 정확히 같은 자리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하드케슬이 다시 그것을 집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다소 주목할 만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이전의 불안함과는 달리, 무언가 장엄한 기개가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앉아 있는 마스터 앞에 멈춰 서서, 다소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마스터,” 그가 말했다. “저희 모두는 당신께 사과해야 할 처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희 모두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일은 농담이자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게 사용하시는지요.”

그는 이어 마운트이글 여사를 향해 돌며 말했다. “마운트이글 여사, 제가 마스터에게 먼저 말을 건넸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실 이 설명은 처음부터 당신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의 최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면이 인도 전설들, 즉 망고나무와 공중으로 던져진 밧줄을 오르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들의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관중들이 최면에 빠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최면에 빠져 이 도둑질이 일어난 것처럼 상상했던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와 보석을 훔쳐가는 그 갈색 손은 순간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꿈속의 한 손이었죠. 다만 보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원래 있던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못으로 뛰어들어 수련 잎들을 모두 뒤졌고, 금붕어들에게 구토제를 먹이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터의 오팔빛 눈과 웃는 입술을 지닌 수염을 건너다보았다. 그리고 그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더 넓어졌음을 알아차렸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가 있어, 다른 이들은 갑자기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듯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운트이글 경이 다소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정말로 어떤 사과를 드려야 할지……”

"불만은 없습니다." 산이나 스승이라 불리던 그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기뻐하며 떠났다. 하드캐슬이 그날의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염을 기른 작은 두상학자는 자신의 터무니없이 큰 천막 쪽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브라운 신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혹을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더 이상 만져볼 필요는 없으시겠죠?” 신부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형사죠?”

“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마운트이글 여사가 마스터를 감시하라고 부탁하셨지. 여사도 미신이 없진 않았지만, 어리석은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가 텐트에서 나섰을 때, 저는 귀찮게 굴고 편협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누군가 제 텐트에 들어왔다면, 백과사전을 뒤져서 ‘범프스’를 찾아야 했을 테니까요.”

“bumps, What Ho She; see Folk-Lore,”라고 브라운 신부는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당신은 바자회에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역할을 아주 잘 해냈어.”

“참 이상한 사건이었죠, 안 그렇습니까?” 위선적인 두개골학자가 말했다. “그 물건이 그동안 그곳에 항상 있었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신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다. 다른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여기 좀 봐!” 그가 외쳤다.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 물건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건가?”

브라운 신부는 마치 얻어맞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곤 천천히,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한 사람이 날카롭게 말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거지. 왜 루비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제가 직접 다시 넣었기 때문이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다른 한 남자는 그 자리에 꿈쩍도 못 했다. 마치 머리카락이 모두 서 있는 듯했다. 그는 입을 벌렸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자면, 저는 그 도둑을 설득해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두게 했습니다. 제가 추측한 바를 그에게 말해주고,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전문적인 비밀로 여기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마운트이글 가문은 이제 물건을 되찾았으니 고발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누가 훔쳐갔는지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스터를 말하는 겁니까?” 한때 프로소였던 자가 물었다.

"아닙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마스터가 그것을 훔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반박했다. "창문 밖에는 마스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분명히 밖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손은 밖에서 왔지만, 도둑은 안에서 왔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우리는 또다시 신비주의자들의 세계로 돌아온 모양이군. 자, 나는 현실적인 인간이야. 나는 단지 루비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루비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잠시 멈춘 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 Tent 근처에서 벌였던 그들의 논쟁을 바로 그때부터 나는 이상함을 느꼈소. 사람들은 이론 따위야 중요하지 않다, 논리와 철학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믿지 마시오.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이 비이성적이면 반드시 그 이면에 문제가 있는 법이오.

그 추상적인 논쟁의 끝에는 묘한 일이 있었소. 그들이 주장하던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드캐슬은 약간 우월한 태도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대부분 최면술이나 천리안, 즉 철학적 수수께끼를 가리키는 과학적 명칭으로 처리되었지. 반면 헨터는 그것을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소.

마운트이글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헨터는 점쟁이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 특정 인물과 대결하기 위해 특별히 내려왔다고 해. 그는 자주 내려오지 않았소. 마운트이글 경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씹씹이가 해픈 헨터가 늘 마운트이글 경에게서 돈을 빌리려 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마스터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서둘러 내려왔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 상담한 것은 하드캐슬이었고, 거절한 것은 헨터였소. 그는 그런 헛소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많이 낭비하며 그것이 헛소리임을 증명해 왔는데도 말이오. 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소.

헨터는 이번 사건이 크리스탈 가이징(수정 점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손금 점술이었소.”

“그가 그것을 핑계로 삼았다는 뜻이야?” 동료의 의아한 듯 물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제가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변명이 아니라 이유였음을 압니다. 그는 손금쟁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로 발걸음을 돌렸죠. 왜냐하면----”

“그래, 어때?” 다른 한 사람이 재촉하듯 물었다.

“그가 장갑을 벗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장갑을 벗긴다고요?” 질문자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브라운 신부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의 손이 이미 열린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모두 보았을 테지.”

“아, 그렇습니다. 그는 마스터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왔어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말이지요.”

“당신 말은, 창문으로 들어온 손이 헌터의 손이고, 그 손이 갈색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뜻이오? 하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잖소!”

“현장에서 직접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헌터가 앞으로 뛰어나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순식간에 그는 장갑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인디언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둥 너머로 손을 뻗어 도둑을 잡았다고 외쳤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는 도둑을 한 손으로만 잡고 있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을 터였다. 하지만 그 나머지 한 손은 보석을 바지 주머니에 넣느라 분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 두뇌학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음, 이건 정말 의외군. 하지만 여전히 내겐 의문투성이다. 우선, 그 낯선 마법사의 기이한 태도를 설명해 주지 못해. 만약 그가 완전히 무죄였다면, 왜 하필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모욕하고 수색한다는 비난에 격분하지 않았단 말인가? 왜 그저 미소 짓기만 하고, 교활한 눈빛으로 자신이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암시하기만 했던 말인가?”

“아!” 브라운 신부가 날카로운 어조로 외쳤다. “바로 거기서 막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모든 것들과 부딪히는 거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마운트엘 여사가 말하지. 정말로 그럴까?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어떤 종교는 너무 달라서, 한 신조(信條)를 가진 가장 선량한 사람은 무뚝뚝해지지만, 다른 신조를 가진 가장 나쁜 사람은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다.

내가 영적 권력이라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 있지 않은가? 그건 ‘권력’이라는 단어에 accent(강조)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마스터)이 루비를 흠쳤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흠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루비를 흠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보석을 흠치는 것이 그의 유혹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은, 자신과 무관한 기적에 대한 칭찬을 가로챘다는 점이었다. 오늘 그가 屈服(항복)한 유혹은 바로 그 종류였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놀라운 정신적 힘을 지니고 있어 물질적 사물을 공중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 비록 그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우리가 그가 했다고 믿게 내버

려 두었다. 사적 재산에 대한 개념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돌맹이를 흠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돌맹이를 사라지게 하고 먼 산 위에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만 있었다. ‘누구의 돌맹인가?’라는 질문은 그에게 사소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종교는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자신이 지닌 것을 ‘영적 힘’이라고 부르며 매우 자랑스워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다. 마음의 물질에 대한 지배력, 마법사가 원소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힘 말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비록 우리가 그다지 낯지 않더라도, 더 나쁘더라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아시아의 모든 악마들을 동원해 중세 양식의 아치들을 치장하긴 했지만 그 아치들 아래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야망과 정반대의 수치심이 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는 오히려, 비록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기를 바랐다. 그는 실제로 도둑질했다는 공을 흠친 셈이다.

우리가 모두 뱀처럼 그 죄를 멀리 던져버릴 때, 그는 뱀을 유혹하듯 그 죄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뱀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여기서는 기독교 전통이 이런 시험대에 바로 서게 된다. 예를 들어 노년의 마운트엘 경을 보라! 비록 그가 동양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 터번을 쓰고 긴 로브를 입으며 마하트마(대영혼)들의 메시지에 의존한

다 하더라도, 그의 집에서 돌조각이 훔쳐지고 친구들이 용의자로 지목 되면, 그는 곧장 당황한 평범한 영국 신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범인은 우리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역시 영국 신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훨씬 더 나은 존재이기도 했다. 그는 기독교도인 도둑이었다. 나는 그가 회개한 도둑이었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는다.”

“네 말대로라면,” 웃으며 동료가 말했다. “기독교도 도둑과 이교도 사기꾼은 정반대로 움직였군. 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고, 다른 사람은 저지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

“우린 그들 둘 중 누구에게도 너무 가혹해져선 안 돼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영국의 다른 신사들도 과거에는 도둑질을 저질렀고, 법적·정치적 보호를 받으며 면죄부를 얻곤 했죠. 서양에도 사변적 변명으로 도둑질을 덮어주는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루비만이 세상에 있는 보석 중 소유주가 바뀐 유일한 돌은 아니에요.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카메오처럼 조각되기도 하고, 꽃처럼 색을 띠기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사제의 손가락이 거대한 대성당의 고딕 양식 윤곽선을 가리켰다.

“거대한 조각 석재였소. 그것도 도난당했지요.”

VIII

마른의 주요 애도자

번개가 치자 회색빛 숲이 순식간에 하얗게 물들었다. 구불구불한 나뭇가지 끝의 마지막 잎사귀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모든 디테일이 은색 연필로 정교하게 그려지거나, 은으로 새겨진 듯했다.

번개의 그 기묘한 현상은 단 한순간에 수백만 가지의 미세한 사물을 기록하는 듯했다. 그 빛은 나무 아래 펼쳐진 피크닉 상에서부터 끝없이 이어져 나가는 하얀 포장 도로, 그리고 그 끝에 멈춰 서 있는 흰색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또렷하게 뽑아냈다.

먼 곳에는 네 개의 탑을 가진 슬픈 저택이 있었다. 회색빛 저녁노을 속에서는 부서진 구름 덩어리처럼 흐릿하고 먼 곳에 있던 그 건물이, 이번 번개 빛에 전경으로 뛰어든 듯 선명해졌다. 성벽 같은 지붕과 창백하게 빛나는 빈 창문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적어도 이 순간의 빛에는 어떤 계시의 느낌이 담겨 있었다. 나무 아래 모여 있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 성은 이미 퇴색하고 거의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 전경에서 다시금 힘차게 솟아오를 것임을 증명해 보였다.

순간적인 은빛 광채가 한 인간 형상도 감쌌다. 그 형상은 탑 하나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채 서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잔디밭에 앉거나, 바구니와 식기를 주우려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그들보다 높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큰 남자였다. 그는 그림 같은 짧은 망토를 입었는데, 은색 버클과 사슬로 잠그고 있었다. 번개

가 치는 순간 그 버클은 별처럼 빛났다. 그의 움직이지 않는 형상은 금속성 물체를 연상시켰다. 그의 머리카락이 단단하게 말려 있었고, 정말로 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광택 나는 황금빛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얼굴보다 더 짙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단호한 독수리코를 가진 미남자였다. 강한 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약간 주름지고 시들어 보였다. 그는 화장 가면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휴고 로메인은 그의 시대 최고의 배우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빛으로 인해 그의 금발과 아이보리빛 가면, 은색 장신구는 그의 형상을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빛나게 했다. 다음 순간 그의 형상은 비 오는 저녁 하늘의 누런 회색 배경에 어두운, 심지어 검은 실루엣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정적에는 동상의 그것과 같은 무언가가 있어서, 발치에 있던 무리와 그를 구별 짓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이들은 모두 빛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반응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비가 오는 하늘이었지만, 이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 처음 내리친 번개였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성은 회색 머리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그 머리카락이 정말 자랑스러운 듯했다. 그녀는 미국 출신의 숙녀로 보였다. 그녀는 거리낌 없이 눈을 감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영국인 남편인 오토람 장군은 매우 무뚝뚝한 영국-인도 출신의 군인이었다. 그는 대머리에 검은 콧수염과 구식 모양의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단호한 동작으로 고개를 들어올렸다가 다시 정리 작업에 집중했다.

말로우라는 이름의 젊은이는 매우 크고 수줍어했다. 그의 갈색 눈은 개와 같았다. 그는 컵을 떨어뜨리며 어색하게 사과했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은 세 번째 남자는 결의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호기심 많은 테리어의 얼굴과 같았다. 그의 회색 머리는 단단히 빗겨 뒤로 넘겨졌다.

그는 바로 유명한 신문 소유자, 존 코크스퍼 경이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욕설을 내뱉었지만, 영어 관용구나 억양은 아니었다. 토론토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짧은 망토를 걸친 키 큰 남자는 황혼 속에서도 동상처럼 일어서 있었다. 그의 독수리 같은 얼굴은 강한 빛 아래에서 로마 황제의 흉상과 같았다. 조각된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어두운 돔 위로 천둥이 갈라지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동상은 살아난 듯했다.

그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번개와 천둥 사이에는 약 1분 30초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번개를 막아주는 좋은 우산이 되지는 못하지만, 곧 비를 피할 곳으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젊은이는 약간 걱정스러운 듯 여자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어디든 피할 곳은 없을까요? 저쪽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집이 하나 있소." 장군은 다소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호텔 같은 곳은 아니오."

"참 이상하죠." 아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필이면 다른 집은 없고 그 집 한 채만 근처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폭풍을 만났을까요."

그녀의 어조에는 무언가 젊은 남자를 멈추게 하는 힘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예민했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온 사내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위력이 없었다.

"왜 그래요? 그건." 그가 물었다. "폐허처럼 보이는데."

"그곳은 마른 후작의 소유지입니다." 장군은 차갑게 말했다.

"세상에!" 코크스퍼 경이 말했다. "저 작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정말 묘한 녀석이죠. 작년 _코멧_ 지가 1면 머리기사로 그걸 추리소설처럼 다뤘으니까요. 제목은 '누구도 모르는 귀족'이었죠."

"네, 저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로우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데 대해 이상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이는 그가 나병 환자라 가면을 쓴다고도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려져 있어 기형

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두운 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른 후작은 머리가 세 개 있습니다.” 로메인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삼백 년에 한 번씩,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귀족이 가문 나무를 장식 하죠. 저주받은 저 집에는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직 모자를 만드는 장인들이 침묵한 행렬을 이루어, 평범하지 않은 수의 모자를 공급하러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극장에서 청중을 오싹하게 할 수 있는 깊고 무서운 톤으로 변했다.

“하지만 친구들이여, 그 모자들은 사람의 머리에 맞는 모양이 아닙니다.”

미국 여자는 살짝 찌푸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의 기교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움직인 듯했다.

“섬뜩한 농담은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 농담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듣고 따르겠습니다." 배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도 경기병대처럼 그 이유조차 따져 묻는 것이 금지된 건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 귀족’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아는지라, 적어도 서른 해 전 워싱턴에서 외교관으로 일할 때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모두 젊었죠. 그리고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 앞에서는요. 나병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의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말입니다. 그는 머리가 하나뿐이었고, 심장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미 깨져 있었죠.”

“불행한 연애 사건이군요, 물론,” 코크스퍼가 말했다. “저는 그걸 <코멧>에 싣고 싶군요.”

“남자의 마음은 여자에게 깨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찌면 우리에게 대한 칭찬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과 상실에 다른 형태도 존재하죠. ‘메모리암’을 읽어보신 적 없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모르시고요.”

마른을 무너뜨린 건 그의 형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첫째 사촌이었지만, 형처럼 함께 자랐고 대부분의 형제들보다 더 가까웠죠. 제가 그를 알았을 때 후작은 제임스 메이어라고 불렸습니다. 두 형제 중 장남이었지만, 그는 항상 숭배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메이어를 신처럼 여겼죠.

그의 말에 따르면, 모리스 메이어는 확실히 경이로운 인물이었다. 제임스도 바보는 아니었고, 자신의 정치 일에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그 모든 것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빛나는 예술가이자 아마추어 배우, 음악가였으며,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제임스 자신도 매우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근육질이였으며, 높은 콧대를 가졌습니다. 수염은 빅토리아 시대의 유행에 따라 두 덩어리의

수염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기괴해 보였을 겁니다. 반면 모리스는 수염을 깎았고, 제가 본 초상화들에 따르면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그가 신사라기보다는 테너 가수처럼 보이는 점이 조금 아쉽더군요.

제임스는 제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경이롭지 않니? 어떤 여자가 그에게 반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은 갑자기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임스의 전체 인생은 그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산산조각 난 것이죠. 해변에서 감기를 얻은 것이 원인이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젊은이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어 버렸나요?”

“처음에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아시아나 식인종이 사는 섬들, 하느님만이 아시는 곳으로 말이죠.”

“죽음의 타격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과의 단절로 다가왔습니다. 전통과의 단절, 그리고 가능한 한 기억으로부터의 단절까지. 그는 옛 인연에 대한 언급을 건딜 수 없었습니다. 초상화도, 일화도, 심지어 관련된 기억조차요. 그는 거대한 공적 장례식의 절차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십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죠.

마침내 유배의 끝에서 그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종교적 우울증에 빠졌고, 그것은 사실상 광기에 다름아닙니다.”

“신부들이 그를 붙잡았다고들 하더군.” 노장군은 투덜거렸다. “그가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 수천 파운드를 기부했다는 건 나도 안다. 게다가 그 자신도 수도자, 아니 적어도 은자처럼 산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될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미신이라니, 참으로 골치 아프군.” 코크스퍼가 코웃음을 쳤다. “이런 건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야 해. 제국과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었을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빌어먹은 흡혈귀들이 그에게 달라붙어 피를 말려 버렸어. 저들이 비정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정작 결혼조차 시켜주지 않았을 게 틀림없어.”

“아니요, 그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습시다.” 부인이 말했다. “제가 알던 그때 그는 약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랑도 함께 사라졌죠. 햄릿과 오피리아처럼요. 그는 삶을 놓치면서 사랑도 놓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알고 있죠.” 부인은 말을 이었다. “사실은, 그 소녀는 바이올라 그레이슨입니다. 옛 해군 제독의 딸이죠. 그녀도 결혼하지 않았습시다.”

“참으로 악명 높군! 지옥 같은 일이다!” 존 경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범죄야. 나는 국민 앞에 책무가 있고, 이 터무니없는 악몽을 끝까지 파헤칠 거야. 20세기라는 시대에 말이야……”

그는 자신의 항의에 목이 메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병이 입을 열었다.

“글쎄요, 그런 일에 대해 제가 많이 아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종교인들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구절을 한 번쯤 공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행히도, 그게 바로 문제의 겉모습이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죽은 자가 또 다른 죽은 자를 묻는, 기이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영원히 반복되는 그 이야기처럼.”

“폭풍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로메인이 묘하게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그 무례한 집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게 되었군요.”

그녀는 갑자기 오한이 돋았다.

“오, 그런 일은 다시는 절대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외쳤다.

말로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시라니! 전에도 해보셨나요?” 그가 외쳤다.

“한 번은 그랬죠.” 그녀는 가볍게, 하지만 은근히 자부심을 섞어 말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돌아가진 말자. 비는 안 오고 있지만, 차 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로와 장군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장군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저런 알미운 꺄렁이 코크스퍼가 듣는 건 원치 않네. 하지만 내가 물어봤으니 알려주지. 마른이 저지른 일 중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바로 이것뿐이야. 하지만 아마도 그 수도사들이 저렇게 길들인 모양이지.

미국의 친구 중 그에게 가장 좋았던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어. 그런데 그 여인이 그가 정원을 거닐 때 그 집까지 찾아간 거야. 그는 마치 수도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얼굴은 검은 후드로 완전히 가려졌는데, 그 후드는 어떤 가면보다도 우스꽝스러웠어.

아내는 명함을 전하고 그의 바로 앞길에 섰어. 그런데 그는 말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녀를 지나쳤지. 마치 그녀가 돌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그는 인간이 아니었어. 끔찍한 자동인형 같았지. 그래서 아내가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정말 이상하군요.” 젊은이가 모호하게 말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젊은 말로 씨는 다소 음울했던 소풍을 마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를 찾아 나섰다. 그는 수도승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 명의 신부만큼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신부를 만나, 오후에 들은 기이한 진실

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는 마른 가옥을 뒤덮고 있던 잔인한 미신이, 자신이 목격한 검은 뇌운처럼 집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끝내 친구인 브라운 신부를 찾아냈다. 신부는 또 다른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은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은 대가족이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브라운 신부는 바닥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왁스 인형이 쓰고 있던 다소 과장된 모자를, 곰 인형의 머리에 억지로 고정시키려던 참이었다.

말로는 묘한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기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대화를 미루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과정이 일시적으로 막힌 상태, 일종의 좌절감 때문에 휘청거렸다. 그는 장군의 아내에게서 들은 마른 가문의 비극 전부를 쏟아냈고, 장군과 신문 발행인의 대부분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신문 발행인의 이름이 언급되자, 마치 새로운 주위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브라운 신부는 자신의 태도가 코믹하거나 평범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큰 머리와 짧은 다리 때문에, 장난감에 몰입한 아기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커다란 회색 눈빛에 어떤 표정이 스쳤다. 그 눈빛은 지난 1,9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지녀 왔던 표정이었다. 다

만 그들은 보통 바닥에 앉아 있지 않았다. 대신 의회 테이블 주위에 앉거나, 성직자 회의석에 앉았으며, 주교와 추기경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며 경계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무게감은 인간에게는 너무도 큰 책임감에서 우러나온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불안하고도 멀리까지 미치는 그 시선은, 선원들의 눈에서, 그리고 성 베드로의 배를 수많은 폭풍우 속으로 이끌어 온 사람들의 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당신이나 장군 같은 분이라면 사적인 문제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존 콕스퍼 경이 자신의 신문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토론토의 오렌지당 신도니까요. 우리는 이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로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사실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 잠시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 인간의 행복을 짓밟는 비관적인 뱀파이어라고요. 제가 비관적인 뱀파이어라고 칩시다.”

그는 테디베어로 코를 긁다가, 이 부조화한 행동이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테디베어를 내려놓았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와 가족의 유대를 파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왜, 그가 그 유대에서 벗어나려던 찰나에, 다시금 오래된 가족의 끈으로 그를 엮어매려 할까요? 그런 애정을 짓누르고, 그런 미련을 부추긴다고 우리를 둘 다 비난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교적 광신자라 해도, 그토록 특정한 종류의 광기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작은 희망을 붙여넣어 그 광기를 더 선명하게 할 뿐이지, 어떻게 그 광증을 증폭시킬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더니 그가 말했다. “당신의 그 장군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말해 줍니다.” 말로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말한 것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대답했다. “그가 ‘아내에 대한 무례함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용서할 다른 일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브라운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물거리는 옷자락을 털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짝 의아한 표정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돌아섰다.

그는 흐물거리는 우산을 주워 들고, 크고 낡은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거리를 걸어 나갔다.

그는 넓은 거리와 광장들을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웨스트엔드에 있는 고풍스러운 저택 하나에 다다랐다. 그는 하인에게 아웃람 장군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금의 잡담이 오간 후, 그는 서재로 안내되었다. 서재에는 책보다 지도와 지구본이 더 많았다. 그곳에서 대머리에 검은 턱수염을 기른 영국령 인도 출신의 장군은 가늘고 긴 검은 시가를 피우며, 차트 위에 펜을 놓고 놀고 있었다.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신부가 말했다. “더욱이 제가 끼어드는 모습이 간섭처럼 비칠까 봐 더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사적인 범위 안에서만 끝내고 싶어서요.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를 세상에 알릴지도 모릅니다. 장군, 존 콕스퍼 경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은 수염과 콧수염 덩어리는 노장군의 얼굴 아래쪽을 마치 가면처럼 가렸다. 그가 미소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갈색 눈빛에는 종종 반짝이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누구나 그분을 아시죠?” 그가 말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글쎄요,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인쇄하는 게 편하다 싶을 때면 누구나 알게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브라운 신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 친구 말로 씨로부터 들은 바로는, 아마 그분도 아시겠지만, 존 경이 ‘마른의 수수께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반성직자론 기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후작을 미치게 하다’ 같은 제목으로요.”

“그렇다면,” 장군이 대답했다. “왜 하필 내게로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먼저 말해두지만, 나는 강경한 프로테스탄트 신자야.”

“나는 강한 개신교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당신을 찾았습니다. 존 콕스퍼 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불친절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갈색 눈이 다시 반짝였다. 하지만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군님,”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만약 콕스퍼나 그 무리가 당신의 나라와 국기를 모욕하는 소문을 세상에 떨치려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당신의 연대가 전투에서 도주했다고, 혹은 당신의 참모부가 적의 돈에 매수되었다고 주장한다면요? 당신은 그를 반박할 진실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허용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연대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한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허구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 군대는 명예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된 이야기를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내려 하는 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은 침묵을 지켰고, 신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어제 말로가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른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를 잃고 상심하여 은퇴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분명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알고 계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니요,” 장군은 짧게 잘라 말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군,” 브라운 신부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만약 제가 그런 회피적인 말을 썼다면, 당신은 저를 예수회 신부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장군은 거친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더 큰 적의에 찬 포효로 그 웃음을 삼켰다.

“그럼 말 안 해.” 그가 말했다. “그래, 어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갈색 눈이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빛나던 반짝임은 사라져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너무 동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그 이면에 더 깊은 사정이 있음을 제가 왜 확신하는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작이 과거의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토록 침울하고 비밀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사제들과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개종한 것인지, 아니면 자선 활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는 것인지조차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상주일 뿐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장요하시느 만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메어가 약혼했다가 모리스 메어의 죽음 이후 어찌 된 일인지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제삼자의 죽음으로 인해 우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직한 남자가 약혼을 파기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위로가 필요했을 터이고, 어쨌든 예의상 그 약혼을 끝까지 지켜야 마땅했습니다.”

장군은 검은 수염을 깨물고 있었다. 갈색 눈빛은 매우 경계심에 차 있었고, 심지어 불안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가 탁자를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제임스 메어는 늘 그의 여자 친구에게, 사촌 모리스가 매력적이지 않느냐고, 여성들이 그를 흠모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가 그 질문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혹은 발을 구르며 서성였다.

“에잇,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적대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셋째로, 제임스 메어의 애도 방식이 기이합니다. 모든 유물을 불태우고, 초상화 모두를 가리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죠. 단순히 깊은 슬픔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치겠군.”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이걸 언제까지 쌓아두겠다는 거야?”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서는 거의 결정적입니다.” 신부는 차분하게 말했다. “특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명문가의 자제인 모리스 메어가 특별한 장례식조차 치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마도 급하게, 어쩌면 비밀리에 매장되었을 것입니

다. 마지막 단서는 제임스 메어가 즉시 외국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지구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다. “두 형제의 순수하고 완벽한 우정을 돋보이게 하려다 제 신앙을 먹칠하려 했으니, 어찌 보면----”

“멈춰!” 아웃람이 권총이 발사된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더 말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더 끔찍한 상상을 할 테니까. 먼저 한 가지만 말해주마. 그것은 공정한 싸움이였다.”

“아,”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는 거대한 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투였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아마도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결투였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죠.”

“그게 더 낫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훨씬 나아졌어요.”

“상상했던 추한 일보단 낫겠지?” 장군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순수하고 완벽한 우정을 비웃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소. 제임스 메어는 사촌에게 진심으로 헌신했으니까. 사촌은 그와 함께 마치 동생처럼 자랐지. 형제 자매 중에는 그런 아이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경우도 때때로 있거든. 특히 그 아이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일 때는 더더욱. 하지만 제임스 메어는 증오조차 이타적이랄 수 있는

순진한 성품의 소유자였소. 그의 다정함이 분노로 바뀌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객관적이어서 분노의 대상에게로 향했을 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요.”

반면, 불쌍한 모리스 메어는 정반대였다. 그는 훨씬 더 사교적이고 인기 많았지.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를 거울의 집처럼 만든 듯했어. 모든 스포츠와 예술, 재능에서 그는 항상 1등이었고, 승리를 거두면서도 언제나 친절할 태도를 유지했지.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든 패배한다면, 그 친절할 가면 아래에서 조금은 냉정한 모습이 드러나곤 했어. 그는 조금 질투심이 강했던 거야.

사촌의 약혼을 그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그 안절부절못하는 허영심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전할 필요는 없소. 중요한 건, 제임스 메어가 모리스보다 단연 앞섰던 유일한 분야가 권총 사격이었다는 점이야. 그리고 그 사격으로 비극은 끝이 났소.

“그건 비극이 시작됐다는 말씀이군요.” 사제가 말했다. “생존자의 비극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수도사 같은 흡혈귀들이 없어도 충분히 불행해질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분은 필요 이상으로 불행해 보이십니다.” 장군이 말했다.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끔찍한 비극이긴 했지만 그건 정정당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은 충분히 격분할 만한 이유를 가졌으니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사제가 물었다.

“저도 봤습니다.” 아웃람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임스 메어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모리스 메어가 모래사장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브라운 신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모리스 메어의 조력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를 뒷받침한 인물이 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장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후고 로메인이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유명한 배우죠. 모리스는 연기 열에 빠져, 당시 아직 이름은 알리지만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로메인을 만나 수업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금전을 지원해 주었죠. 자신의 취미인 아마추어 연기에 대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대가료요.

당시 로메인은 부유한 친구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지금 그는 그 어떤 귀족보다도 부자이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그가 조력자로 나선 것이, 그들 사이의 다툼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식 방식, 즉 조력자를 각자 한 명씩만 두고 결투를 치렀습니다. 저는 최소한 외과 의사를 동행하려 했지만, 모리스는 거침없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알리는 사람이 적을수록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근처에서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반 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금세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불렀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리스가 총을 다루는 데 서툴렀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을 거절하자,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결투는 스코틀랜드 동해안의 평평한 모래밭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래언덕으로 이루어진 긴 장벽이 내륙의 마을들을 가리고 있어, 결투의 모습과 소리는 숨겨졌습니다. 그 언덕에는 거친 풀이 무성한 곳이 섞여 있었는데, 아마도 골프 링크스의 일부였을 겁니다. 비록 그 시절에는 영국인들도 골프라는 것을 듣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모래밭으로 나가는 데 사용한, 깊고 구불거리는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먼저 넓게 펼쳐진 누런 모래가 있고, 그 너머로 좁게 이어진 짙은 붉은 모래가 보입니다. 그 붉은빛은 이미 피의 행위에 드리운 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끔찍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마치 허리케인이 모래밭을 강타한 듯했다. 총성이 터지는 순간, 모리스 메어는 팡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볼링 핀처럼 얼굴부터 고꾸라졌다.

그 순간까지 나는 그를 걱정하며 초조해했지만, 그가 죽자마자 내 연민은 그를 죽인 남자에게로 향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친구의 평생에 걸친 사랑이라는 거대한 진자의 추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임을 나는 알았다. 다른 이들이 그를 용서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더라도, 그는 영원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잊히지 않는 이미지는 재앙의 장면, 즉 연기와 섬광, 그리고 떨어지는 형체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음처럼 순식간에 끝났다. 내가 보았고, 앞으로 영원히 보게 될 것은 가엾은 짐이 쓰러진 친구이자 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이다. 그의 갈색 수염은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어 검게 보였고, 높은 광대뼈는 바다를 배경으로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모래언덕 너머 마을에 있는 외과의사를 부르러 가라고, 손짓하며 절박하게 나를 재촉했다.

그는 달리는 동안 권총을 떨어뜨렸다. 한 손에는 장갑을 쥐고 있었는데, 험령하게 흔들리는 장갑의 손가락들이 그의 절박한 손짓과 도움을 호소하는 제스처를 더욱 강조하는 듯 길게 늘어져 보였다.

그것이 내 기억에 남은 유일한 그림이다. 그 그림 속에는 모래와 바다의 줄무늬 배경, 돌처럼 고요히 누운 어두운 시체, 그리고 수평선을 배경으로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죽은 자의 조력자의 어두운 형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로메인이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나요?” 신부가 물었다. “그는 시체 쪽으로 더 빠르게 달려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떠난 뒤였을지도 모릅니다.” 장군이 말했다.

“그 죽지 않는 그림을 나는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모래언덕 사이로 몸을 숨겨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가엾은 모리스는 의사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의사가 도착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가 온 속도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마을 외과의사는 매우 특이한 인물로, 붉은 머리에 성미가 급했지만, 즉각적인 행동력과 침착함에서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말에 뛰어올라 죽음의 현장으로 쏜살같이 떠나는 모습을 잠깐 보았을 뿐, 저는 그에게 한참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개성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 만약 그가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로 소환되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을 걸고 믿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결투를 막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두 발로 해변까지 더듬어 돌아올 때까지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급진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덕분에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시체는 모래언덕에 임시로 묻혔고, 불행한 살인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설득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안을 따라 슬그머니 이동해 항구에 도착했고, 결국 나라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아시지요. 가엾은 짐은 수년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조용히 덮이거나

잊혀지자, 그는 자신의 처절한 성으로 돌아와 자동으로 작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붉은 글씨로 적힌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애를 쓰셨군요?”

“제 아내가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그녀는 그런 범죄가 한 인간을 영원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80년 전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내는 그 분쟁의 원인이 된 불행한 여인과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그녀는 짐이 만약 비올라 그레이슨을 다시 만나, 옛 원한은 이미 묻혔다는 그녀의 확신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 제 아내가 옛 친구들의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장군의 지도 옆에 놓인 핀들을 손으로 만지며 놀고 있었다. 그는 마치 탄생각에 잠긴 듯, 귀는 기울이고 있었으나 마음은 딴곳에 있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사물을 이미지로 그려내는 방식이

었다. 실용적인 군인의 평범한 마음속에도 이미 그 이미지는 선명하게
물들었으나, 신비로운 영성을 지닌 사제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의미 깊
고 음산한 색채로 물들어 갔다.

그는 모래밭의 어두운 붉은 황폐함, 곧 아켈다마의 그 빛깔을 보았
다. 그리고 어둠 속에 묻쳐 누운 시체를 보았다. 그리고 도망치면서도
몸을 굽혀, 광기 어린 후회의 손짓을 하며 장갑을 흔들던 살인자를 보
았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늘 세 번째 무언가로 돌아갔다. 그는 아직
그것을 인간의 어떤 형상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조력자였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신비로운 모습
으로 서 있었다. 마치 바다 끝자락에 서 있는 어두운 동상 같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브라운 신부에게 있어 그 굳어 선 형상은 마치 물음표처럼 세워져 있었
다.

로메인은 왜 즉각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성에서,
아니 친구라면 더더욱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설령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의도나 더 어두운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겹치레라도
위해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다. 어쨌든 그 일이 모두 끝난 뒤라면, 다른
한 사람의 조력자가 모래 언덕 너머로 사라지기 훨씬 전에, 로메인은
이미 움직였어야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로메인이라는 남자는 걸음이 매우 느린가요?” 그가 물었다.

“그렇게 묻다니 이상하군요.” 아웃람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 그는 움직일 때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저는 방금 오후에 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치던 오후, 그가 정확히 저렇게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는 은색 고리가 달린 망토를 걸치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섰습니다. 오래전 그 피투성이 모래사장에서 그가 섰던 바로 그 자세, 모든 선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죠. 번개가 모든 것을 눈이 부시게 만들었지만,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을 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겠지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가 움직이긴 했겠지요?”

“아니요, 천둥이 치자 그는 아주 날카롭게 움직였어요.”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는 마치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간격의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당신 핀 중 하나에 찔렸소. 손상되지는 않았길 바라지만.”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번뜩였고, 입은 갑자기 굳어 버렸다.

“당신 아프세요?” 장군이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아니요,” 사제가 답했다. “저는 로메인 씨처럼 냉정하지는 않아요. 빛이 눈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게 되니까요.”

그는 모자와 우산을 주우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한 듯 다시 돌아섰다. 아웃람에게 다가가, 마치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마치 조끼를 잡고 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장군,”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제발, 당신 아내와 저 다른 여인이 마른을 다시 만나러 가자고 고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잠자는 개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지옥의 사냥개들을 모두 깨우지 않습니다.”

장군은 다시 핀 놀이에 집중했다. 갈색 눈에는 당혹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당혹감은 장군의 아내가 꾸민 자비로운 음모의 각 단계를 따라갔다. 그녀는 인간혐오자의 성을 함락시키려 공감대를 가진 소규모 동조자들을 모았다. 그녀가 처음 맞은 놀라움은 고대 비극의 한 배우가 설명되지 않게 결석한 것이었다. 그들이 성 근처의 조용한 호텔에서 약속한 장소에 모였을 때, 휴고 로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늦게 도착한 한 변호사의 전보가 그들을 알려 주었다. 위대한 배우가 갑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성에 긴급 면담 요청을 보내 포격을 시작했을 때 찾아왔다. 그 어두운 문턱에서 귀족 소유자를 대신해 사절을 맞이한 인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그 음울한 가로수 길이나 거의 중세적인 예의에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던 인물과는 달랐다. 우아한 청지기나 대청지기, 심지어 위엄 있는 하

인이나 키 크고 장식적인 하인도 아니었다. 동굴 같은 성 문턱에서 나온 유일한 인물은 짧고 초라한 브라운 신부의 모습이었다.

“자, 보세요,” 그는 성급하고 당황한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 곁에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괜히 간섭했다가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에요.”

아웃람 부인이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곁에 서 있었다. 아마도 원래의 미스 그레이슨일 것이다.

그 여인은 여전히 단아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작은 신부를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신부님.” 그녀가 말했다. “이건 아주 사적인 자리입니다. 도 대체 당신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부라니, 사적인 일에 끼어드는 건 신부 특권이군.” 코크스퍼 경이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벽 판자 뒤의 쥐처럼 뒤에서 기어들어와 남의 사생활을 파고든다는 건 모르는 거야? 보게, 이미 가없는 마른 씨를 손아귀에 넣었잖아.”

코크스퍼 경은 다소 불쾌한 기색을 풍겼다. 귀족 친구들이 권유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홍보 효과를 포기하는 대신, 진정한 사교계의 비밀에 접근할 특권을 얻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자신이 바로 벽 판자 뒤의 쥐와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아, 괜찮아요.” 브라운 신부는 초조한 듯 서둘러 말했다. “마른 후작과 상의했소. 그분과 교류한 신부는 단 한 분뿐이요. 그분의 종교적 취향은 과장된 것일 뿐이요. 마르키스는 분명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소. 그러니 모두 그분께는 손대지 말아 주시오.”

“당신은 그를 그 처참한 죽음 같은 삶, 즉 폐허 속에서 우울에 잠기고 미쳐가는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말입니까!” 아웃람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가 사반세기도 더 전에 결투에서 한 남자를 쏘아 죽인 그 불행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적 자선입니까?”

“네,” 신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부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기독교적 자비는 다 거기다.” 코크스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들이 죄인인 나 같은 가엾은 이를 용서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다. 살아서 벽 속에 가두어 굶겨 죽이는 것. 단식과 참회, 그리고 지옥의 불꽃 그림으로 말이지. 오직 총알이 빗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브라운 신부님,” 아웃람 장군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독교 정신입니까?”

"정말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부인은 더 부드럽게 간청했다. "기억할 줄도 알지만, 잊을 줄도 아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브라운 신부님,” 젊은 말로가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보통은 신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투에서 한 발을 쏜 뒤, 즉각적으로 후회했다면, 그렇게 끔찍한 죄는 아닐 텐데요.”

“인정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무기력하게 말했다. “제가 그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낯선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걸겠소.”

거대한 회색 집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유령을 불러낸 듯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큰 돌계단 꼭대기의 어두운 문턱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

그는 죽은 듯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하얗게 빛나는 머리칼에는 야생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대리석 조각상이 부서진 듯한 절망이 배어 있었다.

비올라 그레이슨이 차분하게 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웃람은 굵고 검은 수염 아래에서 중얼거렸다.

“그가 내 아내를 외면했던 것처럼 그녀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내 생각엔.”

브라운 신부는 체념한 듯 주저앉아 있던 차, 잠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른 씨의 양심에는 이미 짐이 충분하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용서합시다. 적어도 그는 당신의 부인을 외면하지 않았소.”

“그게 무슨 뜻이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말을 나누던 중, 키 큰 부인이 자랑스럽게 마지막 계단을 올라 마른 후작과 마주쳤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으나, 말을 건네기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넓은 공간 위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비명은 오목한 벽면을 따라 메아리 치며 멀리 사라져 갔다.

여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그 소리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워, 그저 말 없는 절규로 들릴 법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말로 된 단어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단어를 끄찍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었다.

“모리스!”

“무슨 일이에요?” 아웃람 부인이 외치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다른 여인이 온몸을 떨며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웃람 부인은 방향을 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몸은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세상에, 세상에…… 저건 짐이 아니에요. 모리스예요!”

“아웃람 부인,”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고개를 돌리자, 돌계단 위에서 떨어지는 돌맹이처럼 한 목소리가 그들을 덮쳤다. 마치 열린 무덤에서 새어나온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쉼 기색이 역력했고, 자연스럽지 못했다. 황량한 섬에서 야생 조류와 홀로 남겨진 자들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그것은 마른 후작의 목소리였다. 그가 외쳤다.

“멈춰!”

“브라운 신부님,” 그가 말했다. “당신의 친구들이 흠어지기 전에, 제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더 이상 이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건 당신에게 기록될 것입니다.”

“네,” 브라운 신부가 나중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가 내게 말해 줄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그대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낸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수도승의 영향력이 소설 속 허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엔 남자가 수도원에 들어가도록 권할 수 있겠지만, 중세 성에 머물도록 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승이 아닌데 수도승 옷을 입도록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그가 스스로 수도승 후드나 가면을 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애도하는 사람, 그리고 살인자로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는 숨어야 할 이유가 단순히 그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흐릿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의 생생한 결투 묘사가 이어졌다. 그중 가장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 것은 배경에 서 있는 로메인 씨의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가 배경에 있었기에 더욱 또렷하게 기억났다.

왜 장군은 모래 위에 죽은 자를 남겨두고, 친구인 로메인 씨가 마치 주춧돌이나 돌덩이처럼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꼼짝도 않게 서 있는 것을 방치했을까?

그때 나는 아주 사소한 단서를 하나 들었다. 로메인 씨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기계적인 습관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과거 그 사건에서도 휴고 로메인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장군이 말했다.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인가?"

"그는 결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결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군이 외쳤다.

"나에게 말하건대, 당신은 그 결투를 보지 못했소." 신부가 말했다.

"당신 미쳤소?"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내가 왜 맹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당신을 눈먼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말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었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고함에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그 부자연스러운 싸움을 보지 못하도록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 끔찍한 붉은 해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사이에, 유다와 가인의 격분한 영혼들이 지배하던 그 장소 사이에, 모래와 침묵의 장벽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여인이 조바심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제게 그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가 말을 이었다. "그다음으로 제가 알아챈 것은, 배우 로메인이 모리스 메어를 연기라는 직업의 모든 요령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연기 쪽으로 관심을 가진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일주일간 훈련이 온통 ‘넘어지기’ 연습으로 채워졌다는,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군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는 듯 의자 팔걸이를 짝 쥐었다.

“아멘,”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당신이 말했죠.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일이 끝났다는 것ですよ. 사실, 모리스는 총알이 날아가기도 전에 쓰러졌고,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악한 친구이자 스승도 배경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크스퍼가 말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는 기분이 들어요.”

제임스 메어는 이미 죄책감에 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그는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키려 몸을 굽혔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더러운 것처럼 던져버렸다. 하지만 모리스의 권총은 아직 그의 손 아래에 놓여 있었고, 아직 발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노인이 젊은이를 일으키려 몸을 굽히자, 젊은이는 왼팔로 몸을 일으켜 노인의 몸통을 향해 쏘았다. 그는 자신이 쏘는 숨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 심장을 빗나갈 리는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화자를 내려다보며 굳어 있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존 경이 마침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이제 이 모리스 메어, 현 마른 후작을 당신의 기독교적 자비로 맡기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독교적 자비에 대해 무언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죄인 같은 자들에게 다행인 것은, 당신이 자비의 편에서 지나치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칠 노릇이군!” 장군이 폭발하듯 외쳤다. “저런 더러운 독사 같은 놈과 화해하라고? 내 말이지만, 지옥에서 불타 죽는다고 해도 그에게 단 한 마디라도 건네고 싶지 않아. 나는 정정당당한 결투라면 용서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배신자이자 암살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는 린치를 당해야 해!” 코크스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미국에서 흑인처럼 불에 타 죽어야 해. 그리고 만약 영원한 화염이 존재한다면, 그는 분명히----”

“저는 그와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말로우가 말했다.

“인간의 자선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아웃롭 부인이 온몸을 떨며 말했다.

“있죠,” 브라운 신부는 차갑게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인간적인 자비와 기독교적 자비의 진정한 차이입니다.”

“오늘 제가 비자비하다는 당신의 경멸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또 모든 죄인에게 용서를 말하며 저에게 한 말씀 하셨던 말씀들에도 동요하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들만 용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범죄자들이 당신이 범죄가 아니라 관습으로 여기는 일들을 저지를 때만 그들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관습적인 결투를 용납합니다. 마치 관습적인 이혼을 용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나,” 말로가 외쳤다. “우리가 이런 추잡한 짓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다가가야 하죠.”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할 말을 건네야 합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자선심이 그들을 버릴 때, 절망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는 우리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좋아하는 죄악들을 용서하며, 유행하는 범죄에는 관대하게 굴며 자신의 장미빛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어둠 속에 남아, 밤의 흡혈귀처럼, 진정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로하십시오.”

“세상도, 자신들도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자들요. 사제만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열하고 혐오스럽지만, 실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함께하십시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지만, 그 래도 새벽은 오듯이 말입니다.”

“새벽이라니요?” 말로는 의아한 듯 되물었다. “당신은 그에게… 희망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제가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부인들이고 명예로운 신사들입니다. 자신들의 품격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런 추하고 비열한 수단에 결코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정말로 그런 비열한 수단에 손댔다면, 어찌되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안락한 지위에 올라선 후에도, 양심이나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그 추악한 이야기를 고백할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비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열한 범죄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짐을 챙겨 들고, 두세 명씩 조용히 방을 나섰다. 브라운 신부도 말없이, 다시 메른의 쓸쓸한 성으로 돌아갔다.

플랑보의 비밀

“내가 범인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종류의 살인 사건들이요.” 브라운 신부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범죄를 다룬 붉은색 그림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사실입니다.” 잠시 멈춘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보다 앞서 누군가가 살인자의 역할을 이미 수행했고, 그로 인해 나는 실제 경험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일종의 대체 배우와도 같았죠. 항상 살인자 역할을 준비하는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 역할을 완벽히 숙지하는 것을 내 일로 삼았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심리 상태를 상상해 볼 때, 나는 특정 정신적 조건 하에서는 나 자신도 그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그

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조건 하에서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가 진짜 범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일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혁명적 시인이 빨갱이 혁명가들에 격분한 노법관을 죽였다는 설명은 당위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것이 시인이 그를 _살해_ 해야 했던 진정한 이유는 아니다. 만약 혁명적 시인이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혁명적 시인’으로 만들어 보았다. 나는 개혁이 아닌 파괴를 사랑하며, 비관적이며 아나키즘적인 반란의 애호가를 의미한다. 나는 운 좋게 습득하거나 물려받은 건전한 상식과 건설적인 합리성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햇살이 들어오는 모든 천창을 닫고 어둡게 만들었다. 나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붉은 빛만이 비추는 마음을 상상했다. 바위를 찢고 심연 위로 불길을 지피는 그런 마음 말이다.

비록 그 환상이 가장 격렬하고 최악의 상태였을지라도, 나는 그 환상가들이 왜 일반 경찰과 충돌하여 자신의 앞길을 끊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백만 명 중 한 명꼴의 관습적인 노망한 자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폭력적인 노래를 얼마나 많이 썼든,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폭력적인 노래를 썼기 때문에, 그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래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은 자살로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 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더 많은 사건을 원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이방인을 생각했다.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세상 밖과 주변은 온통 완전한 어둠일 뿐, 세상 안은 전기 불빛의 번쩍임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살며 다른 세계를 믿지 않는, 세속적인 성공과 즐거움만이 무(無)에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그런 세속주의자—그야말로 실제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온 세상을 잃고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말이다.

혁명적인 남자가 아니라, 체면을 중시하는 남자가 어떤 범죄도 저지러 수 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 세련된 변호사에게 ‘노출’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의 세련된 세계가 여전히 진정으로 혐오하는 범죄, 즉 애국심에 대한 배신에 대한 노출을 말이다. 만약 내가 그의 위치에 있었고, 그의 철학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면, 하늘만이 내가 무엇을 했을지 알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작은 종교적 수행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 있다.”

"그건 좀 병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군," 그랜디슨 체이스가 의아한 듯 말했다.

“어떤 이들은 자선과 겸손이 병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친구 시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테고

요. 하지만 저는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보통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답하려는 거죠.

당신의 동포들 중 일부는 저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가 어떻게 몇몇 불공정한 재판을 무력화시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돌아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병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낸다고요. 하지만 제가 마법으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하지는 마세요.”

체이스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찡그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능이 높아서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너무 건강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라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을 것이다.

그는 한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백 명의 살인자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괴물 같은 난로 옆에 요정처럼 앉아 있는 그 작은 몸집에는 뭔가 섬뜩한 것이 느껴졌다. 그 둥근 머리속에는 광기 어린 비이성과 상상력 넘치는 부당함이 우주만큼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뒤로 펼쳐진 어둠의 광활한 공허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그림자들은 붉은 난로가 그들 마법의 원 안에 갇혀 있는 위대한 범죄자들의 유령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인을 찢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해 그건 좀 병적인 것 같아요.”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거의 마술만큼이나 병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병

적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일 거라는 점 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다. “당신이 정말 훌륭한 범죄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소설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사실 그대로의 사건만 다룰 뿐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허구보다 현실을 상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히 그러할 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들이란 말입니다.”

“진짜 상상하기 힘든 건 큰 범죄가 아니라 작은 범죄죠.” 신부가 답했다.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체이스가 말했다.

“말하자면 보석 절도 같은 평범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에메랄드 목걸이 사건이나 메루의 루비, 인공 금붕어 사건 같은 것들이요. 그런 사건들의 난관은 마음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선적인 고고함으로 큰 아이디어를 다루는 자들은 그런 뻔한 짓을 하지 않죠. 저는 선지자가 루비를 훔치지 않았다는 것도, 백작이 금붕어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비록 뱅크스 같은 사람이라면 에메랄드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석은 그저 유리 조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유리를 뚫어볼 수 있

죠. 하지만 작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시장 가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작은 마음이 필요하죠. 작은 마음은 얻기 아주 어렵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의 초점을 더 작고 또렷하게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도움이 되었죠. 그것들은 미스터리를 밝히는 데 큰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마술사’나 ‘하찮은 사기꾼’들을 적발했다고 자랑하는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남자는 항상 마음이 작습니다. 그들은 노숙자를 ‘간파’하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 그들을 걸러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의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하찮은 쾌감입니다.

내가 ‘작은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어디서 그것을 찾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예언자를 폭로하려던 남자에게서 말입니다. 바로 그 남자가 루비를 훔쳤죠. 자매의 심령술적 환상을 조롱하던 남자에게서도요. 바로 그 남자가 에메랄드를 낚아챈 것입니다.

그런 남성들은 항상 보석에 눈이 갑니다.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사기꾼들과 달리, 보석을 ‘떨시’하는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작은 범죄자들은 언제나 매우 관습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습성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박하게 느끼기까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군. 그토록 평범한 상상을 하다니, 오히려 기이한 일이지. 그토록 진지하

게 작은 물건을 원하다니. 하지만 할 수 있어. 너라면 그 근방까지 다다를 수 있지. 먼저 탐욕스러운 아이의 심정으로 시작해 보라. 가게에서 사탕을 훔쳤을 때의 그 마음을 떠올려라. 그리고 꼭 그 사탕이 필요했던 이유를 생각하라.

그다음에는 그 아이스러운 시를 빼내라. 사탕가게에 비추던 동화 같은 빛을 차단하라. 그리고 진짜로 이 세상을 알고, 사탕의 시장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라.

마치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듯 마음을 수축하라. 형체가 드러나고 선명해진다. 그리고 갑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말투는 한때 신성한 광경을 목격한 자의 것이었다.

그랜디슨 체이스는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그 무거운 눈썹 아래로 순간적으로 거의 공포에 가까운 빛이 스쳤다는 점이다. 마치 방 안을 떠도는 번개의 마지막 진동처럼, 사제의 첫 번째 기이한 고백이 그에게 미세한 충격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실수는 단지 일시적인 광기일 뿐이라고. 당연한 말이다. 브라운 신부는 그 순간 눈앞에 비친 괴물이자 살인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살인자라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혹시 그 사제가 조금 미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그가 불쑥 말했다. “범죄자처럼 느껴보려는 당신의 그 생각, 오히려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브라운 신부는 몸을 일으키며 더 짧고 끊어지는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건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시간과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죠. 인간에게 미리 후회를 안겨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국인은 울타리 한쪽을 반쯤 덮고 있는 높고 가파른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주인은 움직이지 않은 채 불꽃만 응시했다. 그러자 신부의 목소리가 낮은 톤으로 다시 들렸다. 마치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았다.

“사탄을 거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가 말했다. “그 차이는 현대 종교에서 아마도 가장 깊은 절벽일 것이다. 하나는 사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를 혐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를 혐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미덕 사이에는, 다른 어떤 미덕과 악덕 사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마치 녹은 납알처럼 단어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듯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범죄를 끔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끔찍하다고 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 같은 자연재해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 집이 불타오르는 것이 훨씬 더 끔찍합니다. 만약 범죄자가 갑자기 이 방에 나타나면…….”

“이 방에 범인이 나타나면,” 채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겁니다. 아마도 당신부터 먼저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며, 그가 아버지의 주머니를 털거나 어머니의 목을 베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설명할 테죠.”

“솔직히 말해,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결과는 범인이 단 한 명도 개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론을 펼치고 가상의 사례를 다루기는 쉽죠. 하지만 우리가 공허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듀로크 씨의 아늑하고 편안한 집에서, 우리의 체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자각하며 앉아 있는 우리는, 도둑과 살인자,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극적인 스릴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둑과 살인자를 실제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벽난로 옆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이 불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에는 범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모두가 언급했던 듀로크 씨가, 사람들이 부르던 그 난로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불빛에 길게 늘어져, 온 공간을 뒤덮은 듯했다. 그의 머리 위 밤하늘조차 어둠에 잠긴 듯했다.

“이 방에 범인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로 나입니다. 저는 플랑보입니다. 양 반구의 경찰들이 지금도 저를 쫓고 있죠.”

미국인은 돌처럼 굳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말도, 움직임도 할 수 없는 듯했다.

“제 고백에는 신비주의도, 은유도, 대리적 의미도 없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저는 스무 해 동안 이 두 손으로 도둑질을 했고, 이 두 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제 활동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재판관들과 추격자들이 실제로 범죄와 맞서 싸웠음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어떻게 책망하는지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의인들의 설교를 듣지 않았고, 점잖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높고 먼 어조로 훈계받으며, 어찌 누군가가 그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양반이 그런 타락한 생각을 꿈꿀 리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웃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제 친구만이 제가 왜 도둑질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신부는 거절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그랜디슨 체이스가 마침내 휘파람처럼 긴 숨을 내쉬었다.

“저는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랑보가 말했다. “이제 저는 경찰에게 넘기시든 말든,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순간,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 속에서 위, 어둡고 높은 집에서는 플랑보의 아이들이 늦게까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황혼 빛 아래 거대한 회색 돼지들이 우적우적 씹고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높은 목소리가 그 정적을 가르다. 그 목소리는 생생했고,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미국인의 민감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거의 놀라울 정도였다. 평범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정신이 때로는 스페인의 기사도 정신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듀로크 씨,” 그는 다소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친구였다고 믿습니다. 그런 제가 당신의 환대와 가족들의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당신이 자진해 자신의 일대기를 조금 들려준 것을 빌미로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오직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 말했을 뿐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신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더러운 고발자가 되어 남의 피를 돈에 팔아 먹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떤 사람이 유다처럼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군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